

잠언

잠언

2019년 7월 16일 초판 발행

펴낸이 김광욱 김영준 이영란 정한조

펴낸곳 100주년기념교회

표지 이지영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46

전화 02-332-9177

팩스 02-332-9175

비매품

새벽묵상

잠언

작성

잠언 1:1~19 | 이성실

잠언 1:20~33 | 정재규

잠언 2:1~22 | 정한조

잠언 3:1~35 | 정한조

잠언 4:1~27 | 정한조

잠언 5:1~23 | 정한조

잠언 6:1~19 | 김신년

잠언 6:20~35 | 이창호A

잠언 7:1~27 | 정한조

잠언 8:1~21 | 정한조

잠언 8:22~36 | 정한조

잠언 9:1~18 | 정한조

잠언 10:1~32 | 정한조

잠언 11:1~31 | 박성호

잠언 12:1~28 | 정한조

잠언 13:1~25 | 정한조

잠언 14:1~35 | 정한조

잠언 15:1~33 | 정한조

잠언 16:1~33 | 임용완

잠언 17:1~28 | 강요섭

잠언 18:1~24 | 임용완

잠언 19:1~29 | 정한조

잠언 20:1~30 | 정한조

잠언 21:1~31 | 정한조

잠언 22:1~29 | 이광희

잠언 23:1~35 | 정인철

잠언 24:1~34 | 정한조

잠언 25:1~28 | 정한조

잠언 26:1~28 | 정한조

잠언 27:1~27 | 정한조

잠언 28:1~28 | 이성실

잠언 29:1~27 | 홍민기

잠언 30:1~33 | 지종현

잠언 31:1~31 | 정한조

1

여호와의 경외하는 삶

잠언 1:1~19

1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2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3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4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5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6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8 내 아들이야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9 이는 네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의 금 사슬이니라 10 내 아들이야 악한 자가 너를 찢지라도 따르지 말라 11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12 스올 같이 그들을 산 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13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14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15 내 아들이야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16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17 새가 보는 데서 그 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18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19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잠언은 단순히 세상 지식이나 삶의 지혜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잠언 1:7은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지식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지혜를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이 잠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때때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과 정반대 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은 모기업 회장처럼 부하 직원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고 자기보다 힘이 없는 약자에게 위력을 가해서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에서 잘사는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고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어서 회사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그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익을 탐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맘몬 주의자에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 하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영혼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익을 탐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된 사람의 인생말로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게 해 주시려고 그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잠언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행위는 19절의 말씀처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자기 생명을 잃게 하기에 허망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잠언을 기록한 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직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열왕기상 3:6~9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처럼 솔로몬은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이 마음에 드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토대로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2~3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3)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와 훈계,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도록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고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하겠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기록하고 7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교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은 모든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속담 중에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도 있고, ‘모르는 게 약이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속담은 경우에 따라 둘 다 맞는 말인데, 그 의미는 서로 반대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의미가 어떻게 둘 다 맞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그 속담을 적용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환자가 받을 충격을 고려해서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사실대로 말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는 속담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자에게 중병에 걸린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게 힘이다’는 속담을 적용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기준은 자기 생각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경외하는 마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처신하는 모든 행동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8~9절을 보면,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8~9) 내 아들이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의 금사슬이니라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질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삶은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모호하고 복잡한데 잠언의 말씀은 삶의 복잡함과 모호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는 질문입니다. 맥락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때리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 세상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침묵은 금이다’는 속담이 옳다고 매일 침묵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침묵을 지켜야 할 때, 침묵이 금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사건 속에서 이 속담이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때를 잘 찾아 사용해야 하는데 말해야 할 때는 침묵하고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하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10~19절까지는 악한 자와 함께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합니다.

(11~12)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었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 같이 그들을 산 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이 말씀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악한 자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발적인 범죄와 계획적인 범죄는 완전히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달 10월 24일에 강서구 피시방에서 모텔을 꿈꾸던 평범한 20대 청년이 흥기에 찢려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벌이던 범인은 싸움이 커져 경찰까지 출동했음에도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 칼을 들고 현장에 다시 나타나 아르바이트생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범인은 심신미약에 따른 우발적인 살인이라 주장했

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심신미약이나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우발적인 범죄가 되면 살인을 했더라도 큰 처벌을 받지 않지만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판단되면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이처럼 계획적인 범죄는 우발적인 범죄에 비해 더 큰 범죄입니다. 이와 같이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자는 악한 자의 꾀에 넘어가는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19)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범죄는 필연적으로 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악한 행동으로 잠시 이익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잠언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면, 오히려 흥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주먹을 믿는 자입

니다. 그들은 반드시 소탐대실 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주위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로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생명으로 건져 올리는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보다는 자기 주먹을 믿으라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주먹을 믿었다가 패가망신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교훈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생명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상을 돕는 질문

1. 잠언의 말씀이 내 인생에 이정표가 된다고 생각한 때는 언제입니까?
2.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는데,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3. 솔로몬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라 생각했는데, 당신에게는 무엇입니까?
4.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2

지혜의 소리

잠언 1:20~33

20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21 시끄러운 길목
 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22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
 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23 나의 책
 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24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5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
 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26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27 너희의 두려움
 이 광풍 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 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
 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28 그 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
 리니 29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
 니하며 30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
 라 31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궤에 배부르리라 32 어
 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
 키려니와 33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
 이 안전하리라

지혜의 책망과 권면(20~23)

지혜가 연설을 하는 듯한 장면으로 본문은 시작됩니다. 지혜를 의인화해 등장시켜 뭔가를 강조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21)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금 지혜가 서 있는 곳은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와 성중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지혜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람들을 많이 그리고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에 서 있습니다. 지혜를 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곳에 지혜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지혜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소리로 말합니다.

(22)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잠언 9:10에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는 하나님의 소리’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찾으려 애를 써도 만나지 못하는 곳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보지 못했다고,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도록 이미 만물을 통해 보

이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간절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소리는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을 찾아가 이렇게 책망하고 권면합니다.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어리석음으로 세상의 유혹에 쉽게 마음을 열어 두겠으며, 어느 때까지 거만한 말로 상대를 조롱하며, 어느 때까지 둔하여 제대로 분별을 할 수 없는 흐려진 상태로 악을 일삼을 것인가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 짧은 말 안에는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 심판이 반드시 온다. 지금 하던 그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악행을 빨리 중단해야 한다’는 권면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권면 후 지혜는 이 본문의 핵심을 언급합니다.

(23)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돌이키라는 겁니다. 죄의 본성을 따르던 길에서 방향을 전환하여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의 소리에 민감해야 합니다. 전인적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이 소리 앞에서 늘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본문은 주님께로 돌이킬 때 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 ‘지혜의 영을 부어 주며 지혜의 말을 보이리라’는 것입니다.

이때 ‘보이리라’는 단어의 원어는 ‘아다’입니다. 즉 ‘알게 한다’는 뜻인데, 이 얇은 단순한 지적의 얇은 정도가 아니라 체험을 통해 알게 되는 생생하고도 풍성한 얇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로 돌이킬 때 얻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깊이 이끌어 가시는지 또 삶을 어떻게 풍성하게 하시는지 체험을 통해 생생히 느끼고 전인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물질로도, 그 어떤 위치로도, 그 어떤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만족과 기쁨, 안정이 바로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과 보조를 맞춰 한 길을 걸을 때 얻어진다는 겁니다.

재앙의 경고(24~31)

그런데 이런 지혜의 교훈과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 재앙을 경고합니다.

(26~28)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 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 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 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지혜의 소리를 무시한 자들은 철저한 파멸을 경험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이날은 치명적인 두려움을 줄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건, 이때 지혜를 찾아와도 더 이상 도움

의 손길을 내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비웃음으로 일관하며 무시할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29~31절에서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궤에 배부르리라.”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의 문이 닫히면 후회도, 간절함도, 부르짖음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훈계와 책망의 소리가 지금 우리의 가슴을 두드린다 느끼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그 소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교훈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소리를 즐겨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교훈을 가벼이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한다는 사실 즉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퇴보와 안일 vs. 말을 듣는 자(32~33)

이제 본문의 결론입니다.

(32~33)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퇴보는 '되돌아감'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악한 본성으로 되돌아감을 말합니다. 안일은 악한 본성 그 상태에서 그냥 편안함을 누리려는 영적 게으름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퇴보나 안일은 당장은 어떤 문제도 없어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죽음과 멸망의 종착지에 도달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소리를 듣는 자, 즉 그 지혜의 교훈을 듣고 그것을 전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자는 참된 평안과 안전함속에 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참된 안전함,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죄의 습성을 안고 사는 인생은 세상에서 자꾸 안정감을 찾으려 하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 욕심내고, 더 업적을 쌓으려 욕심내고, 더 지식을 추구하려 욕심내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 욕심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참된 안정감은 세상의 가치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오직 하나님 안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얻는 방법은 결론의 말씀처럼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오늘도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용서와 은혜를 입은 존재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다른 이에게 실천함으로, 그 속에 따라오는 주님의 평안과 안전함을 때 순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지혜를 만나지 못해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지혜의 소리를 무시하였기에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바로잡아 이제 주님을 향해 마음의 시선을 옮기게 해주시옵소서. 기회가 항상 있지 않음을 인식하고, 오직 지혜의 소리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의 소리에 스며있는 참된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게 한날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지혜를 찾아 본적이 있습니까? 지혜가 나를 에타게 찾고 있다는 사실이 주는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2.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에게 한 훈계와 경고의 말이 나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3. 돌이킬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나에게 무엇을 일깨워줍니까?
4. 하나님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이 말이 나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5. 당신은 참된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3

지혜가...지식이...

잠언 2:1~22

1 내 아들이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2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3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6 대저 여호와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7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8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9 그러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10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11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12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리라 13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14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15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16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17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18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19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20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21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22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내 아들 - 지혜를 찾는 사람(1~5)

잠언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는 이 말씀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라 했습니다. 또한 잠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와 같은 잠언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다른 왕들은 누릴 수 없는 지혜와 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와 지식의 근본으로 삼고, 살아 보니 그것보다 더 복된 삶은 없더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세상을 떠나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하였습니다.

(왕상 2:1~3)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힘을 다해서 대장부처럼 하나님의 명령인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등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다윗의 길과는 다른 길을 걸으며 타락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영적으로도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와 “네 아버지와 명령을 지키고,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솔로몬의 고백은 그렇게 살지 못한 참회의 고백이자, 절규의 호소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왕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울림이 되고, 찢림이 되는 것은 우리도 솔로몬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는 삶을 살다가 뒤를 돌아보면, 내가 왜 바보같이 그 때는 그렇게 했을 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실패와 고난의 노래인 시편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참회의 고백인 잠언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잠언은 전체가 3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2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9장과 10~31장입니다. 전반부인 1~9장은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인데, 왕궁에서 미래의 지도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모은 말씀, 즉 젊은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장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내 아들이!”입니다. 자식 같은 젊은 사람에게, 또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려는 것입니다. 후반부인 10~31장은 실제 생활에서 들어야 하는

교훈의 말씀들입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내 아들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참 따뜻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장차 지도자가 될 젊은이들을 모아 놓고 한 말이라면, 그들에게 “젊은이들!”이라고 부를 수 있고,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제군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젊은이!”라고 부를 수 있고, “너!”라고 호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상대를 굉장히 친밀하게 여기며, 깊은 마음으로 대하며, 무엇이든 전부 다 주고 싶은 대상을 부르는 것으로 들립니다.

(1) 내 아들이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받다’는 무엇인가를 취해서 자기 수중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고, ‘간직하다’는 보석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이 말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2~3)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1절이 간직해야 할 계명을 손으로 받는 것을 강조한다면,

2절은 더욱 강조하여 귀와 마음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귀가 외적인 기관이라면, 마음(심장)은 내적인 기관입니다. 그만큼 지혜와 명철은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소리를 높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는 뜻입니다. 한국 교회에 있는 신앙 유산 중에 ‘통성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단지 소리를 크게 지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성능 마이크와 초대형 스피커를 동원하면 목소리로만 지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통성기도는 그 간절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기도를 꼭 들어주시기를 간곡하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명철(통찰력, 이해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명철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4~5)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은’은 지금으로 하면 ‘돈’이고, ‘보배’는 금이나 다이아몬드와 같이 재산이 되는 ‘보석들’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돈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또 돈이 되는 일이라면 지켜야 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혜와 명철은

그럴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6~9)

그런데 지혜와 명철은 단지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6) 대저 여호와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고 하는 것도,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7~9)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정직한 사람에게 완전한(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행실이 온전한 사람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뒤집으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지혜로울 수 없고, 행실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은 방패가 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보호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과 하나님을 향한 삶은 모두가 지혜이며, 하나님 밖에서의 삶과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은 모두가 어리석음입니다. 인생이 길어질수록 수궁하는 고개를 꼬덕이게 됩니다.

정직한 길을 걸음의 복(10~22)

(10~12)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리라

‘지혜가 마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 지혜는 머리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마음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가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왕상 3:9)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머리’에 있지

않고 ‘가슴’에 있습니다. 올바른 마음, 따뜻한 마음, 분별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들이 합하여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들어오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영혼이 즐겁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식은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입니다. 사도 바울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빌립보서 3:8 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이전에 알던 모든 지식을 상대화를 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다름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신(분별력)과 명철(통찰력, 이해력)’이 우리를 악한 사람의 길과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서 건져준다고 합니다. 분별력 있는 삶과 통찰력 또는 이해력이 있는 삶은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 주고, 올바른 길을 걷게 해 주는 최고의 방패이자 지침서입니다. 또한 우리를 지켜주는 지혜의 유익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19)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는 음녀와 이방 여인에게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하니

다. ‘음녀’는 ‘미끄러지게 하는 여인’, ‘결길로 가게 하는 여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음녀’와 ‘이방 여인’은 모두 ‘이방에서 온 매춘부’를 가리키는 말로 당시의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중동의 나라들은 대부분 다신교를 섬겼습니다. 다신교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남신과 여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신들 가운데서 다산(多産)과 풍년을 기원하는 신들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에는 남녀 사제들이 있었고, 대부분 매춘을 했습니다. 당시엔 사람들이 성행위를 하면, 신들도 동일하게 행한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임신이며, 비여서, 사람들에게 출산과 풍년의 은총이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전에서 매춘은 영적인 일로 받아들여져서, 흔한 일이었고, 여사제들이 마을로 내려와 매춘을 하는 것도 종교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삶에 고개를 강하게 가로졌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고, 그의 집은 망하게 되고, 그 인생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자,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0~22)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선한 사람의 길, 의로운 사람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은 땅에 남지만, 악한 사람들과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나무뿌리가 뽑히듯이 뽑힐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과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언제나 당하기만 하고, 손해를 보기만 해서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사는 것 같고, 불의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은 고래 등 같은 기와집에 살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붙들어 주시고 심어주시며, 불의한 사람과 거짓의 사람은 뿌리가 뽑힌다는 것을 수도 없이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던 것이 당시에는 바보처럼 보이고, 손해를 본 것처럼 보여도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때의 그 삶이 우리 믿음의 뿌리를 박게 해 주었고, 선하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자신의 욕망이나 이익을 위해 살았던 것이 당시에는 달콤하게 여겨져 삼켰던 것은 후에 쓴 물로 올라오며,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고스란히 손해가 되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께 절대인 용서를 받은 우리가 매일 들어야 하는 일용할 양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31장으로 된 잠언을 매일 1장씩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머리에 있지 않고 가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용서를 베푸는 받은 사람들답게, 하나님

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마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영혼에는 하나님의 지식을 담아,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사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담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은과 보배를 찾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된 지혜와 명철의 출발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사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고, 손해를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그것보다 더 수지맞는 삶이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왕은 이렇게 주옥같은 글을 남겨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처럼 되었고, 그가 누린 영광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만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라한 영성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잠언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어가는 동안, 솔로몬의 참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확인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상을 돕는 질문

1.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하여 어떤 수고를 감당해 보셨습니까?
2.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지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3. 음녀와 이방 여인으로 대변되는 세속적 가치관의 물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건져주신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지혜와 지식을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잠언 3:1~35

1 내 아들이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2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3 인지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4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5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7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8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9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11 내 아들이야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2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13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14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15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16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17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18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

해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19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20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21 내 아들이 완전한 지혜
 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22 그리하
 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에 장식이 되리니 23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24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25 너는 갑작스러
 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26 대저 여호와와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27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28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29 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
 며 30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31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32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
 심이 있으며 33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34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35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지혜의 근원(1~10)

잠언(箴言)의 사전적인 의미는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잠언이 영어로는 ‘Proverbs(속담)’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내용은 긴 내용의 이야기이거나, 어떤 논리가 있는 글이 아니

라, 짧은 경구들의 모음입니다. 그래서 한 장의 내용이 문맥적으로 완전히 연결 되는 경우는 없고, 약간 연결이 되거나 거의 연결이 되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씩 독립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언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깨닫게 되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주시는 말씀보다는, 어느 한 구절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우리가 가는 길을 교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2) 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내 아들이’로 시작됩니다. 어떤 교훈이나,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여 줄 때에 그 대상이 자기 자녀인 것과 잘 모르는 사람일 때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에게는 더 진지하게, 더 마음을 쏟아가면서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라고 시작하는 것은 지금 전하는 내용이 꼭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소극적(부정적)으로 말한 후에, ‘명령을 지키라’고 적극적(긍정적)으로 말합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

시험을 며칠 앞두고 있는 아들이 계속해서 놀고 만 있을 때, “아들, 이제 그만 놀지!”라고 말했을 때,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있다면, 부모의 속은 더 뒤집어 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놀라고 했잖아?”라고 말하니, “그래서 가만히 있잖아요?”라고 말하면, 한숨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법을 잊지 않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장수와 평강을 더하여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에 영원에 잇대어진 삶을 살게 해 주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3~4)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는 ‘떨어지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며, ‘진리’는 ‘신실함, 견고함’입니다. 그것을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목에 맨다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의 삶에 적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회사원이 자신의 회사 신분증을 목에 걸고 다닙니다. 그래서 회사를 출입하거나, 사무실을

들어갈 때에, 잠금장치에 대면 문이 열립니다. 그가 그 건물과 방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신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목에 거는 것은 그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거기에 걸맞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새기는 것은 돌, 나무, 금속 등에 합니다. 그래야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래 위에다 무엇을 새겼다면 비록 아무리 정교하게 새겼다할지라도 파도가 치거나, 비가 내리면 이내 뭉개집니다. 하지만 돌, 나무, 금속에 새긴 것은 오래 지속됩니다. 그렇지만 새긴 것을 보려면 거기로 가야 합니다. 마음에 새긴 것은 지워지지도 않고, 가는 곳마다 자신이 새긴 것이 따라다닙니다. 그만큼 소중한게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가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 일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귀중히 여김을 받기 원하는 욕망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과장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중히 여김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깊은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받아본 사람은 그 기쁨을 압니다.

(5~6)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이해력)을 의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명철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아무리 명철이 뛰어나다할지라도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해력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가야하는 길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인생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폭이 얼마나 되는지, 길의 재질은 무엇인지, 길에 어떤 장애물과 구덩이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시며, 우리의 길보다 높은 길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도 ‘범사에’ 인정해야 합니다. 즉 좋아 보일 때는 물론이고 좋아 보이지 않을 때도 그렇습니다. 인생에 날씨가 맑을 때는 물론이고 흐릴 때도 그렇습니다. 비바람이 치거나, 눈보라가 휘날릴 때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길이, 어떤 상황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유익한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 참된 명철입니다. 또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납니다.

(9~10)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의 공경하라

그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재물’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할 만큼 힘이 셉니다. 하지만 그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소산 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한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수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거엔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여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의 내의를 사드렸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자라서 어엿한 직장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저를 길러 주신 부모님의 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혜의 가치와 지혜가 주는 것들(11~26)

(11~12) 내 아들이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니라

‘징계’는 단순한 체벌이 아닙니다. 또한 이유 없는 매질도 아닙니다. 여러 영어성경에서 징계를 ‘훈련(disciplines)’이라고 번역합니다. 그것보다 더 적절한 단어는 ‘자식 만들기’입니다. 바르지 못한 부모는 자녀를 과도하게 대하거나 방치합니다. 그러나 바른 부모는 반드시 자기 자녀를 ‘자식 만들기’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지겠습니까?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은 은(돈)을 얻는 보다 낫고,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도 낫습니다. 지혜는 돈(재물)보다 유효기간이 훨씬 깁니다. 그래서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고, 평강의 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21~24) 내 아들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에 장식되리니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랴

솔로몬은 젊은 사람에게 지혜와 근신(삼가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지켜서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생명과 목에 장식(목걸이)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자리가 두렵지 않고, 단잠을 자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삼가는 마음으로 사는지 아닌지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다 드러납니다. 처음에 굉장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미련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엔 평범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으로 증명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근신의 삶, 즉 바른 삶은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 때

문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삶을 살며, 분별력 없이 행한 사람은 후회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선한 인간관계(27~35)

27~35절은 지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합니다.

(27~28)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혜롭게 해 주시고, 근신하는 삶을 살게 해 주셨다면, 이웃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굶게 하지는 말고, 지금 줄 수 있음에도 내일 다시 오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꼭 구제가 아니어도, 우리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에, “언제 밥 한 번 먹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언제’가 ‘언제’인지를 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지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이웃을 향해 시비를 걸지도 말고, 그들을 부러워 하지도 말며, 그들의 삶을 본받지도 말라한 후에, 또 이렇게 권

면합니다.

(32~35)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패역한 사람(비뚤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입니다.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사람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유리창이 깨어져도,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날아가 깨지는 것과 돌을 던지거나 새총으로 쏘아서 깨뜨리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패역한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과 등진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등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정직한 사람 사이에는 교통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악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습니다. ‘집’은 좁게 ‘가정’이고, 넓게는 ‘가문’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의 집은 세월이 지날수록 믿음의 명가(名家)가 됩니다.

흔히 ‘거만’, ‘교만’, ‘오만’ 등 세 가지 ‘만’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크게 여기고 과대평

가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앞에서 파리 세 마리가 서로 자신이 더 크다고 우긴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무거움)을 기업으로 받지만, 미련한 사람이 영달(높은 자리에 올라감)할지라도 수치를 당한다고 합니다. 영광은 ‘모든 것의 풍부함과 존경’을 뜻하며, 미련한 사람에게 영달함이 수치가 된다고 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 했다가 자신이 죽임을 당한 하만처럼 말입니다.

모든 지혜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곳은 언제나 내 삶의 현장,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인 용서를 받은 것이 틀림없다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현장에서 상대적인 용서를 베풀며 살게 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오늘 하루도 은이나 정금보다 나은 지혜, 진주보다 귀한 지혜를 사모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며, 삶의 크고 작은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소유와 높은 자리,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아니 몇 줄이라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답게, 지혜와 근신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치는 한 날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였거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당신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2.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훈련, 자식 만들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새로워진 부분이 있습니까?
3. 지혜가 은이나 정금보다 낫고,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혜의 소중함이나 지혜의 가치 있음을 경험하신 것이 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잡언 4:1~27

1 아들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2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3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4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5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6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7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8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폄오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9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10 내 아들이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11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12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3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14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15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16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17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18 의인의 길은 돈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19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20 내 아들이야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21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22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23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4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 하라 25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피 26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27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버지의 훈계(1~9)

오늘 본문도 솔로몬 왕이 장자 지도자들이 될 젊은 사람들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1~9절은 자신이 젊은 시절에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회상하며 그 유익했던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1~2) 아들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 성경으로는 ‘아들들아’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3장이 ‘내 아들이’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5~7장도 ‘내 아들이’로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 ‘내 아들이’라고 단수로 시작하지만, 오는 본문은 ‘아들들아’로 ‘복수’로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젊은 사람들을 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이 생각이 나서 가슴이 뭉클해지

며 깊은 애정과 사명감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히브리어성경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들으라’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암송하였던 말씀,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게 되어있었던 말씀인, “들으라 이스라엘아!”로 시작되는 말씀, ‘쉐마(들으라)’라고도 불리는 신명기 6:4~9의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젊은 사람들에게 ‘선한 도리’를 전한다고 합니다. ‘도리’는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전하여 받은 지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음악작품, 문학작품, 영화 등이 후대로 계속 전해지면 그것은 ‘고전’이 됩니다. 그만큼 그 작품이 사람들에게 울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온 것이 후대로 교육이 된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래서 ‘선한 도리’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3)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솔로몬은 자신도 부모님으로부터 훈계를 받았던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아버지는 곁에 계시지 않고 자신이 아버지이며, 과거에는 유약한 외아들이었지만 어머니의 교육으로 지금은 강건하게 되었다는 의미입

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유약했다’고 고백합니다. ‘유약하다’는 ‘부드럽다’, ‘연하다’의 뜻인데, 그 뉘앙스는 부정적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던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다윗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있는 사람만 해도 20명입니다. 즉 솔로몬은 다윗의 외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어머니 밧세바에게만 해도 아들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자신을 외아들이었다고 표현함은 그만큼 자신이 유약했던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영토가 넓었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가장 조공을 많이 받았고,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가 솔로몬왕 때였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솔로몬의 모습은 결코 유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왕궁간의 결혼은 거의 정략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솔로몬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주변나라에서 솔로몬의 집안과 혼인을 하기 원했음은 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애굽과 같은 초강대국에서까지 공주를 보내어서 솔로몬의 부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자신이 유약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쉽게 납득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절대 군주들이나 거대한 제국의 왕들은 자신을 최대한 자신을 특별하게 묘사하여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자신이 신적인 존재임을 부각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위인들일수록 자신들의 자서전을 쓰며 자신의 특별함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임신했을 때, 지우기 위해서 간장을 한 사발이나 마셨는데 죽지 않았다는지, 자신을 낳고서도 키우지 않으려고 산에다 두고서 며칠 후에 다시 갔더니 그 때도 생글생글 웃고 있었다든지 등등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유약함을 드러내는 이유는 신앙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약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으니 지금처럼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강조합니다.

(4~5)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와 명철(분별력)을 잊지도 말고 어기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라고 명합니다. 즉 지혜와 명철은 망각되어서도 안 되고, 왜곡되어서도 안 되고, 유기되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혜와 명철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보호하면, 지혜와 명철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사랑하면, 지혜와 명철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지혜에 대해서 또 다시 강조합니다.

(7~9)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지혜가 제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지혜는 우리 삶에서 최고의 가치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지혜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1번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높이면, 지혜는 우리를 높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높이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결정 위에 두면, 나에게서 최고의 가치이고, 그 아래에 두면 내 생각과 계획, 결정을 돕는 보조도구입니다. 만약 내 생각, 내 계획, 내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악한 사람의 길로 다니지 말라(10~19)

10~19절에서 솔로몬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여 교훈합니다.

(10~13) 내 아들이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나라

지혜롭고 정직한 길은 우리의 걸음에 걸림이 없게 하며, 달
려가도 넘어지지 않게 해 줍니다. 그리고 훈계(말씀)를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은 세상
적으로는 결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내게 당장 이익을 주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 길은 잘 닦이지 않은 길이어서 걷기도 쉽지
않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도 아주 적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약은 길로 걸으라고 유혹하고, 자신에게 이
득이 되는 길, 자신을 드러내는 길로 가라고 부추깁니다. 그래
서 그 길은 참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 길로 가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많은 것을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
키는 길이 아니기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
을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걸었던 그것이 이미 우
리에게 큰 은총이자 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걷는 지에 대해서도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14~19)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악한 자의 길’은 ‘지혜로운 길’과 대조가 되며, ‘악인의 길’은 ‘정직한 길’과 대조가 됩니다. ‘사악한 자’와 ‘악인’은 고 의적이고 상습적인 악을 행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삶에 하나님 이 없는 불경한 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15절에 악한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 씀드리면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울리면, 물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남을 해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최고의 욕구는 식욕과 더불어 수면욕입니다. 그런데 밥은 일주일을 먹지 않아도 죽지 않지만, 잠은 일주일을 자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해치는 것을 잠자는 것 보다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먹는 불의의 떡과 강포의 술이 아무리 맛있 고, 또 잘 넘어가도 그들의 인생은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악

인의 길을 3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 어둠이고, 둘째 걸려 넘어지고, 셋째 넘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꿀통에 빠진 파리가 자기 발이 빠진 것과 날개에 꿀이 묻어서 날지도 못함에도 그 꿀맛에 취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을 지키라(20~27)

20~27절에서는 우리 신체의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21절에서는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22절에서는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고 합니다. 23절에서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합니다. 24절에서는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은 네 입술에서 멀리 하라”고 합니다. 25절에서는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고 합니다. 26-27절에서는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의 귀, 눈, 몸, 마음, 입, 다시 눈, 발 등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 삶을 다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원된 우리 몸의 기관들이 전부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23절인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서 더욱 중요합니다. 말씀 지킴의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23)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마음의 무너짐은 모든 것의 무너짐의 출발이자 완성이기에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그 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최대한 제거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눈도 지켜야 하고, 입과 귀도 지켜야 하며, 손과 발도 지켜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것을 지킴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와 최고의 방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깊이 새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도 그렇게 지키기를 원했지만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난날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마음을 지킬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용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는 한 날이 되 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젊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절규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지혜와 명철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지키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지켜주는 것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가옵니다. 바라옵나니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새김으로 세속적 가치관을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삶에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2. 지혜로운 길과 악인의 길에는 실족함이 없지만, 사악한 자의 길과 악인의 길은 어둠이며 넘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나온 삶 가운데 지혜로운 길을 걸음으로 얻은 유익이나 사악한 길을 걷다가 낭패를 당한 일이 있습니까?
3.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잠언 5:1~23

1 내 아들이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2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3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4 나중은 쑥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 같이 날카로우며 5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6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7 그런즉 아들들이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8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9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10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11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12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혼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13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14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15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16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17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18 네 샘으로 복

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19 그는 사랑스러운 암 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20 내 아들이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21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와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22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23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정결한 삶을 지키라(1~14)

오늘 본문도 솔로몬 왕이 미래에 지도자가 될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인데, 젊은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인 성에 대해서, 특히 정결한 삶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삶을 이어가는 최상의 방법으로 가정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14절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음녀의 유혹을 경계라고 권합니다.

(1~2) 내 아들이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솔로몬왕은 젊은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지혜와 명철에 마음을 두고 그것들을 얻기에 애를 쓰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내 지혜’, ‘내 명철’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나니,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던 것을 젊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 가진 것 중에 젊은 사람이 갖지 못한 장점은 인생을 살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누구나 처음 걷는 것이고, 한번 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 사람은 이미 그 길을 걸어보았으니, 아직 살지 않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큰 자산을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 경험을 무작정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이내 “꼰대”라고 불릴 것입니다. ‘꼰대’가 과거에는 ‘선생님’을 지칭하는 은어였는데, 지금은 ‘늙은이’도 지칭하는 은어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내 지혜’, ‘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경험한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되고,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기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지혜롭고 명철하지 못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중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음녀’라고 합니다.

(3-6)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썩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 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음녀’는 자기 배우자를 버리고 색욕을 따라 사는 여인과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일하는 여인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신

전에서 일하는 여자제들은 대부분 매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성행위를 하면, 신들이 보고서 따라하게 되어 그 결과로 땅에 비가 내리게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임신이 되도록 하게 해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음녀는 사람들의 출산이나 곡식의 수확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을 패망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음녀의 입에서는 처음엔 꿀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계속해서 스며 나오는 것이나 방울방울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음녀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콤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이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하는 것은 음녀의 말이 남자의 마음을 ‘혹’ 할 만큼 설득력 있게 들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말 표현으로 하면 ‘사탕발린 말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음녀의 말이 꿀처럼, 기름처럼 들리는 것은 처음만 그러합니다. 실상 그 말의 목적은 ‘썩’처럼 쓰고, 두 날가진 칼처럼 날카롭다고 합니다. ‘썩’은 국도 끓여 먹고, 떡도 해 먹는 우리나라의 썩이 아니라,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풀입니다. 그 풀이 ‘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후에 마실 물을 찾지 못하다가 찾아서 마셨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어서 그 곳을 ‘마라(쓴 것)’이라고 불렀고,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잠시 떠났던 나오미가 10년 만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나오미가 아닌가?”하고 말했지만, 나오미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음녀의 말이 그와 같다고 합니다. 결코 먹을 수 없는 말, 고통을 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음녀의 말은 ‘두 날 가진 칼 같이 날카롭다’고 합니다. ‘칼’을 뜻하는 한자말 2개는 ‘도(刀)’와 ‘검(劍)’입니다. 흔히 도는 짧고, 검은 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길이로 이름이 다르게 불리지는 않습니다. 짧은 칼에도 단도(短刀)도 있고, 단검(短劍)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와 검에는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첫째는 칼날의 숫자입니다. 도는 날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쓰는 칼을 식도(食刀)라고 하고, 과일을 깎는 칼을 과도(果刀)라고 합니다. 모두 날이 하나입니다. 반면에 검은 날이 두 개입니다. 둘째는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도는 주로 무엇을 자르거나 베는데 사용합니다. 반면에 검은 자르고 베는데도 사용하지만 더 나아가 찌르는 데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12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도가 아니라 검이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서 쪼갬다고 합니다.

음녀의 말이 무서운 것은 ‘두 날 가진 칼(검)’과 같아서 그렇게 꿀같이 달콤하고, 기름처럼 부드럽고 미끄럽던 말이 한 순간에 비수로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녀의 말을 따르는 길은 점점 죽음에 가까운 비참한 길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줄에 매달려 있는 신세여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더욱 큰 비극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음녀’를 조심하라고 해서, 남자들만 조심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음녀(淫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음남(淫男)’도 있습니다. 사탕발린 여인의 말에 남자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방법으로 여자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음녀(음남)를 멀리하고, 그 집 문 앞에서 얼씬 거리지도 말라고 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물들기 때문입니다. 기름공장에서 일을 하면 옷에 기름이 묻지 않을 수 없고, 밀가루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옷에 밀가루가 묻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음녀(음남)를 가까이 하게 되어 성적인 유혹에 빠지면 당하게 될 위험을 3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9)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존영을 잃어버리게 되고, 수한(壽限, 목숨의 길이)이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존영’은 ‘빛이 나는 것’이라는 의미인데, 명예일 수도 있고, 탁월한 장점일 수도 있고,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인 젊은 시절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성에 탐닉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최상으로 개발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탕진하게 됩니다.

(둘째, 10)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분명히 내가 모은 재산인데도 다른 사람의 배를 불리고, 다른 사람의 집에 있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배우자를 두고 외도를 했다가 자기 재산의 많은 부분을 내어 주어야 하고,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셋째, 11~14)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혼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나이가 들어서 후회를 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육체가 쇠약해지면 한탄하며 후회하다’고 합니다. 줄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폐암에 걸리거나, 매일 술을 마시던 사람이 위암, 간암에 걸리고서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을 때, 쇠약해 질 때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의 후회 막급한 삶을 ‘많은 사람이 모인 곳(절기나 집회 또는 사람들이 모인 재판의 자리를 의미)’에서 후회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정의 정결을 지키라(15~23)

15~23절에서 솔로몬은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는 최고, 최상의 방법으로 가정을 건강하고 정결하게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15~17)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량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우물’과 ‘샘’은 아내를 뜻하는 말입니다. 중동지방은 물이 아주 귀한 곳입니다. 것처럼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물과 샘의 공통점은 물이 솟아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물은 곧 생명을 뜻하는 말이기, 자기 아내를 생명과 생명력의 원천으로 삼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음녀의 특징은 꿀과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는 맛이 없는 물입니다. 하지만 음녀는 죽음으로 연결이 되고, 아내는 생명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지 말게 하고, 그 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음녀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기 아내가 집 밖으로 나가게 하여 남편이 없는 음녀처럼 살게 한다면 그 원인 제공은 남편이 한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남편이나 아내 혼자서 만들지 않고 함께 만듭니다. 남편이 남편다운 길을 가게 하는 것의 절반의 역할은 아내 몫입니다. 또한 아내가 아내다운 길을 가게 하는 것의 절반의

역할은 남편의 몫입니다.

(18~19)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고, 기쁘게 하라는 것과 당시 대표적인 복이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인데, 자녀를 많이 두어서 아내를 복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는 ‘젊은 나이에 결혼한 아내’입니다. 당시에는 10대 중후반이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하면 대부분이 젊어서 취한 아내입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는 우리말로 하면 ‘조강지처(糟糠之妻)’입니다. ‘조강’은 ‘찌꺼기와 쌀겨’인데, ‘찌꺼기’는 술을 담을 때 짜고 남은 것이고, ‘쌀겨’는 탈곡할 때에 벼 안에 있는 속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조강지처’는 찌꺼기와 쌀겨를 함께 먹은 아내라는 말로, 몹시 가난하고 천할 때에 고생을 함께 겪어 온 아내를 뜻하는 말입니다.

암사슴과 암노루는 참 아름답고, 생기발랄합니다. 아내를 것처럼 여기며 사랑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이 이어지게 하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아내도 남편을 복되게 하고, 즐겁게 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0~23) 내 아들이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와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어 그 죄의 줄에 매이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음녀(음남)와의 만남, 또 매춘에는 인격적인 교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욕과 육욕의 만남이며, 육욕과 의무의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저울질하다’, ‘무게를 달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무게를 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은 가장 어리석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인 우리의 가정이 더 건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 가야할 길이 아니라 영똥한 길을 걷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면 돌이키시기를 권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녀로 서로를 품고 사랑하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세속적 가치관이 아무리 우리에게 꿀처럼 달게 보이고, 기름처럼 부드러워 보여도, 그 끝은 써서 먹을 수 없는 썩과 같으며, 어느 순간에 비수가 되어 내게 날아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누구든지 목마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과 같이 가정이 많이 오염이 되었던 때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더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순종과 격려가 풍성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더욱 정결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처음에는 꿀과 같이 달고, 기름과 같이 부드러웠던 것이, 나중에는 썩과 같이 쓰고 비수로 다가왔던 세속적인 가치관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2. 지금 당신의 삶에서 방치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리하기를 원하시며,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3. 당신의 가족관계는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였다면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버려야 할 것이나 돌이켜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어떻게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결혼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십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정욕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며, 건강한 가족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잡언 6:1~19

1 내 아들이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2 네 입의 말로 네가 었했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3 내 아들이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4 네 눈을 잠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5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6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7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도되 8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9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10 좀더 자자, 좀더 즐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11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12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13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14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피하여 다름을 일으키는 자라 15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16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17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18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19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잠언의 첫머리(1:1~1:7)에서 잠언의 집필 목적과 주제를 언급하고 나서, 1~5장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하는 형식으로 지혜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였다면 6장은 실제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지는 내용은 10~31장에서 많이 언급하게 될 내용을 미리 설명하는 형식이면서 또한 관련 설명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19절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증에 관한 교훈, 두 번째는 계엄에 대한 교훈,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증에 관한 교훈(1~5)

(1~5) 내 아들이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이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1~5절은 첫 번째 주제인, 담보와 보증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교훈에서 남을 위하여 담보를 서거나, 보증을 섰을 경우 이에 대한 조언은 어떻게든 속히 그 보증의 의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마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새가 그물친 자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속히 보증의 의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보증을 잘못 서게 되었을 때에 내가 대신 갚아야 할 위험 부담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는 대상은 변제해 줄 돈이나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내가 그 돈을 변제해줄 능력이 충분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담보해주거나 보증해 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사람의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은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책임지지 못하는 불완전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장 자신의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증해 줄 수 있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구를 보증해주거나, 무엇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보증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너머의 일입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보증할 수도 없고 그렇기에 더더욱 남을 보증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다른 인생을 보증해줄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죄인 된 모든 인간은 아무도 다른 사람을 보증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보증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

자카에서 자신의 생명을 전부 다 내어주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보증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 인생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우리 인생을 보증해 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책임질 수 없는 인간은 다른 사람이나 재산, 재물의 보증인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보증을 서는 것은 자신의 실존을 망각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게으름에 관한 교훈(6~11)

6~11절은 게으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6~11)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출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은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을 말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하염없이 자꾸 뒤로 미루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른 동물과는 비교되지 않는 탁월한 지성과 영성을 지닌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부합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아래 살아가는 하찮은 개미를 통해서도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동물에게서라도 배워야 합니다. 개미에게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6~8)계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

개미는 여름 동안 부지런히 일하여 겨울을 준비합니다. 풍부한 양식을 모아 겨울을 대비합니다. 개미에게 있어 여름과 가을은 열심히 일하여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감독자, 통치자도 없이 부지런히 일해 겨울을 준비하는 것은 개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에 따른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할 때, 열심히 추수해야 할 때 수고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일하는 것, 노동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 주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일하는 그 땅이 아담의 죄악의 결과로 저주를 받아 열

심히 농사를 지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바뀐 것입니다(창 3:18). 아담이 농사를 짓는 땅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열매는 박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하니 그 얼마나 고되고 힘든 삶이겠습니까? 죄악의 결과로 인간이 일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죄악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았기에 열심히 일해도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박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일하게 된 것이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살후 3:10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박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롬 12:11). 이렇게 일하는 자는 박한 열매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 에덴에서 누렸던 것과 같이 예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십니다(요 10:10).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7가지 (12~19)

(12~15)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12~15절은 실제로 불량하고 악한 자의 삶의 방식을 보여

줍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 불량하고 악한 자의 삶의 방식이 바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를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6~19절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7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6~19)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를 문자 그대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섯 가지가 있고, 여호와께서 혐오하시는 것 일곱가지가 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섯가지에 , 여호와께서 혐오하시는 것으로 7가지 (앞의 여섯 가지에 하나 더 추가된 7개) 곧 예닐곱가지입니다. 총 7가지를 정리해보면, 1) 교만한 눈, 2) 거짓된 혀, 3)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4)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5) 악으로 달려가는 발, 6)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7) 형제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대부분 우리 육체로 행하는 죄입니다. 눈, 혀, 손, 마음, 발, 입으로 하는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대부분 우리의 육체를 통해 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기만 해도 우리의 죄악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이라는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여 사용하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매 순간, 우리의 육체가 죄악 된 옛 습관을 향해 움직이려 할 때마다,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존재임을 스스로 상기시키면 우리는 쉽게 죄악의 유혹에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옛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십시다. 우리의 죄악으로 향하려는 몸을, 때마다 시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주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교만해지려는 눈, 거짓으로 내 사익을 추구하려는 혀, 악한 일에 앞장서려는 발,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을 이간시키려는 혀와 입을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받는 겁니다. 그 때 마다 죄로 향하는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로 향하는 내 몸, 내 육체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실 때,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지혜자로 오늘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직 우리에게만 보증할 만한 것도 없음을, 보증 설만한 인생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예수님만 나의 보증인으로 의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달려가기 쉬운 육체를 오늘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오직 예수만 내안에 역사하시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참 지혜자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내가 누군가에게 보증을 선 일이 있다면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2. 나의 삶의 태도중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며 살아가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일에 대한 나의 관점은 성경적입니까?
3.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되는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다는 것은 매일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4.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2:20) 구절을 암송하고 유혹과 위기의 순간마다 이 구절을 내 자신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등불, 빛, 생명의 길

잠언 6:20~35

20 내 아들이야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21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22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23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24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25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26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27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28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지 아니하겠느냐 29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30 도둑이 만일 주릴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31 들키면 칠 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32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33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34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35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 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와 그 안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심정적으로 동의하지 못한다면,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이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기 어렵습니다. 잠언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잠언 전체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의 삶에는 두 개의 길이 대립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길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어리석음의 길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등불로 여기라(20~23)

잠언 기자는 자녀에 대한 조언을 계속하는데,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르라고 권면합니다(20). 말씀과 법도를 따르는 적극적인 방법의 일환으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목에 걸고 다닐 것을 명령합니다(21).

(20~21) 내 아들이야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메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겠노라 날마다 다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목에 걸고 다니기까지 하라고

말합니다. 마치 고대 중동에서 도장 역할을 하던 인장 반지를 손에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에 걸고 다니듯, 또 유대인들이 쉼마를 쓴 종이를 감아 이마에 두르고, 목에 걸고 다니듯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 외면과 내면의 준비를 다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 외면과 내면의 준비를 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며,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깨어 어디로 가든지 다닐 길을 인도할 것이며, 잘 때에도 우리를 보호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지중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깰 때에도 더불어 말벗이 되어주십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해준다는 표현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을 비춰줄 등불과 빛, 생명의 길입니다.

(23)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우리는 등불과 빛, 생명의 길로 형상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외면과 내면의 준비를 다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침없이 은혜를 주시며, 그 은혜를 받아 우리도 말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이 나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데,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기와 용기가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오늘부터 심기일전하는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음하지 말라(24~35)

성경은 잠언 5장에 이어 다시 한 번 음행을 멀리하라고 경고하며, 음녀를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불과 숯불에 비유합니다.

(27~28)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지 아니하겠느냐

음녀는 주로 이방신전에서 섬기는 창녀로, 신을 섬기는 행위로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음녀와 함께한다는 것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상대를 도구화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신전에 들어가 이방신을 섬기는 차원의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신앙마저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헤아려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결혼이라는 영역의 한계 안에서, 육체적인 만족감을 누릴 것을 강조합니다. 결혼생활 바깥에서 난잡한 삶을 즐기기도 하는 서로만 바라보겠다는 결혼의 약속을 성취하며 그 속에서 즐거움을 발견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윤리의 근간은 자기부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덕을 세우기 위해 하지 않고, 참는 것, 자기의 욕망을 부인하는 것이 기독교윤리의 가장 밑바탕입니다.

간음은 이런 점에서 기독교윤리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자기 욕구 충족이 고려해야 할 어떤 변인보다 우선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고, 하나님이 짝 지워주신 배우자를 향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비극적입니다. 순간의 만족과 말초적인 쾌락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 헌신짝처럼 내버려진다는 점은 더더욱 윤리적이지 못합니다. 게다가 욕구 충족의 상대를 인격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를 도구화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음녀와의 간음뿐만 아니라 남의 아내와의 간음도 다루는데, 특히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흔히 세상에서 말하듯이 이런 사람은 능력자도 아니고, 통 큰 사람도 아니고, 무지한 사람일 뿐입니다. 자기 영혼이 망하는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32)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영혼이 망할 뿐만 아니라 가산을 탕진하고, 한 가정을 파탄으로 내뒹니다. 31절에, 들키면 칠 배를 갚아야 할 것이라고 말

합니다.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내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망신을 당합니다.

(33)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이 사실을 안 남편이 분노한 날에는 어떤 보상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깨어졌는데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으로 그 배신감과 모멸감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순간의 유혹과 호기심이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자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성은 지극히 육체적인 듯하지만,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려는 열심, 온전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거침없이 복음을 살아내려는 열망을 지닌 사람에게서는 이런 문제를 찾기 힘듭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와 함께 이루는 가정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되기 위해 늘 은혜를 구하며, 말씀에 자신을 교정하며, 조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음행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등불로 삼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디디고, 보고, 듣고 만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한계와 말씀을 기억하여 조화로운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구분하는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지키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길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옳곧게 그 길 걸어가도록 인도해주옵소서. 음행의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말씀의 능력으로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거침없이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부모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표현을 세 가지만 찾아보세요. (23)
2. ‘불’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26~27)
3.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기 위해 성경은 21절을 권면합니다. 이처럼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 간음의 유혹에 넘어진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의 결국을 떠올려본다면, 이런 유혹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것이 너를 지켜서

잡언 7:1~27

1 내 아들이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2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3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4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5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6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 보다가 7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8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쪽으로 가는데 9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10 그 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11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12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13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14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15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16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꿶고 17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18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19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20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 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21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로 피므로 22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23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24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25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26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
 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27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는 지혜와 명철(1~5)

오늘 본문은 음행을 금하는 내용인데, 유혹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켜 줄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함과 유혹하는 여인에게
 끌려들어가는 한 젊은이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한 편의 이야기와 같아서 잠언과 같지 않고, 역사서의 한 단면
 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1)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아들아’에서는 깊은 애정이 느껴지고, ‘지키라’와 ‘간직
 하라’에서는 아주 강한 권면이 느껴집니다. 솔로몬이 비록 자신
 은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말씀을 지키지 못했
 지만, 아들 같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꼭 지
 키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키다’는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목자와 파수꾼이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양들은 맹수에게 물려죽고, 성읍 사람들은 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즉 지키는 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하게 되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간직하다’는 곡식을 곳간에 쌓아둘 때와 보석과 같은 귀중품을 보관할 때에 쓰는 말입니다. 즉 계명은 그만큼 중요하고, 값지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2)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권합니다. 인간의 신체의 각 부분은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은 몸을 유기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 줍니다. 발은 어디로든지 가게 해 줍니다. 그리고 팔(손)은 일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만약 우리 팔이 하나밖에 없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음식을 만드는 것도 불편할 것이고, 옷을 입고 벗는 것도 불편할 것입니다. 또 손이 하나밖에 없다면, 바늘을 꿰는 것과 바느질을 하는 것이 극도로 불편할 것이니, 우리들 옷을 입는 복식(服飾)문화가 전혀 다르게 발달해 왔을 것입니다. 만약 치아가 없으면 음식을

먹는 기쁨은 거의 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만약 눈이 없어 지게 되거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은 다른 신체기관을 상실했을 때보다 훨씬 더 상실감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에 아주 잘 지켜야 합니다. 특히 눈이 잘 보여야 길을 갈 때에 몸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아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 역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또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권합니다.

(3)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신명기 6장(신 6:4~9)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로 시작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암송을 하는 근거로 삼는 말씀입니다. ‘쉐마(들으라)’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신 6:8~9)”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문설주와 대문에 말씀을 담은 통을 붙여놓고 집을 나가며 들어오며 거기에 입을 맞추었는데, 그것을 ‘메추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목과 이마에도 말씀을 담은 통을 매고 다녔는데, 그것을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아예 손가락에 매라고 합니

다.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원래 새기는 것은 돌이나 금속, 나무에 새기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새긴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곳으로 가야하고, 또 세월이 지나면 새긴 것 자체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판에 새기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와 명철을 어떻게 여길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누이’처럼, ‘친족’처럼 여기라며 말씀을 인격화하고 있습니다. ‘누이’는 사랑과 보호의 대상을 의미하며, 친족은 피를 나눈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가까이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과 지혜와 명철을 그토록 열심히, 그리고 가까이, 또 친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5)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음녀와 이방 여인에서 지켜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은 진리입니다. 음녀와 이방 여인은 같은 의미로,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일하는 여사제들인데, 그들은 매춘이 종교적인 목적을 이룬다고 생각했고, 또 이방에서 온 여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미혹된 어리석은 젊은이(6~27)

6~23절까지는 한 어리석은 젊은이가 미혹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실제적인 묘사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동일한 전철(前轍)을 밟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이 이러합니다.

(6~7)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솔로몬은 자신이 직접 본 이야기를 합니다. ‘들창’은 실내에 빛이 들어오도록 만든 창입니다. 그리고 ‘살창’은 환기를 위한 창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온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도록 만든 창입니다. 솔로몬은 한 젊은이를 물끄러미 한동안 쳐다 본 것으로 보입니다.

(8~9)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한 젊은이가 들어간 곳이 사창가인지 공창가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매매춘을 하는 곳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젊은이는 ‘거리’를 지나 ‘골목’으로 갔습니다. ‘거리’는 큰 길입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고, 사람들이 가축을 몰고 와서 팔고 사는 장터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골목’의 문자적인 의미는 ‘구석진 곳’입니다. 당연히 그곳은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계다가 그 때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입니다.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젊은이가 그 때에 ‘음녀의 골목’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 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창조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퇴폐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젊은이가 날이 저물고, 황혼이 되어, 어두움이 짙어졌을 때, 그 골목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단지 날이 그러하였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떠 있어야 할 진리의 태양이 지고, 마음에 황혼이 찾아오고, 마음에 어두움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거기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둡지 않도록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의 말씀을 잘 새겨 놓아야 합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를 지켜 주기 때문입니다.

골목으로 들어간 젊은이를 맞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10~12) 그 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점점 끌려들어갑니다. 당시 일반 여인들에게는 거리로 나와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남녀칠세부동석’이라 하여, 남자와 여자는 구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여인들이 외출을 할 때에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머리부터 덮는 옷인 ‘장옷’이나 ‘쓰개치마’를 입었습니다.

젊은이를 맞은 여인은 ‘기생의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너울 같은 것으로 자신을 가리지 않고 공개적으로 남자를 유혹하기로 작정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3~14)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그 여인은 젊은이에게 입을 맞추며 본격적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녀는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갚았다’고 합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과도, 사람들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

니다. 물론 사탕발린 거짓말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면, 제물의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고, 나머지는 그 제물을 드린 예배자의 몫이 되어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여인이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도 많이 있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대에 요도 깔아 놓았고, 애굽산 이불도 펴 놓았으며, 몰약, 침향(알로에), 계피향내 나는 방향제도 뿌려 놓았으니 즐거자고 합니다. 다음 말이 몹시도 충격적입니다.

(19~22)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 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로 꾀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별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남편이 멀리 갔다고 합니다. 거리상으로도 멀리 갔다는 의미이지만, 그 여인은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疎遠)하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돈주머니도 가지고 갔고, 보름 후에나 돌아온다고 합니다. 즉 남편은 거리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그 여인을 따르는 모습이 자발적인 행동이었지만,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고, 스스로 올라미에 걸리기 위해서 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젊은이는 자신의 즐거움(쾌락)을 누린다고 생각하였을 지라도, 그것은 결국 자신을 죽이는 행

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4~27)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제’는 환기 시키는 말인데,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을 결론으로 말했겠으니, 귀를 기울여 경청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이미 마음부터 그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길로 들어갔다 죽음을 당한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아니어도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욕망이 이끄는 데로 갔다가 인생이 무너진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욕망을 따르는 길은 ‘스올(지옥)로 가는 길’이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의 방’으로 가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과거 솔로몬이 살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혹이 많습니다. 이 젊은이가 거리에서 음녀의 골목으로, 그 여인의 방으로 들어간 것은, 그의 마음과 영혼이 칠혹 같이 어두웠기 때문일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던 거침없는 은혜를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침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망각하면,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거침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의 마르투스사와 휘페레테스로 살아가시는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왕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두어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눈동자처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말씀을 가족처럼 친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또한 우리를 지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어리석은 청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를 나무라거나 손가락질을 할 수 없음은, 우리도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살 때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옵나니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 영원한 가치관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의 말씀(계명, 지혜, 명철)을 눈동자처럼 여기고, 마음판에 새기며, 가족과 친척처럼 여기라고 권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2. 어리석은 젊은이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강한 유혹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겨가고 있습니까?
3. 욕망을 따르는 길의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혹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낭패를 당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욕망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존중하며, 거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잡언 8:1~21

1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2 그가 길 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3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4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5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6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7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8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꺾어진 것이 없나니 9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10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11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12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1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꺾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14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15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16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17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18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

의도 그러하니라 19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오니라 20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21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지혜의 공개 초청(1~5)

오늘 본문은 의인화된 지혜가 인생을 향하여 간곡하게 초청하는 내용(1~5절)과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선언하는 내용(6~21절)입니다.

(1)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잠언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지혜’와 ‘명철’입니다. 하지만 지혜를 한마디로 딱 잘라서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몇 가지 말로 정리하면 이릅니다. ①지혜는 지식을 지식되게 해 주는데, 그 시작이자 과정이며 완성입니다. 즉 지혜가 없는 지식은 활용이 어렵습니다. 끈을 묶고 풀 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짐을 쌀 때에 어떻게 묶으면 잘 풀리지 않는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②지혜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종합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한 부분만 조화롭고 아름답지 않고, 전 부분이 그러합니다. 자기 배우자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사

람은 자기 자녀도 그러하고 부모와도 그러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모두 그러합니다. 그래서 진주는 보석함에 있어도 진주이고, 자갈 사이에 있어도 진주이고, 진흙이나 모래 사이에도 진주이듯이, 지혜도 어디에 있느냐 지혜입니다. ③지혜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과 하나님을 벗어나는 길을 바르게 분별하여,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어 주는 판단력과 결단력입니다. 아무리 지능지수가 높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삶은 언제나 어리석습니다.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언제나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압니다.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나님이 없는 삶은 참 끔찍하게 여겨 집니다. ④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근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명철은 분별력, 통찰력을 뜻하는 말인데, 특히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것과 하나님을 외면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 지혜와 명철을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그것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부르고, 명철은 소리를 높인다고 합니다. ‘부르다’는 말도 ‘소리를 높이다’는 뜻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소곤거리며 사람을 부르지 않고, 소리를 질러서 부른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혜와 명철이 특정한 사람만을 부르지 않고,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즉 지혜와 명철은 소수의 사람, 특정한 사람이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누구나 가져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특정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이비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모든 사람을 초대합니다.

구체적으로 지혜가 어디에서 부르는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2~3) 그가 길 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길 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녀가 길가의 높은 곳들의 꼭대기에, 길들의 장소에 서며’입니다. 즉 여성으로 의인화된 지혜가 단순히 높은 곳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높은 곳들의 꼭대기에 있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인 ‘네거리(길들의 장소)’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 있는 성문에서도, 여러 출입문에서도 외친다고 합니다. 즉 그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그 지혜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가 다양한 곳에서 큰 소리로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가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명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다시 외칩니다.

(4~5)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히브리어성경으로 4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너희를’입니다. 지혜가 부르는 대상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우리 각자 각자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여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부름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미련한 사람(7장의 음녀의 골목으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젊은이처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의 가치 선언(6~21)

6~21절은 지혜의 고유한 가치를 6가지를 제시합니다.

① 지혜의 진실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6~9)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지혜는 진실합니다. 지혜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왜곡하여 말하지도 않습니다. 지혜의 진실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또렷하게 들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튕겨나가게 됩니다.

“지금은 맞고 그 때는 틀리다”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맞지만(옳지만) 그 때는 틀린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또 그 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린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그 때도 맞고, 지금도 맞으며, 앞으로 맞을 것이 진리입니다. 지혜는 솔로몬 시대도 옳고, 예수님 시대도 옳으며, 종교개혁시대에도 옳고, 지금도 옳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옳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진실한 진리입니다.

② 지혜의 고귀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10~11)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지혜는 은이나 정금(재물)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주(최상의 보석)보다도 더 귀하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지혜는 무슨? 재산이 최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압니

다. 지혜를 따르며, 지혜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이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③ 지혜의 강직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12~13)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만나니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지혜는 명철과 지식을 가졌고, 악을 배척하는 강직함을 가졌음을 말합니다. ‘주소를 삼다’는 것은 ‘한집에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혜와 명철은 둘이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 부부와 같은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위를 경외하는 것’과 ‘악을 미워하는 것’과는 동의어라고 합니다. 1:7에서 “여호위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둘을 연결하면, “지식의 근본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악을 친구로 삼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미워합니다. 교만은 자신을 실제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것이라면, 거만은 자신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과 거만은 자기를 실제의 자기보다 크게 여깁니다. 그러한 사람의 특징이

악한 행실, 함부로 행동합니다. 또한 패역한 입, 함부로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사람은 그런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④ 지혜에게 있는 계략과 지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14~16)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계략(計略)’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꾀나 수단.’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하게 한 모세는 자신이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도망을 다닐 때에, 다윗을 완전히 잡을 수 있도록 조언한 아히도벨의 계략이 있었고, 다윗을 건지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위장 전향한 후세의 계략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혜에게 계략이 있다는 것은 국가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결정적인 지식이 있음을 뜻합니다.

⑤ 지혜의 신실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17)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혜는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사람에게 막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남녀가 사랑을 할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처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간절합니까? 또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잘 갑니까? 여자 친구를 집까지 바래다 줄 때, 버스에 내려서 그 집에 갈 때까지 1초라도 함께 있으려고, 최대한으로 천천히 걷고 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그렇게 사랑하면 만난다고 합니다. 반드시 만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쉽게 주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것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간절함’을 통해서 주시곤 하십니다.

⑥ 지혜의 유용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18~21)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꿈꾸고, 재물을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갖기를 언제나 소망합니다. 그러면서도 반듯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혜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열매는 18금이나 순금보다 좋고, 그 수확은 순은(돈)보다 낫다고 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재물을 얻어서 자기 창고를 채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요약을 하면,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과 같고, 지혜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누가 지혜를 담대하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지혜가 베푸는 거침없는 은혜를 사랑하고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다가 정말 소중한 지혜를 하찮게 여기는 삶을 살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혜를 간절히 찾고, 지혜를 사랑함으로써, 지혜가 거침없이 주는 복을 누리며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이 높은 곳에서, 사방이 뚫린 도로에서, 마을 입구 성문에서, 마을에 있는 문들마다에서 우리를 불러왔고, 지금도 부르고 있지만,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듣고, 세상이 주는 것을 더 크

게 여겨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외면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지만, 우리는 그저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혜를 참 하찮게 여겼고, 지혜가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지혜를 간절히 찾고, 지혜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흘러내려,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지혜와 명철이 거리에서 여러 문들에서 우리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2. 금이나 은보다 지혜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와 같은 체험이 있었습니까?
3. 지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지혜를 찾으며, 거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내가 창조자가 되어 즐거워하였으며

잡언 8:22~36

22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23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24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25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26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예라 27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28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29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30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31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지들을 기뻐하였느니라 32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33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34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35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36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의 선재성과 창조(22~31)

오늘 본문을 ‘지혜의 선재성(先在性)’이라 부릅니다. 즉 지혜는 천지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또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동역한 것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며, 순종하지 않을 경우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22)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 전에 나(지혜)를 가지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혜가 처음(영원전)부터 존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3)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만세 전’, ‘태초’, ‘땅이 생기기 전’이라는 의미는 ‘시간이 생기기 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은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즉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하나님의 속성인가 아니면 하나님으신 것인가?’에 대한 토론들이 있어왔는데,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더 나아가서는 2위 성자 하나님으신 그리스도로 보는 것

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3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24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혜가 영원 전부터 존재했음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24~26)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이 구절을 근거로 삼아 초대 교회 때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부인했던 일부의 무리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최고임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단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무리 뛰어난 분임을 강조해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면 그는 이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고, 또 세상에 있는 마술사들이 행한 마술을 다 합한 것을 실제로 행할 능력을 갖고 있다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하면 이단입니다.

그것은 마치 세상에 있는 수많은 파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파리가 우리에게 와서, “나는 인간에 버금가는 파리입니다.”

라고 말하며 인간을 모독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피조물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파리가 와서 자신이 가장 뛰어나다고 말한다면, 그 파리에게는 ‘파리채’가 날아갈 것입니다. 지혜가 영원 전부터 존재한 것은 물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동참했음을 말합니다.

(27~31)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지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놀라운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대표되는 몇 가지, 하늘과 궁창, 구름, 바다의 샘과 바다의 한계, 땅의 기초 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히브리사람들은 지구와 우주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사람들과 동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 ‘땅’이고, 그 땅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땅이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땅의 기둥들이 바다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산들은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하늘이 사람들 눈에 가까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눈에 보이는 곳을 첫째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떠 있을 수 있도록 거대한 금속판이 있어서 거기에 별들이 매달려 있고, 그 위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을 둘째 하늘이라 부르기도 하고, 궁창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을 넘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는 높은 파도가 치도록 하는 솟구치는 샘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지면위로 솟구치지 못하고, 바닷물이 일정 범위를 넘어 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를 견고하게 창조하셨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조하실 때에, 지혜가 그 곁에서 창조자(장인, 匠人)로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과 지혜가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있음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정말로 지혜가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혜를 간절히 찾음이 마땅하고, 금이나 은을 얻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한숨에 달려가는 것처럼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 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혜에의 순종 촉구(32~36)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2)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말 성경은 ‘아들들아 이제’로 시작하지만, 히브리어성경은 ‘이제 아들들아’로 시작됩니다. ‘이제’를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앞의 내용인 1~31절의 말씀을 다 들었으니’입니다. 1~5절에서는 지혜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높은 곳에서, 길거리에서 부르고, 마을 어귀 성문에서와 마을 안에 있는 문들에서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21절에서는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지혜의 진실함(진리됨)에 대해서, 지혜의 고귀함에 대해서, 지혜의 강직함에 대해서, 지혜에게 있는 계략과 지식에 대해서, 지혜의 신실함에 대해서, 지혜의 유용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또한 22~31절에서는 지혜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한 하나님이며, 지혜가 세상을 창조했음을 말했습니다.

정말 지혜가 그러한 것이라면 지혜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없음을. 시편 1편에서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33)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훈계’는 ‘책망’, ‘경고’, ‘교정’ 등의 의미입니다. 훈계를 들으면 지혜를 얻는 것이니 훈계를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훈계를 싫어합니다. 또 훈계를 듣는 것은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훈계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성숙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 훈계를 자기 훈련의 디딤돌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미숙한 사람일수록, 자기중심적인 사람일수록, 훈계를 자기가 가는 길에 걸림돌이라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문도 그러하고, 예술도 그러하고, 심지어 운동을 배울 때도 그러한데, 자기 실력이 좋아질수록 스승이나 코치의 훈계를 달게, 그리고 깊이 듣습니다. 운동으로 예를 들면, 골프(저는 골프를 한 번도 쳐 본 적이 없습니다.)를 처음 배우며 칠 때는 코치가 자신을 봐 주는 것을 쑥스러워하고 또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보다 좀 더 잘하게 되었을 때 코치가 봐주었으면 좋겠고,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치가 여러 가지 도움의 말을 반복해서 말해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실력이 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실력에 올라 있는 사람이나 선수들은 코치가 자신을 집중해서 봐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클럽을 휘두르는 자세는 올바른지, 각도는 적당한지, 휘두르는 속도가 맞는지 등등 자세하게 말해 주기를 원하고, 잘못된 것은 교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실력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일수록, 깊이 듣는 사람일수록, 들은 훈계를 버리지 않고 간직하는 사람일수록 성숙한 사람입니다. 또 지혜를 가까이 함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34)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문 옆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지켜보고, 문기둥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왕궁을 생각하면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있는 어전(御殿) 문 밖에는 임금의 시중을 들거나, 숙직을 돕기 위해서 내시들이 24시간 대기를 했습니다. 임금이 어느 순간에든 “밖에 누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전하! 부르셨사옵니까?”라고 응답하며 임금에게로 나아갑니다. 이처럼 지혜를 임금으로 모시고, 자신을 지혜를 모시는 신하로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5~36)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나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 되는 것은, 지혜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이유로 지혜를 잃는 사람(지혜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해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단지 더 똑똑해지고, 덜 똑똑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얻거나 잃는 문제, 자신의 전부가 달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원 전부터 존재한 지혜,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는 지혜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문 옆에서 기다려가며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지혜가 베푸는 거침없는 생명의 은혜를 중심으로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영원 전부터 존재한 지혜,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깨어 있어, 지혜가 주는 거침없는 은혜와 지혜가 인도하는 길로 거침없이 걸어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부터 존재했으며, 온 세상을 온전하게 창조한 지혜를 중심으로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필요한 것과 세상에서 나를 돋보이게 해 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새벽이나 늦은 밤을 마다하지 않고 또 원근을 가리지 않고 어디든 달려가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의미 있게, 또 가치 있게 인도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을 내는 것도 아까워하고, 길 하나 건너는 것도 귀찮아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지혜의 다스림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지혜를 품으며, 지혜가 인도하는 길을 걷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침없이 은혜를 베푸는 지혜가 오늘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혜를 처음 알고 받아들인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2. 솔로몬은 혼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당신이 혼계로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가장 크게 깨달은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3. 솔로몬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문 옆과 문설주에서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당신은 지혜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 보셨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지혜를 얻으며, 지혜가 베푸는 거침없는 은혜의 길을 걷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잠언 9:1~18

1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2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3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4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5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6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7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8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9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10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11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12 네가 만일 지혜로 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13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14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15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16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17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18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

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베푸는 잔치에로의 초청(1~12)

오늘 본문은 지혜가 초청하는 잔치와 미련한 여인(음녀)이 초청하는 잔치를 뚜렷하게 대비하여 보여줍니다. 1~12절은 지혜가 초청하는 잔치입니다.

(1)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여기에서도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도 8장에서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던 지혜처럼, 2위 하나님인, 성자 하나님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헤롯왕이 짓고 있던 성전을 보시고,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겠노라며, 만에 당신의 몸을 집(성전)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지혜가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히브리어성경으로는 ‘지혜’가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동사는 단수형입니다. 이처럼 주어가 복수형임에도 동사를 단수형으로 쓸 때의 복수를 ‘장엄복수(pluralis majestatis)’라고 합니다. ‘성전’을 주로 장엄복수로 쓰곤 합니다. 지혜를 장엄복수로 쓴 것은, 지혜의 신적 탁월함과 완전함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 인격화된 지혜가 성자 하나님을 의미한다면, 이 집은 성육신하실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것

이 됩니다.

이 집은 기둥이 7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1절은 ‘지혜의 완전성’,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준비된 잔치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2)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풍성한 잔치’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마을에서 잔치를 열 때에 돼지도 잡고 닭도 잡곤 했습니다. 지혜가 베푸는 잔치는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뜻합니다.

‘포도주를 혼합했다’는 것은 ‘기쁨의 잔치’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에 비유되곤 합니다. 시편 4:7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쁨의 시기는 추수할 때입니다. 그 해의 농사가 풍년이면 그 기쁨은 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마친 후, 추수의 기쁨을 감사하기 위해서 지킨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지혜가 잔치를 열고서 포도주를 혼합했다고 하는 것은 맛과 향을 높이기 위해서 향료를 넣었다는 의미입니다. 잔치의 기쁨을 더 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베푸는 잔치에는 풍성한 기쁨이 있음을 뜻합니다.

‘상을 갖추었다’는 것은 ‘준비된 잔치’라는 의미입니다. ‘갖

추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순서대로 놓다', '정돈하다'의 뜻입니다. 음식을 아무렇게 배열한 것이 아니라 초청된 사람에게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다는 뜻입니다. 준비하는 수고의 정도와 초대된 사람이 존중을 받는다고 생각되는 느낌은 거의 비례합니다.

잔치 준비가 끝나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3)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8장에서도 지혜가 사람들을 부를 때에 은밀한 곳에서 부르지 않고, 길 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서, 그리고 마을 어귀에 있는 성문 옆에서, 마을 안에 있는 여러 출입문에서 부르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도 성읍 높은 곳에서 부르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부르며, 그 부름의 대상에는 예외가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다'는 단어는 '외치다', '소리치다'의 뜻과 '방문하여 말하다'의 뜻입니다. 그만큼 지혜가 사람들을 간절하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부름의 내용이 이러하였습니다.

(4~6)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없고, 온갖 종류의 유혹과 미혹에 노출되어 있는 미성숙한 사람과 무지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문자적으로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표준새번역성경은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으로, 공동번역성경은 ‘속없는 사람’으로 번역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빠져 있고, 뭉가에 중독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지혜는 그들에게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합니다. ‘내 식물’과 ‘내 포도주’는 일차적으로는 잔치상에 차려진 음식을 뜻하는 것이지만, 상징적으로는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빵과 포도주가 이 세상이 전부라는 생각의 어리석음을 버리게 해 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잔치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 ‘명철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명철’은 ‘분별력’, ‘통찰력’인데, 하나님을 향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이 잔치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가 생명의 잔치를 열고서 초대할지라도 끝까지 거부하

는 거만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9)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거만한 사람에게 훈계하는 것과 악한 사람을 꾸짖는 것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사람’을 뜻하며, ‘악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악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불경건한 사람’을 뜻합니다.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였다가 자칫하면 능욕(수치, 불명예)을 당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의 상황에서 거만한 사람에게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는 더욱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며 큰 소리를 칠 것입니다. 그 때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그가 말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거나,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말해도 그가 그 가치를 결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들은 그것의 가치를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던진 그것을 발로 밟거나, 먹을 것을 주지 않은 우리를 공격할 것이

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지혜가 있는 사람을 책망하면 그가 우리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은 더욱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의로운 사람(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면 학식이 더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만한 사람, 악한 사람은 점점 더 영적인 것과 거리가 더 멀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은 점점 더 영적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실 때에 마지막에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종에게 노하시며, 그것을 5달란트를 받아 5달란트를 남겨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마 25:2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10)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근본’은 ‘시작’, ‘처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지혜의 근본이 없는 사람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전문이 넓지 못한 사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

이 근본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이 근본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함은, ‘통찰력’,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통찰력과 최고의 분별력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11~12)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가 성자 하나님이사라면, 그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날이 많아지고, 생명의 해가 더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지혜이신 성자 하나님을 거부하면 궁극적으로 해를 당하는 것도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베푸는 잔치에로의 초청(13~18)

13~18절은 미련한 여인(음녀)이 초청하는 잔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3~14)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미련한 여인’의 특징을 떠드는 것과 어리석어서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에 꼭 맞는 우리 속담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만 빈 수레가 요란하다”일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알이 잘 여문 벼’와 같다면, 미련한 여인은 ‘빈 수레’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의 대부분은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반복해서 하거나 해야 할 말을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떠드는 미련한 여인은 성읍 높은 곳에서 호객 행위를 합니다. 마치 3절에서 지혜가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외치며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것을 흉내 내고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은 악을 행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랴 말하며 호객하는 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15~17)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물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그 여인은 자기 길을 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지혜 없는 사람 등 가리지 않고 말하기를 “흠쳐서 먹는 물이 더 달고, 물

래 먹는 빵(음식)이 더 맛있다”고 유혹합니다.

5장에서 자기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로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5:15)”로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흠쳐서 먹는 물’은 음란하고도 바르지 않은 성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몰래 먹는 빵 역시 동일한 비유입니다.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응하는 더 미련한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18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18)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에게는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곳에 있으면서도 그곳이 그러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꿀통에 빠진 파리가 자신의 다리는 물론 날개에 까지 꿀이 묻어서 더 이상 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꿀맛만 다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즉 1~9장이 잠언의 첫 부분으로, 솔로몬 왕이 자신의 지난 시절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장차 나라의 지도자가 될 젊은이에게 들려준 잠언들입니다. 요약하면 ‘인생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지혜와 명철인데, 그것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과 같고, 그것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다름이 없다'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다'입니다.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잘못된 성은 인생을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고, 거기에 탐닉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혜와 명철로 세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거침 없는 은혜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거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은혜와 신묘막측한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명철을 세워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지난날을 참회하며 장래의 지도자가 될 젊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피맺힌 절규를 흘려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듣는 마음의 지혜를 얻고서도 전혀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라옵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새기고, 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과 ‘통찰력’의 명철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버리고, 세속적 가치관에 탐닉되어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고 착각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거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넓게, 깊이 경험함으로, 지혜와 명철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우리 앞에는 ‘지혜의 초청’과 ‘미련한 여인의 초청’이 항상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당신이 더 많이 응한 초청은 무엇입니까?
2.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는 이 말씀이 당신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3. 처음에는 달고 맛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는 고통과 고난으로 다가왔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미련한 여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단 한 번의 인생

잠언 10:1~32

1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2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3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주리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4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5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6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7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8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9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10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11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12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13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14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15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16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17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18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
 이니라 19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
 는 지혜가 있느니라 20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
 치가 적으니라 21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
 식이 없어 죽느니라 22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
 심을 곱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23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24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
 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25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26 게으
 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27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28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29 여
 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30 의인은 영영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
 니라 31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베임을 당할 것이니라
 32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
 라

‘솔로몬의 잠언’으로 기록된 오늘의 본문은 실제 솔로몬이 후손
 들에게 지혜를 전수할 목적으로 문서화 작업을 한 것이라기보다
 는 누군가에 의해 솔로몬의 이름으로 편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한 구조를 발견하기 어려울 만큼 비교/대조하
 는 잠언들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잠언들의 조합
 인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메시지는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

은 인과응보(因果應報)입니다. 의로운 지혜자에게는 상을, 미련한 악인에게는 벌이 주어지며, 이 모든 과정에 창조주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미련함(1~5, 8, 17, 23, 26)

모두가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다고 하여 2번 혹은 3번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게임과 같아서 수세에 몰리거나 위기에 빠지면 전원을 꺾다 켜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위고하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한 번만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리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여러 모양과 갈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잠언은 인생의 고뇌를 지나는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늘 여호와와 그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대해야 하며,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말씀위에 두는 것이 곧 인생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정답인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란 구체

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본문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잠언 1~9장까지 지혜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10장에서부터는 구체적인 지혜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모든 인류를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나누며 구분 짓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의인과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은 반드시 악인과 미련한 자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악인과 미련한 자들이 스스로 악인이나 미련한 자를 목표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 결과가 악인이며 미련한 자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나누었을까요?

본문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는 ‘때’입니다.

(4~5)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우리 주변에는 때와 시기를 놓쳐서 후회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잘 먹어야 할 시기를 놓쳐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있고, 배워야 할 때를 놓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을 놓쳐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일어서야 할 순간을 놓쳐 계속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도 손을 부지런히 놀려야 할 때가 있고 부지런히 거두어야 할 때가 있으나,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게으르거나 자고 있으면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인생의 때는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때와 시기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8)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17)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고된 노동을 하는 것과 편안히 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편안히 쉬는 것입니다. 하지만 쉼과 늘어짐을 버리고 자신을 말씀의 연단과 훈련에 두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사명을 아는 자, 고된 수련의 과정이 자신에게 약이 될 것을 아는 자, 미련함의 해악을 깨닫고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자일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 자신을 훈련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한 번 뿐인 인생을 선택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재물의 복(2, 4, 15~16, 22)

그런 선한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재물과 복입니다.

(15~16)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나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세상과 사회 현실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십니다. 의인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부유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악인이 부요해보이고 번성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향하는 자는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는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형통치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손을 부지런히 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두고 근심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에 재물로 인해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2)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결과(6, 10~14, 18~21, 31~32)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자로 살아갈 때 주의할 것은 우리의 입술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도 우리말에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말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는 악인은 자신의 입에 독을 머금고 다른 이의 약점을 들칩니다. 악을 도모하고 재물을 의지하며 자신과 다른 이들을 함께 멸망시키는 길로 나아갑니다.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검을 받는 상대는 물론이요, 검을 쓰는 자신도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반면에 의인은 상황과 환경에서 입술을 지킵니다. 바른 삶과 정직한 과정을 지키려다 핍박을 당하고, 악인들에 비해 힘 약하여 멸시를 당하지만, 그 연단과 근심의 시기가 지나면 즐겁게 장수하게 될 것이요 산성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요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거침없이 심어주신 삶의 자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29~30)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나라 의인은 영영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삶의 방식과 생각, 인생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본문은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미련한 자를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신부로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갈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금 점검하며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는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혜 없는 우리를 다툼과 미련함, 멸망과 징계 속에서 건져 올려 주사 장수하는 인생, 즐거운 삶, 끊어지지 않는 소망 안에서 입술의 지혜를 흘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듯 보이고, 정의가 힘을 잃어가는 듯 보여도 온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단 한 번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인생이 단 한번뿐이며, 실수해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드십니까?
2. 인생의 다양한 질문의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답을 구하는 자세와 태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4, 5, 8, 17)?
3. 의인의 삶을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15~16)?
4. 의인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자신의 입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입술을 지키면서 살아가봅시다.

공평한 추

잠언 11:1~31

1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2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3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4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5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굳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6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7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8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9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10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11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12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13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14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15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16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17 인자한 자는 자

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18
 악인의 샅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19 공의를 굳
 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20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
 뻘하심을 받느니라 21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22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
 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 고리 같으니라 23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
 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24 흠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5 구제를 좋아
 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
 여지리라 26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27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
 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28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
 리라 29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
 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30 의인의 열매는 생명 나무라 지혜로
 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31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
 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명령 또는 권고 형태로 기록되었
 다면, 10장부터 15장까지는 금언 또는 격언의 형태로 기록되었
 습니다. 금언 및 격언의 형태는 간결하여 의미를 전달에 있어서
 는 탁월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냉랭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따라
 서 본문을 문학적, 문맥적 관점에서 명확한 규칙을 찾아 이해하

려기 보다는 다양한 삶의 지혜들을 전한다는 큰 틀에서 이해하고 살펴보는 것이 보다 유익합니다.

11장은 10장부터 시작된 ‘솔로몬의 잠언’의 연속입니다. 특정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뒤따른다는 보응의 원리를 중심으로, 의인과 악인의 거듭된 대조를 통해 우리 삶에 강력한 교훈을 건네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본 덕목(1~3)

(1~3)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땅의 작물을 직접 수확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필요한 작물들을 필요에 따라 사고파는 거래로 이를 대신합니다. 이러한 상거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신뢰이며, 저울은 상호간의 신뢰를 높이는 주요한 도구 중의 하나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저울을 속이는 것입니다. 추를 조작하여 상품의 무게를 속이면 더 많은 이윤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눈속임

은 과거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또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을 앞둔 겨울, 평생 장사를 해 오신 가까운 지인의 제안으로 노상에서 과일(꿀)을 팔아 용돈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퇴근시간 직전에 시작했던 과일장사는 퇴근시간이 되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퇴근시간이 끝나갈 무렵 끝이 보였습니다. 5개 1천원에 팔던 과일이 8개 남았을 때였습니다. 순수했던 아니 순진했던 청년은 천원에 남은 8개를 팔아치우거나, 5개는 팔고 3개는 집으로 가져가게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장사꾼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고품을 지르셨습니다. “8개 2천원 떨어” 떨어라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은 과일은 삼시간에 팔렸습니다. 당시 순진한 청년은 이것을 지혜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울 속이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 이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교훈합니다. 지인의 치부를 드러내 보이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이었고, 이 자리에 앉은 우리는 과연 그와 다르게 살고 있는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싶습니다. 마치 습관처럼 너무나 자연스레 정직이 아닌 속임을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은 참된 지혜자는 언제 어디서나 겸손, 정직, 성실히 살아내는 사람임을 강조하면서, 악인과 의인의 대조를 반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심판 날의 모습을 중심으로 교훈합니다.

심판의 날 악인과 의인의 대조(4~8)

(4~8)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굳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재물을 쫓는 삶과 공의를 쫓는 삶의 마지막, 악한 자와 완전한 자(정직한 자)가 마주할 결과를 대조합니다. 바울은 이 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교훈 합니다.

(갈 6: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지나온 자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어서 이웃과 공동체의 모습을 중심으로 교훈합니다.

이웃에 대한 악인과 의인의 대조(9~13)

(9~13)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악인과 의인의 삶은 그의 이웃들과의 관계와 공동체에 있어서도 상반된 결과를 야기합니다. 악인은 이웃을 망하게 하고, 그의 망함에 이웃들은 기뻐합니다. 그는 이곳저곳에서 온갖 비밀을 누설하는 등 그 공동체는 이내 무너집니다. 악인은 그간 이웃이 아닌 이웃으로 공동체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이웃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그의 형통함에 함께 즐거워합니다. 가벼이 입을 놀리지 않는 그의 신중함에 공동체는 더욱 견고히 세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상반된 결과를 중심으로 교훈합니다.

결과에 대한 악인과 의인의 대조(18~23)

(18~23) 악인의 삶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 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악인의 삶은 하나님의 미움과 진노하심 가운데 사망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피할 수 없기에 더없이 허무함을 느낄 것입니다. 반면 의인의 상은 생명입니다. 더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선하다는 인정과 더불어 그의 자손까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게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구제와 자비에 대한 악인과 의인의 대조(24~31)

(24~31) 흠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 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히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분명한 결과를 얻고 싶음에도 무엇을 먼저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핑계로 주저하는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을 교훈합니다. 한파로 인해 온정이 필요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가슴 속 깊숙이 가방 속 깊숙이 넣어둔 지갑을 찢을 때, 비로소 빛 되신 예수님의 사랑의 등불은 우리의 삶이라는 기름을 태우며 밝아 오를 것입니다. 구제에 힘쓰는 의인이야말로 참된 복과 은총 가운데 변성이 예정된 참된 지혜자입니다.

반대로 의식주의 문제로 가슴앓이 하는 이웃을 보고도, 가슴 속 깊숙이 가방 속 깊숙이 넣어둔 종이 뭉치를 꺼내지 못하는 인생에게도 그에 걸맞은 보응이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삶의 지혜와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대조를 통해 교훈합니다.

평안을 누리는 법과 보응(14~17)

(14~17)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많은 자문을 받는 것과 경솔히 보증 서지 않음에 있음을 교훈하며, 자비를 베푸는 여자가 존영을 얻

고 근면한 남자가 번영을, 인자함이 사람의 영혼을 이롭게 하나, 잔인한 사람은 영혼은 고사하고 육신조차 해롭게 함을 교훈합니다. 금언을 한대 묶어 오늘까지 전해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빛을 지닌 채무자들입니다. 그 어떤 것이 십자가의 무게보다 무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채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따라 성경의 진리를 쫓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욕심에 정신이 혼미해져 사람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하나님마저 속이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함께 돌아봅시다. 끊임없이 나눠주기보다는 끊임없이 받기를 원하고, 복잡한 계산 관계 속에서 만남을 이어가며, 성령을 속이며 살지는 않았는지 잠잠히 헤아려 봅시다.

대학입학을 앞두고 경험했던 노상에서의 몇 시간으로 인해 ‘떨어’라는 말을 믿지 못하는, 아니 그 말을 하는 사람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돈을 취하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그리스도. 세상이 그 이름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 공평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웃음을 든든히 여미게 되는 이번 겨울부터는 속임이 아닌 나눔을 채워갑시다. 나눔으로 채워진 우리 삶은 참된 지혜자의 삶이 될 것이고, 의인들이 누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공의의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신랄히 대조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욕심을 삶의 중심에 심어두고는 영원한 생명과 세상의 헛된 것들이 열매 맺기를 기대했던 어리석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벼이 여기며, 세상의 작은 유익에 신뢰를 맞바꾼 채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말씀에 힘입어 십자가 사랑의 무게를 바로 헤아리며,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곳에서 시종일관 바르고 정직할 것을 결단합니다. 때마다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닌,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다듬어지게 해주십시오. 올 겨울 더 많은 이들을 돕는 구제로 아름다운 열매가 예정된 삶을 이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우리의 지난 삶은 속이는 추에 가까웠는지 공평한 추에 가까웠는지 생각해 봅시다.
2. 우리 주변의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본문을 묵상하여 봅시다.
3. 우리의 현재 삶은 의인과 악인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생각해 봅시다.
4. 의인 된 예수님의 삶을 깊이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실지 결단해 봅시다.

의인은... 악인은...

잠언 12:1~28

1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나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2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피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3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나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4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옥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5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6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나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7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8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9 비천히 여감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체하고도 음식이 핏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10 의인은 자기의 가족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11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나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12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13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14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15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16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나와 슬기로운 자

는 수욕을 참느니라 17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18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19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20 악을 꺾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21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리라 22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23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24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름을 받느니라 25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26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27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28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대조-인격, 생활태도, 재물(1~12)

잠언의 구성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1장으로 구성된 잠언은 크게 2부분, 1~9장과 10~31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9장은 솔로몬 왕이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인데, 왕궁에서 미래의 지도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모은 말씀, 즉 젊은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장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내 아들이!”입니다. 솔로몬 왕은 자식 같은 젊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

로몬은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분별하는 지혜를 받았음에도, 정작 자신의 인생은 분별하지 못하고 산 것에 대한 참회록과도 같습니다.

후반부인 10~31장은 실제 생활에서 들어야 하는 교훈의 말씀들입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후반부 중에서 10~24장까지는 솔로몬 왕과 지혜자의 말들을 모아 놓았고, 25~29장은 솔로몬이 말한 것을 히스기야왕의 신하들이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30장은 ‘아굴의 잠언집’입니다. 아굴의 잠언 가운데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 이다(30:8~9)”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장인 31장은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집인데, 여기에는 그 유명한 ‘현숙한 여인(아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0:1~22:16까지는 하나님께 지혜의 은사를 받은 솔로몬이 말한 단편경구(어록)가 375개를 모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까지는 내용이 연결이 되는데, 10장 이후로(29장까지는) 앞 절과 뒷 절이 거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매일 잠언을 1장씩 읽으라고 권하기도 하고, 부담을 주기도하고, 심지어 강요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유가 잠언이 지혜서이니까, 잠

언을 읽으면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학생들이 읽고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절 한절을 읽으면 좋지만, 1장을 읽고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목회자들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목적이려면 자녀들에게 잠언보다는 복음서를 읽게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잠언읽기나 묵상은 1장을 읽고 전체적인 내용을 맥락으로 이해하기보다 그 중에서 내 삶을 비추어주고, 내 삶에 적용할 구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시간에 잠언을 나눌 때에는 이야기로 된 역사서나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하는 선지서처럼 전체적인 맥락 중심으로 전하기보다, 깨닫게 해 주는 말씀 중심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0:1-22:16의 솔로몬이 영감을 받아서 말한 어록(단편경구) 375개 중에 64~91까지, 28개의 말씀입니다.

(1)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나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와 ‘징계’의 공통점은 듣고, 받으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당시에는 그것이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정말 싫지만(비록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그 때에

정말 필요했고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병에는 이롭고, 바른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동에는 이롭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아 장군을 살인교사(殺人敎唆)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를 훈계하고, 징계했습니다. 그 때 다윗은 왕권으로 그 사건을 무마할 수도 있고, 나단 선지자에게 사약(賜藥)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점점 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4) 어진 여인은 그 지아버의 면류관이나 옥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힘이 있는 여인’, ‘능력이 있는 여인’, ‘덕이 있는 여인’이라는 의미로,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과 같은 말입니다. 남편을 남편답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내가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는 여인들의 인권이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을 만드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라면, 지금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아내를 아내답게 만들어 주는 것도 남편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서로 돕는 때 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언행을 통해서 아내가 나타납니다. 아내의 언행을 통해서 남편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광야생활을 할 때에, 사람들의 양 떼를 도적들로부터 지켜주고, 그 대가를 받곤 했습니다. 마온의 갈멜지방에 '나발'이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다윗 일행은 그의 양 떼를 지켜주고, 사람을 보내어 그 대가를 받기를 원했지만, 그는 다윗을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 때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다량의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의 분노를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얼마 후 남편 나발이 죽자, 그녀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어진 여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세벨은 남편 아합 왕을 부추겨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나봇의 포도원도 빼앗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제들을 기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합 왕과 이세벨왕비는 파멸의 길에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세벨은 지아비의 뼈를 썩게 한 전형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로 산다면,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 되어야 하고, 남편은 아내의 면류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11)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노예생활을 하고, 광야를 지날

때에는 농사를 짓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목축이 주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땅에 정착하고서는 농업이 중요했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당시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농사를 짓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업을 운영하든, 가게를 운영하든, 회사를 다니든,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든, 가정주부로 있든, 자기 일터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일을 성실하게 하면 그들에게 먹을 것이 많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당연한 것은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헛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심은 것을 거두려고 하지 않고, 손이 수고를 하지도 않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은 주로 중독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알코올에 중독되고, 성에 중독되고, 약물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하시는 분이시지, 도박과 같은 방법으로 돈이 생기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손이 수고하여 벌려고 하지 않고 무엇인가 생기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12)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서 그리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악인은 탐하고, 의인은 결실한다고 합니다. ‘탐한다’는 것은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닌데 자기의 것으로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바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쥐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팔지 말아야 할 것을 팔고,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놓고, 내보내지 말아야 할 것을 내보내어 세상을 오염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은 전부 ‘불의의 이익’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크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의로운 사람들은 ‘결실을 한다’고 합니다. 결실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사과나 감, 배 등과 같은 유실수를 심고서 며칠, 몇 달 만에 과일을 얻으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실수에서 과일을 반드시 결실하기 위해서는 뿌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유실수의 열매 맺음은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열매를 맺는 데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보이는 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대조-언어생활(13~25)

13~28절에도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의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로 언어생활이 다름을 보여줍니다.

(13~14)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인간의 잘못된 삶을 표현할 때에, ‘죄’와 ‘허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죄와 허물 중에서 죄가 허물보다 훨씬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물은 죄라기보다도 ‘실수’ 정도로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허물의 잘못 정도는 죄와 같거나 죄보다 더 큼니다. 허물은 한계를 넘는 것, 반역하는 것, 탈선하는 것,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허물은 실수가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창조주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입술의 허물’로 인해서 그물에 걸리는 것은 사필귀정입니다. 반면에 의로운 사람이 자신의 말을 통해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도 사필귀정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의 거의 대부분이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적절하고도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무너져가는 인생을 세워주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무심코 던진

한 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비수(匕首)가 되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결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19~20)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나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나 악을 피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거짓은 그 효력이 잠시이고, 진실은 영원이라고 합니다. 신문, 방송에서 어떤 일이나 사건을 두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소위 ‘진실게임’을 합니다. 만약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한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사실이 있어도, 한 가지 만이라도 거짓으로 판명되면, 진실처럼 보이는 일이 거짓이 됩니다. 또 어떤 거짓말이 사실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의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거짓을 말하는 것이 2가지, 3가지로 늘어나면, 그것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6가지, 9가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악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습니다. 자기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속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자신도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서는 평화로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주는 선물입니다.

(24)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27)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행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전에 어떤 교우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것은 손이고, 가장 게으른 것은 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그 말은 성경에 써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되고, 게으른 사람이 부림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법칙입니다.

악한 사람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끝까지 유혹하는 마귀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 자기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의 다스림을 받아 시험에 들게 됩니다. 반면에 의로운 사람이 의롭게 사는 것은, 유혹하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며, 자기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의 다스림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자기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다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목적 삼고 나아감으로, 오늘

우리의 길이 지혜로운 사람의 길, 의로운 사람의 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앞에 지혜로운 사람의 길과 어리석은 사람의
길이 펼쳐져 있으며, 의로운 사람의 길과 악한 사람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목전의 이익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
며, 자기 욕망을 따라가다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판명되어 후회하는 인
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
원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다가, 우리를 유혹하거 넘어뜨리는 존재에 놀아나
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있는 곳이 작은 하나님
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당신의 삶과 신앙에 ‘훈계’와 ‘징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었으며, 어떤 유익을 주었습니까?
2. 어진 여인은 자기 지아비에게 면류관이듯이, 지아비는 자신의 아내에게 그러합니다. 당신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3.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서는 어떤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십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잡언 13:1~25

1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2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궤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3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4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5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6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7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 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8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험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9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10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11 망령되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12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13 말쑥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14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15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16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17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18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19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20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21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22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23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24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25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주리느니라

악인과 의인-그들의 말 그리고 재물과 성공(1~13)

오늘 본문은 10:1~22:16까지에 있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은사로 말한 단편경구(어록) 375개 중에, 92~116번째까지 25개입니다. 오늘 본문도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보여 주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재물에 관해서도 지혜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 (1)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 (10)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 (13)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로운 사람과 거만한 사람의 차이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들어야 할 말을 듣는 사람이고, 거만한 사람은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들어라’입니다. 그것은 ‘청력’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순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수도 없이 강조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말을 듣고, 우상의 말을 듣지 말라”입니다. 오래전에 유행했던 책 중에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듣는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이자, 제사장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들어야 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이스라엘을 언약궤가 없는 사회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수십 년 후에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까지 예루살렘에는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들어야 할 하나님의 훈계를 듣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2~3)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락을 누리거나 마음이 궤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별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복록’은 ‘좋은 것’입니다. 말을 잘(지혜롭게)해서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 속사람이 불성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헤치려고만 한다고 합니다.

또 입을 지키는 사람(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생명을 지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할 줄을 알고,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서 파수꾼이 성문을 닫고 성을 지키듯 철저히 입을 닫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능력을 지녀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홍수가 나면, 온 사방이 물천지임에도 마실 물이 없어서 아우성인 것처럼, 오늘날은 말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방송에서도 과거에는 진행자가 1명, 아니면 2명이었는데, 지금은 진행자도 여러 명이고, 게스트도 여러 명입니다. 서로 말하기 경쟁하듯이 말을 하여, 참 소란스럽습니다. 진행자 1명에, 초대 손님 1명이 하는 집중적인 대담 프로그램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크게 벌리는 사람’은 자신을 망하게 한다고 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은 느낌 그대로, 과장된 말과 무책임한 말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 손가락 3개는 자신을 향하듯이, 자기가 내 뱉은 말이 비수가 되어서 자기를 향해서 날아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던 말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4)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연금술사>에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그 수준에 이른 것과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마치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간절히 품는 것과 좋은 성적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동의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촌음(寸陰)을 아껴가며 공부함’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합니다.

공부를 덜 잘하는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하는 아이보다 공부에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덜 잘하는 아이는 시험을 앞두고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하면서도 ‘컴퓨터 게임 30분 하고 새마음으로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TV 프로를 보고서, 잠을 한 시간 줄여서 공부하면 되겠다’ 등등 공부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부는 안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더 잘하는 아이는 놀고 싶은 마음,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당장 코 앞이라서 책상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데까지가 우리 수준입니다.

(8)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헐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앞부분은 “부유한 사람은 재물로 자기 목숨을 속하기도 하지만”이나 “재물로는 자기 목숨을 살릴 수도 있지만”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보석금을 내고 구금 중에 있다가 벗어날 수도 있고, 납치를 당했을 때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건넬 수도 있습니다. 또 중병에 걸렸을 때, 재물이 많으면, 최고의 병원과 최고의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재물이 생명을 구하는 요긴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의 하반 절이 “가난하면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고 합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이 따로 노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재산이 많으면 협박 받을 일이 많지만, 재산이 없으면 위협을 받을 일이 없다”고 해석하곤 합니다. 즉 재산이 많다고 교만하지 말고,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11) 망령되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우리나라에도 한 때, 로또복권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통해서 ‘인생역전’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꿈을 깨고 나면 ‘인생여전’만 남아 있습니다. 망령되어 (쉽게, 부정하게) 얻은 재물은 줄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돈이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신문에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70%가 3년

이내에 파산한다는 것이 통계입니다.

재산이 늘어가는 것은 ‘생긴 재물’에 의해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손으로 일을 해서 번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12)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장군으로 베트남전쟁에서 포로로 잡혀 모진 고문과 고초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이 분이 포로수용소에서 생활해 보니, 가장 많이 죽어 나가는 사람이 ‘낙관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나갈 수 있겠지?”라고 막연한 희망을 가졌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활절에는 나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수감사절에는 나갈 수 있겠지”라고 계속 희망만 품다가 큰 절기가 지나면,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이 죽어나가곤 했습니다. 그런 낙관적인 희망 속에서만 살다가 죽어가는 현상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막연한 희망 속에서 사는 것보다, 희망을 갖지만 현실 속에서 사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2개의 눈을 가지고, 한 눈으로는 미래의 희망을 보고, 또 한눈으로는 냉혹한 현실을 보는 사람이 건강하고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보응(14~25)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14~15)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일에 정통하면서도 능통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막건축에 정통한 사람’, ‘배를 운행하는데 정통한 사람’, ‘직물을 짜는데 뛰어난 사람’, 심지어 ‘꼭히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오늘날로 하면, ‘전문가’입니다. 아니면 ‘생활의 달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교훈이 ‘생명의 샘’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야이든 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남다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 곁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깊은 우물이나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 올린 물과 같아서 내가 가야 할 길에 이정표를 보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소생하게 합니다. 반면에 사악한 사람의 길이 험한 것은 자기 욕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16)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20)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이성)을 따라서 행하지만, 미련한 사람에게는 자기 미련함(고집,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지식(이성)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이 틀렸을 때에 사과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을 앞장서서 가는 것은 그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도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해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주와 같이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붉어지고, 떡과 같이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검어집니다.

(24) 매를 야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심히 징계하느니라

많은 가정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매질을 많이 했습니다. 자녀에게 매를 야끼는 것은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매질을 했더니, 자녀가 그 부모를 미워합니다.

자녀에게 매를 야끼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해도 무작정 때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매질을 하는 것은 고통 가운데서 하는 것이지, 무작정 때리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분풀

이요, 부모가 자기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는 말씀과 함께,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엡 6:4)”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유가 없는 매질, 과도한 매질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징계할 때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무작정 매질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자녀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잠언에는 반복해서 악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성취하려고 하며, 세속적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언제나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나 세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시험이 다가와도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악한 사람의 길과 미련한 사람의 길도 있고, 의로운 사람의 길과 지혜로운 사람의 길도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여 걷든 그 결과도 우리 앞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의로운 길과 지혜로운 길을 걸음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의로운 사람의 길과 악한 사람의 길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틀림없이 의롭게 된 존재임에도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으로 돌아가 의로운 사람의 빛은 환하게 빛나지만, 악한 사람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로운 삶을 구하며,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나를 좀 더 돋보이게 하는 것, 내 생각에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을 따라서 살 때도 적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따르는 길이 내게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준다고 해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미련함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게 아무런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면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온갖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 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의로운 사람의 길,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걷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훈계와 권면, 꾸지람 등 아픈 말이지만 그 말을 들으므로, 삶이 바뀌거나 생각이 바뀌어 유익한 결론을 맺은 적이 있습니까?
반대의 경우, 들어야 할 훈계와 권면, 꾸지람을 듣지 않았다가 낭패를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2. “망령되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의 말씀을 대하며,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망령되어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손으로 만든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3.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로워지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경험이 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의로운 삶과 지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잠언 14:1~35

1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2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3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4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5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6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7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8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9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10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11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12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13 옷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14 마음이 굵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15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16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17 노하기를 속

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피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18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19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20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21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22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23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24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25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26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2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28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29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30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31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32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33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34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35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과 거만한 사람 그리고 마음에 대하여(1~14)

오늘 본문은 10:1-22:16까지에 있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은사로 말한 단편경구(어록) 375개 중에, 117-151번째까지 35개입니다. 오늘 본문도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의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삶에 필요한 깨우침의 말들을 들려 줍니다.

(1)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집을 세운다’는 의미는 가정을 화목하고 평안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과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의 문자적인 의미는 ‘여인들의 지혜들’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여인’의 문자적인 의미도 ‘미련함’입니다. 솔로몬은 집안을 일으키는 주체를 그 여인들 자신이 아니라 여인들이 가진 지혜라고 표현함으로, 어떤 여인에게 지혜가 있으면 집안을 일으키고, 미련함이 있으면 집안을 무너뜨리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남자와 여자의 인권이 평등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은 거의 다 남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수동적으로 반응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왕은 단호하게 집안의 흥망은 남자들의 지혜와 미련함에 달려 있지 않고, 여인들의 지혜와 미련함에 달려 있다

고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많은 아내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에게는 첩 300명을 제외하고도 왕비(후궁)가 700명이나 있었습니다. 솔로몬왕은 그 아내들 중에서 어떤 여인들은 자기 집을 잘 세워가고, 어떤 여인들은 집을 허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혜의 중요함은 솔로몬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좋은 학교를 졸업했다는 의미가 아니다)이면 최상의 남편감, 아내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결혼정보 업체에서 다루는 조건에서 '지혜'라는 항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지혜는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빼어난 외모나 많은 봉급을 받는 직장보다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 있는 항목입니다.

(4)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말씀은 정직한 사람이 가져야 할 노동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소로 농사를 짓는 사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거기에 따른 희생과 어려움은 감수해야 함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소가 없기에 소를 돌보지 않아도 되고, 소에게 여물을 줄 일도 없고, 소의 배설물도 청소할 필요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사람이

소만큼 힘을 쓸 수 없기에 그만큼 수확물의 양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확을 원한다면 반드시 소를 키워야 하고, 소를 키우려면 소의 건강상태도 돌아보아야 하고, 소에게 여물을 준비해서 주어야 하고, 구유도 청소를 자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가 편안함을 느끼고 더 많은 힘을 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근면하지 못한 사람은 가난을 면할 수 없고, 근면한 사람이 부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고가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no pain, no gain)”이라는 말도 있고,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7)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라

‘미련한 자’는 ‘바보’,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는데, 정신연령이 낮고, 뭔가 모자라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둔하고 성격적으로 완고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늘 패역한 성품으로 어그러진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기준은 언제나 자신의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즉 미련한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그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그 가치관에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사실은 미련한 사람에게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글을 모르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은 많은 공부를 했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지식이 없습니다. 또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9)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심상(尋常)하다’는 ‘대수롭지 않고 예사롭다’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미련한 자, 하나님이 없어서 패역한 삶을 사는 사람’은 죄를 심상하게(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은혜가 없고,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은 죄를 심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은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노아시대에 사람들은 다 죄를 심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삶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죄를 심상하지 않게 여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심상하지 않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10)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인간이 굉장히 뛰어난 존재인 것 같아도 인간은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의 일은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남의 염병이 내 고뿔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장티푸스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는데, 자신은 머리가 살짝 아픈 것과 콧물 흘리는 것을 더 크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 나는 몹시 즐거워하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을 찾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2)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망의 길임에도 사람이 그것을 바른 길로 본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보기에 바른 것’과 ‘실제로 바른 것’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부자로 보이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부자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행복한 것처럼 보였는데 행복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잘 살고(삶을 잘 꾸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웃는 게 웃는 것이 아닌 사람도 많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바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언제나 바릅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 그리고 악인과 의인(15-25)

(15)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고 합니다. 즉 어리석은 사람은 ‘팔랑귀’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행동이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말뚝귀’를 가진 것과 같아서 자기 행동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17)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함과 어리석은 일을 행함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리는 결정이 결코 현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때에 결정을 하게 되면,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후회하게 됩니다.

특히 노함을 ‘속히’하게 되면 더욱 그러합니다. 감정이 아주 격해지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아마 감옥에 갇힌 사람 가운데 다수가 감정이 격해 있을 때에 스스로의 행동을 제어 못하고, 감정을 따라서 행동했다고, 정작 자신의 몸이 제어를 당하게 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라고 합니다. 화가 나고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악한 계교를 피하는 사람(교활한 사람)은 반드시 미움을 받습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사람들에게’입니다. 사람들에게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입니다.

(23)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표준새번역성경에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는 법이지만, 말이 많으면 가난해질 뿐이다.”라고 합니다. 일을 입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손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것이 눈이고, 부지런한 것이 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서 그 기체에 놀려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못할 것 같다”, “힘들 것 같다”고 입으로만 말하고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가난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세상의 일 중에서 할 줄 모르는 일은 능력이 없기 때문보다, 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 훨씬 더 많습니다.

피난처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대조(26~35)

(28)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지금도 인구수가 많음이 국력의 강해지는 것과 연결이 될 때가 많습니다. 고대에는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백성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당시에 전쟁은 혼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면 적국의 사람들을 끌고 와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크게 증가되곤 했습니다. 반대로 패전을 하게 되면 자국민이 적국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인구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민심이 점점 이반될 것이고, 그 왕은 왕위에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인구의 늘어남과 줄어듦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출산이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어 평안하면 사람들이 많은 출산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나라가 불안정하게 되면, 사람들도 동일하게 불안하여 임신이 어렵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아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그 세례식이 세례를 받는 유아와 그 가족에게 복이 됨은 물론 교회적으로도 큰 복입니다. 교회가 평안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34)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공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나라를 나라 되게 하고, 국격을 높이는 것이 국가의 높은 경제력이나 막강한 군사력, 다양한 문화 창달에 있지 않고, 신

양적이고 영적인 삶에 있다고 말합니다. 또 백성(민족)을 욕되게 하는 것도 국가가 파산을 하거나, 군사력이 형편없어지거나, 문화가 빈약해 지는 것에 있지 않고, 영적인 문제,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른 신앙과 바르지 못한 신앙은 국가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잠언의 내용은 반복이 많습니다. 같은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이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가 늘 동일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연륜이 깊어질수록,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마음상태와 성숙도가 달라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더 성숙해 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길이 아니라 지혜롭고, 즐거운 길을 걸음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미련한 사람의 길과 거만한 사람의 길, 어리석은 사람의 길도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길과 명철한 사람의 길, 즐거운 사람의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걷는 길이 사람들에게 바르게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

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순간이라도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의 소리나, 세속적인 가치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목적 삼고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다가, 미련하고 거만하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있는 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여인의 지혜는 집을 세우고, 미련은 집을 허문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집을 더 잘 세우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요?
2. 사람에게에는 바르게 보일지라도 사망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삶에 보이는 모습과 실제의 모습이 다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3.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고 있습니까? 좀 더
새롭게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유순한 대답은

잠언 15:1~33

1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2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3 여호와와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4 온순한 혀는 곧 생명 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5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6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7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8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9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10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11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12 거만한 자는 견책을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13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4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15 고난 받는 자는 그 날마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16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은니라 17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8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19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20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업신여기느니라 21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22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23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24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25 여호와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26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27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28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29 여호와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30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31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32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3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의인과 악인의 언어, 결과(1~11)

오늘 본문은 10:1~22:16까지에 있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은사로 말한 단편경구(어록) 375개 중에, 152~184 번째까지 33개입니다. 10:1~22:16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10~15장과 16~22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인 10~15장의 형식은 서로 반의대구법을 사용하여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우

매자의 삶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반면에 후반부인 16~22장은 서로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고, 재강조하는 종합대구법과 동의대구법을 사용하여 지혜로운 삶과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로 반의대구법을 사용하는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내용 중에 언어생활에 관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은 그 표현이 변화무쌍해서 말하는 모습을 조금만 바꾸어도 그 뜻이 정반대가 되기도 하고, 같은 말을 해도 어떤 표정이나 몸짓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의 말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말의 내용의 중요성은 10%가 넘지 않고 나머지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표정, 몸짓, 음색, 말의 고저 등등이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면서도 어렵습니다.

또한 잠언에 언어에 관한 것이 반복되어 나오는 이유는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그 말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는 대로

말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유순하다’는 ‘부드럽다’, ‘상냥하다’, ‘온화하다’라는 의미이고, ‘분노’는 ‘뜨겁게 달아오르다’, ‘불타다’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고 ‘쉬게 하다’는 ‘돌이키다’, ‘되돌리다’, ‘떠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불같은 분노로 과격해진 상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화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같이 화를 내다가, 상대가 아주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내가 이러면 안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는 것을 그치는 것입니다. 나발의 아내 아버가일이 유순한 말로 다윗의 마음을 되돌린 적이 있습니다.

‘과격하다’는 ‘불쾌하게 하다’, ‘비틀고 왜곡하다’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과격한 말’은 단순히 거칠고 험한 말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내어 고통을 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으로 위기를 넘긴 좋은 예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인으로 미디안 연합군 13만5천 명 중에서 12만 명을 물리쳤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때에 에브라임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을 끼워주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지만, 기드온은 “이번에 내가 한 일이 여러분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포도(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의 말물포도(추수한 포도) 전부 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미

디안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엱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여러분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라고 말했다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노여움이 풀어졌습니다.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쉬게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미련한 사람의 말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4)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7)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2)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베풀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잔치와 같은)일을 차리어 벌이다’와 ‘남에게 돈을 주거나 일을 도와주어서 혜택을 받게 하다’의 뜻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잔치나 돈 대신에 지식을 나누어준다고 합니다.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적합하고 알맞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준다”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고 합니다. ‘쏟다’의 뜻은 ‘끓어오르다’, ‘소동을 일으켜 혼란하게 하다’입니다. 국을 끓일 때에 한 순간 방심하면 냄비나 솥에서 끓어 넘치는 모

습이 연상됩니다. 또 콜라를 있는 힘을 다해 흔든 후에 뚜껑을 갑자기 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내용물이 밖으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처럼 미련한 사람이 ‘콜라병과 같은 자신의 입’을 벌리자마자 그 입 속에서 ‘미련함의 콜라’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말이 자신에게 울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온순한 혀가 자신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대조해서 말합니다.

(6)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9)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또 8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8)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당시에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집에서부터 성전까지 끌고 가든지,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사서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고가 있어야 했고,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기도는 몸만 가서 손을 모으면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의 제사

는 미워하시고, 정직한 사람의 기도만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을 받지 않으셨고, ‘정직한 사람’을 받으셨습니다. 즉 제사와 기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것을 드리는 사람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예배)를 드릴 것인가, 기도를 드릴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명철과 평안, 삶의 지혜(12~22)

(13)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얼굴’의 옛 말은 ‘얼골’이고, ‘얼골’은 ‘얼꼴’에서 왔다고 합니다. ‘얼꼴, 얼의 꼴’, 즉 ‘영혼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영혼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기관이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견과 같은 짐승의 얼굴에도 그것이 좋아하고 있는지, 싫어하는지, 두려워하는지 등등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은 화장이나 액세서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고운 마음이 고운

얼굴을 만들고, 환한 마음이 환한 얼굴을 만듭니다.

재물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16~17)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들은 16절,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로또복권 1등 당첨이 되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도 몇 번 1등이 나오지 않아 상금이 많이 쌓인 당첨을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30년 전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책과 영화가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행복은 부자순이 아니잖아요”도 인정해야 합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서와도 같습니다.

또 사랑하며 먹는 채식이 미워하며 먹는 쇠고기 보다 낫다고 합니다. 이것은 채식이 육식보다 좋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넉넉하지 못한 살림을 뜻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살이 찌서 나온 배를 ‘사장님 배’라고 부르며,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에 들었던 말 가운데, “여자는 태어나서 시집갈 때까지, 쌀 두 말을 먹는다”도 있습니다. 참 빈한한 삶을 살았습니다.

‘살진 소를 먹는다’는 아주 부유한 삶을 뜻하는 말입니다.

과거에 마을에서 잔치를 하면, 돼지를 잡았지 소를 잡지 않았습
니다. 소는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며 먹는 채
식이 미워하며 먹는 쇠고기 보다 낫다”는 말에 동의가 됩십니
까?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때였습니다.

솔로몬은 재위 중에 하루 식사 분량으로 식물을 제외하고,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들 소만 30마리이고, 양
이 100마리였습니다. 그 외 다른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
람들이 잘 먹지 못하는 것들을 왕궁 안에서 먹으면서도 싸우더
라는 것입니다.

(22)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력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우리말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계획은 무산되지만 조언자가 많으면 그 일은 성공한다.” 혼자보
다는 여럿이 훨씬 낫습니다. 신앙에는 ‘자수성가(自手成家)’가
없습니다. 자기 손으로만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
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젖을 먹이고, 귀저기를 갈아주고, 잠
을 재워준 부모님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이 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의 신앙의 위인들과 지금까지 이 땅
을 살아온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누군가가 도왔기 때문
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게 된 것은 ‘자수(自手), 자기손’
때문이 아니라 ‘신수(神水), 하나님의 손’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

입니다.

지혜자의 삶, 훈계애의 순종(23~33)

(25) 여호와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충분히 스스로 꾸려 갈 수 있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신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집을 허무신다고 한다.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자신의 인생인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절감하고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지계를 정해주신다고 합니다. 당시에 여인들은 참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더구나 과부는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재산을 잠식하여 빈털터리로 만드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지계를 이동하여 과부의 땅을 도둑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증거 합니다.

(33)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지혜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존귀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지혜는 배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훈계를 베푸는 스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롭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어리석은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길을 걷는 사람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길을 걷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유순한 말로 분노를 떨어뜨리며, 마음을 즐겁게 함으로 얼굴빛을 환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유순한 대답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과격한 말을 하여서 노를 격동 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온순한 대답을 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기쁘시게 할까, 기도를 드려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기보다, 우리가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움켜쥐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달리기보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살진 소를 먹으면서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삶을 살기보다 채소를 먹으면서도 사랑하며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가 어떤 시험을 걸어올지라도 이겨, 날마다 성숙해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유순한 말로 분노를 쉬게 하거나, 과격할 말로 노를 격동하게 한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2.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 거울을 통해서 당신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고, 그 얼굴에 격려의 말을 해 봅시다.
3.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정리해 봅시다.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잠언 16:1~33

1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2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3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4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5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6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7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8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오니라
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0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을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11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12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13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14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15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16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

보다 얼마나 나으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17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18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9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
 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20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라 21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22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
 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23 지혜
 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
 하느니라 24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
 라 25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26 고되
 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
 촉함이니라 27 불량한 자는 악을 피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28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
 간하느니라 29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피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
 느니라 30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31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
 으리라 32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
 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33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간절한 부름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묵직한 종교적 거룩함이
 회중과 공간을 압도합니다. 회개의 눈물로 저마다 눈시울이 축
 촉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칩니다. 벽찬 기대감의 발걸음

들, 환희의 찬양 소리, 절박한 기도들, 지극한 정성과 진심어린 그리고 경건한 몸짓들. 이는 어느 곳의 상황 묘사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고 경건하고 은혜로 가득한 성전에서, 느닷없이, 정말 느닷없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그들의 탁자와 의자를 둘러엮습니다. 노여움으로 이렇게 나무라셨습니다. "내 이놈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그런데 너희는 지금 도대체 뭐들 하느냐? 내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마21:13)

질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들은, 또 대제사장은, 그리고 수많은 레위인들, 성전 봉사자들은 단 한번이라도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한 번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볼까?' 그렇게 모의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다고 여기고, 하나님께만 충성한다고 믿고, 조금도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추호도 의심 없이, 거룩한 사명으로 여기고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강도의 소굴'을 만든 꼴이 됐습니다. 어찌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결정을 사람을 해서 그렇습니다. 결정을 자기들 스스로 합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일념으로 결정하지만, 결국은 자기(自己) 이기(利己)의 결정입니다. 그러기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의 결탁은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야합(野合) 이었습니다. '강도의 소굴' 맞습니다. 그런데 이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사람의 결정은 더러운 이기(利己)로 가득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속마음입니다. 본문 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2)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새번역)

깨끗한 척 하지만, 남들은 깨끗하다 하지만, 속 모르는 사람은 그 겉모양의 깨끗함에 놀라지만, 속마음은 아닙니다. 사람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면, 악과 이기가 득실합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사람 마음이 '악의 소굴'입니다. 사람 마음이 '죄의 소굴' 맞습니다. 그 '악과 죄의 소굴'인 그 속마음에서 나온 사람의 결정은 뻔합니다. 기껏 열심을 부려도 '강도의 소굴'을 만들 뿐입니다. 사람 마음의 결정은 모두가 죄라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어찌해야합니까? 본문 1절과 마지막 절인 33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새번역)

(33)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새번역)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제비는 사람이 뽑을지라도, 그

결정은 주님께서 하심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십니다.

(3)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새번역)

내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유혹과 욕망을 끊어내고, 내 속마음인 '악의 소굴'의 자리에서 '내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 악한 결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 그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고, 그 '악'을 끄집어내어 주님께 던지고, 또 내던지고, 또 굽어 모아 내버리고, 또 도려내고 잘라내어 내동맹이치며 "결정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고백 앞에 잠잠히 머무십니다. "내 스스로의 결정은 '악'입니다. '죄'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결정하심을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오랏수록 좋습니다.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더 긴 여유를 갖고, 더 긴 호흡으로 그 분 앞에 엎드려 맡기고, 던지고, "주님의 결정하심에 저는 아멘입니다"의 고백으로 나아가십니다. 잠잠히, 천천히, 주님의 허락하심이 내게 가장 최선임을 신뢰할 때까지 좀 더 멈춰서야 합니다. 주님의 결정하심이 비록 시험의 상황이라 여겨질지라도, 그것 또한 주님의 결정이며 인도하심임을 신뢰하면서 말입니다.

조금 느리게 가도 됩니다. 잠시 멈춰서도 됩니다. 좀 더 머물러 있어도 됩니다. 안 망합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체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오히려 파멸은 멈춤지 않음에 있습니다. 멈춤 없는 조금한 질주에 문제가 야기됩니다. 지난친 자

기 열심이 일을 그릇칩니다. 어느 곳이든 분란의 상황을 보십시오. 원인은 다 자기 결정과 판단이 옳다는 고집에 있습니다.

내 결정에 대한 브레이크! 자발적인 브레이크! 멈춤! 말김! 그리고 기다림!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 보이는 결정일지라도(2절), 브레이크! 자기 보기에는 바르다고 여길지라도(25절), 브레이크! 내 스스로는 지혜로 여기는 그 결정일지라도, 브레이크! 계획을 세울 능력이 내게 있을지라도(1절), 그럼에도 브레이크! 제비를 뽑을 힘이 있지만(33절), 그럼에도 브레이크!

(25) 사람의 눈에는 바른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새번역)

오늘 우리에게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결정과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판단과 결정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뿐이다. 죄박에 없다.'라는 본질적 자각 앞에서 겸허히 무릎을 꿇고 내 결정을 유보하고 하나님께 내맡기는 것, 그렇게 브레이크! 그것이 우리 신앙의 뭉입입니다. 목사라고 옳은 판단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장로 권사라고 더 나은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 연수가 판단과 결정의 질을 높이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위험이 클 뿐입니다. 도리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장본인이 될 수 있는 두려운 자리입니다.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누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교회가 철학이 되고 제도가 되고 문화가 되고, 기업, 그리고 대기업이 되어가는 동안 도대체 그 안에 있던 수많은 구성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정신없는 질주만 있었습니다. 결정 할 수 있는 힘들의 향연만 있었을 뿐, 멈춤도 없고, 여백도 없고, 말김도 없고, 던짐도 없이, 그저 자기 결정과 판단의 과속만 있었던 것입니다.

교우님, 제발. 브레이크! 지금 잠시 멈추십시오. 내 결정의 부정함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마음으로 계획하지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제비를 뽑으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교우님,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비록 하나님의 결정이 더디다 여겨질지라도, 때로는 '이건 시험 아니야?' 하는 의심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분별이 힘겨울지라도, 그래서 애가타고 답답할지라도, 그럼에도 내 결정의 악함과 죄악을 인정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의 결정하심 앞에 멈추고, 맡기고, 기다려보십시오.

(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오늘의 기도

하나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진리의 고백 앞에, 겸허히, 그리고 겸손히 무릎 꿇고, 잠잠히 멈춰 기다리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내' 결정을 꺾어주시고, 주님의 결정하심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상을 돕는 질문

- 1.나의 선부른 판단과 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 2.'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1)' 본문의
말씀이 내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 3.주님의 결정하심 앞에 멈추고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게 가장 힘겨운 점은 무엇입니까?
- 4.주님의 결정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리고 기다리며 경험했던 은혜들이
있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잡언 17:1~28

1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
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2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
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3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4 악
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5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6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버지는 자식의 영화니
라 7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
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8 뇌물은 그 임자
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9 허
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둬 말하는 자는 친
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10 한 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
이 매 백 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11 악
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
리라 12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
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13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14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
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15 악인을 의롭다 하

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16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찜이고 17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느니라 18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19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20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21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버지는 낙이 없느니라 22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23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24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25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26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27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28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잠언의 내용은 그 순서와 주제가 마치 제각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밤하늘 수많은 별들처럼 한 구절, 한 구절이 각 각 빛을 내며 우리의 인생을 지혜로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 걷다보면 인생에 피해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할 방향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 17장은 솔로몬의 단편경구(어록)로 기록되었으며 다양한 빛을 비추며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여전히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7장을 4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필수요소(1, 17)

먼저 첫째 주제는 ‘가정’입니다.

(1)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이란 수분이 증발하여 오래된 먹기 힘든 음식을 말합니다. 그것도 한 조각이 전부입니다. 그 상태와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식입니다. 이는 그 가정의 물질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목’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도 서로 양보하고 나누어 먹으며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육이 집에 가득한 집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육이라는 이 단어는 ‘제바흐’라는 단어인데 ‘제물’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집안에 가득하다는 것은 화목 제물을 드리고 가족들과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하는 집안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풍부한 고기를 앞에 두고서 기껏 한다는 게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음식이 맛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 가정을 잃어버립니다. 가정이 중요합니까? 내 집 마련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가정입니다. 집은 가정이 머물기 위해 필요한 공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가정이 허

물어지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가정의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 화목이 있느냐 없느냐 곧 관계가 좋으냐 좋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7)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은 죄로 인해 무너진 핏줄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위급한 때 서로 돕고 위하라고 만들어준 형제, 자매의 관계가 경쟁과 이기심으로 무너지면 남만도 못한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무조건 가족이라고 손 벌리는 것도 문제겠지만 형제, 자매의 어려움에 나 몰라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한 자녀 된 제자들을 향해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신 것처럼 한 가정 안에 형제, 자매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남의 허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9, 14)

다음 주제는 ‘관계’입니다.

(9)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오늘 9절은 ‘타인의 허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타인의 허물에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덮어주는 것이고 하나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두 반응에 따라 관계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타인의 허물을 감싸주고 용서하는 사람에게서는 자꾸 주변에 사람이 늘어갑니다. 그러나 타인의 잘못을 자꾸 드러내는 자는 주위에 사람들이 남지 않고 다 떠나갑니다. 누가 자기 허물을 드러내는 자를 좋아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벤저민 프랭클린은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한 후에는 눈을 반쯤 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가까이하다보면 허물이 보이기 때 문입니다. 눈을 반쯤 감으라는 것은 허물이 보일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고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 걸음마 할 때 잘하나 못하나 도끼눈을 뜨고 췌려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으로 한 사람이 사람답게 길러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래 기다리심으로 제자들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위에 많은 사람을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용서해 준다면 그 과정을 통해 사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4)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큰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 출발하여 죽느냐 사느냐 까지 갑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 싸움한 이유들을 죽 적어서 이 자리에서 읽도록 하면 창피해서 못 읽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요리했는데 왜 당신은 그릇 치우는 것도 못하냐?’, ‘왜 당신은 양말을 아무 곳에서 벗어 놓냐?’ 등 등 아주 사소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이 상하기 전에 언쟁을 그만둡니다. 불이 나고 불을 끄려는 사람은 어리석으나 불이 나기 전에 불씨를 제거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혹 누가 옳은지 따지더라도 감정이 상하기 전에 그치는 것이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시비를 가리려다 성격차이로 이혼하거나 절교하는 친구들이 생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의 태도(10, 12, 18)

다음 주제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10) 한 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 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들을 귀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타인의 경고나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성 또는 교만을 말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사람은 그 마음이 가득차 있기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담을 마음의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하여 듣고 자신의 성숙과 성찰을 위한 재료로 삼습니다. 혹 그 말이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충고라 하더라도 자신을 다시 점검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2)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은 사망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내가 너랑 결혼할 바에는 혼자 살겠다’는 표현과 비슷합니다. 진짜 혼자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싫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미련한 자와 동행하는 자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들이 학기 초가 되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 잘 사귀어라!’는 말씀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미련하고 악한 친구를 만나게 되면 인생 망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나를 악한 길로 꺾는 사람이거든 도마뱀이 살기 위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듯이 그 악한 사람과 악한 일에서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18)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살아 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일에 손을 뻗 습니다. 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괜찮지만 보증을 서는 것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임질 수 없는 남의 인생을 짊어지겠다고 하다가 결국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 정에 이끌려, 거절을 하지 못하는 성격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리석은 일입니다. 착한 것과 우유부 단한 것은 다릅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책임질 수 없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악한 자들이 받을 형벌(5, 11)

마지막 주제는 '악한자'입니다.

(5)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악인들은 사람의 소유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까지 판단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존귀한 사람, 물질이 부족하면 막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갑을관계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힘이 있고 부요한 사람은 갑이 되어 을을 으박지르고 그의 인격까지 무시합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힘이 없는 을은 말대꾸 한번 하지 못합니다. 부패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곧 인간의 가치로 직결됩니다. 그러나 힘없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곧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The Bear’라는 프랑스 영화를 보면 어린 곰이 퓨마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도망 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기 곰과 친한 큰 곰이 오자 퓨마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갑니다. 바로 이 퓨마가 악인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분노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어려움과 아픈 일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유 없이 도와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 이유 없이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는 단어는 ‘짜메아흐’라는 단어인데 ‘웃고 즐기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은 똑같이 자신의 고통을 당할 때 도움의 손길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도움을 베풀

픈 사람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자들을 통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11)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선한 것에 대해서도 늘 거스르는 태도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우선하는 자, 고집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완고한 자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잔인한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무시무시한 심판자’를 의미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애굽의 바로’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재앙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끝까지 죄악의 길로 행하며 완고하여 유월절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사자가 장자들을 죽인 사건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언제까지나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끝까지 반역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사자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 17장을 통해 4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가정의 중심이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가족은 서로 사랑하며 어려울 때 서로 의지가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둘째,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가지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려줄 때 사람을 얻을 수 있으며 다툼이 일어날 때는 감정이 상하기 전에 시비를 멈추는 것이 지혜임을 배웠습니다.

셋째, 어리석은 자는 교만하여 들을 귀가 없고 지혜로운 자는 작은 가르침에도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악으로 피는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지 말고 단호히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지혜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책임질 수 없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지혜임을 배웠고 보증과 같이 책임질 수 없는 것에 손을 뻗지 말 것을 배웠습니다.

넷째,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잠언의 주제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인생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악인이 받을 형벌'에 대한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잠언을 읽으며 세상의 처세술이나 인생 성공법을 배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은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행하는 인생'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심겨진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만나는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며 또한 내 욕심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심겨진 곳에서 내 욕심과 뜻을 구하느라 가정이 망가지는 것도 방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음과 악함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쌓이는 것도 외면한 채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살 때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새벽 우리의 기도속에 내 뜻만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라 겸손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본문에 가정과 관련된 말씀들을 다시 묵상하며 우리 가정의 중심은 화목한 관계에 있는지 소유에 있는지 돌아봅시다.
2. 나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하여 들추는 자인지 사랑으로 덮는 자인지 돌아보며 예수님께서서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은혜를 묵상하여 봅시다.
3.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형벌을 내리시기로 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4.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잠언 18:1~24

1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2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3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 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4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5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6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7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8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9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10 여호와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11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12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13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14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15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16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17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18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19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리
 한 다툼은 산성 문뱃장 같으니라 20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
 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
 게 되느니라 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
 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22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
 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23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24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
 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악한 사람들과 미련한 사람들(1~11)

잠언 10:1~22:16까지는 솔로몬왕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은
 사로 말한 단편경구(어록) 375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 부분으
 로 나누면 10~15장과 16~22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인 10~15장에 184개의 경구가 있는데, 대부분은 ‘반의대구법’
 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의대구법’은 하반절을 상반절과
 반대로 표현하여, 그 의미를 더욱 뚜렷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
 느니라(10:12)”라고 하여 ‘미움’과 ‘사랑’을 대조하고 있고, “평
 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14:30)”라고 하여 ‘평온한 마음’과 ‘시기’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의어는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
 람’입니다.

후반부인 16~22장까지에는 모두 191개의 경구가 있는데, 주로 ‘동의대구법’과 ‘종합대구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의대구법’은 절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대등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19:29)”라고 하여 ‘거만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같은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대구법’은 절의 후반부가 전반부를 더 발전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20:2)”와 같이 말합니다.

(1)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삶과 신앙에서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라는 공동체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굉장히 큰 불행과 비극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말이 ‘~~하는 자는 또는 ~~하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개인보다도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갈라지는 사람’을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자기의 욕심이 공동체보다 크면 그 공동체를 깨는 사람입니다. 가수들 중에서 그룹으로 활동하는 사람

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모두가 균등하게 인기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팀을 시작할 때에 수입은 구성원들이 균등하게 나누기로 약속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 소위 인기가 더 있는 사람이 수입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 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 그것이 아무리 지혜로운 내용일지라도 듣지 않게 됩니다.

(2)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공동체를 깨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말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기어이서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의 의사’는 ‘자기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의 마음, 자신의 병든 이기심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에 반해서 명철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4)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의 말을 ‘깊은 물’과 ‘샘’ 등 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물은 ‘생명’을 뜻합니다. 농사를 짓거나 목축에 물은 절대적입니다. 적절하고도 충분한 비가 와야 가축들이 싱싱한 풀

을 먹고 잘 자라고, 풍족한 농작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우물물을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한 여름에 먹은 우물물의 시원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솟아나는 샘물을 먹을 때의 시원함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원문은 ‘사람’)의 말이 그러하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말이 그와 같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5)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두둔하다’는 ‘얼굴을 들어 올리다’입니다. 상대방의 지위, 재산, 권세 등을 보고 편을 들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을 할 때에 악한 사람을 두둔하고 의로운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바르지 않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을 두둔하고, 악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판결은 바르지 않습니다. ‘권력 무죄, 평범 유죄’도 바르지 않습니다. ‘지인 무죄, 외인 유죄’도 바르지 않습니다. 지은 죄만큼 벌을 받는 것이 공평합니다.

(6~7)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사람의 말이 다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혹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논란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게 만든다면 그 입을 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입은 매를 자청한다고 합니다. ‘자청하다’는 ‘큰 소리로 부르다’입니다. 그리고 ‘매’는 단순한 회초리가 아니라, 몸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타격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예로 말씀드리면 ‘곤장’입니다. 곤장을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서 일정한 수를 넘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말이 그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입(말)이 스스로를 망하게 만들고, 그물(울무)에 걸리게 됩니다.

(8)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원 의미. 중상하는 사람)의 말이 ‘별식’과 같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주 관심사 중의 하나는 ‘맛집’과 ‘떡방’입니다. TV프로그램에 음식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별식’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별식(외식)’은 보기에 좋고, 맛이 있습니다. 기분도 좋습니다. 다음에 또 먹고 싶습니다.

그러나 별식(외식)은 돈이 많이 듭니다. 적정량보다 많이 먹게 되어서 오히려 더 살이 찌게 만들어 건강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홍보는 것, 험담)이 그와 같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홍보고 험담

하는 것은 맛있습니다(재미있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흥을 볼 때에 기분도 좋고 시간가는 줄도 모릅니다. 다음에 또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흥을 보고 험담을 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뱃속 깊이 내려간다’는 의미는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흥보고 험담하는 것은 의외로 자신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험담하며 다 쏟아낸 것 같은데, 자신에게 깊은 독소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은 덜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10~11) 여호와의 이름은 건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건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생벽 같이 여기느니라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존재)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 자체와 하나님의 속성인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 신실하심과 자비하심 등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건고한 망대이며, 의인은 거기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5~6살 정도의 자녀가 놀이터에 놀고 있을 때, 아빠나 엄마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팔을 벌리고 있으면, 아이는 자기 아빠나 엄마를 부르며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옵니다. 아이에게는 그 부모가 견고한 망대이며, 그 부모의 품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부자는 자기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높은 성벽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많은 적든 자기가 가진 재물을 자신을 성으로, 성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런 부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재물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바른 인간관계~마음가짐.화평.언어생활 (12~24)

12~24절은 마음가짐, 화평, 언어생활 등 바른 인간관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2)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멸망의 얼굴은 교만이요, 존귀의 얼굴은 겸손이니라”입니다. 즉 교만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은 그 얼굴에 다 나타난다고 합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잘 치장하면 되겠습니까? 그 의미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의 옛말이 ‘얼굴’이

고, 그것은 ‘얼굴, 열(영혼)의 꿀’에서 왔다고 하듯이, 좋은 얼굴은 좋은 마음을 비추어 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13)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17)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상담은 찾아온 내담자에게 적절한 말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담교육을 받으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면 되는지가 아니라, ‘경청_귀를 기울여 들음’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집중해서 들어야지만이 찾아온 사람(내담자)이 말하지 않는 비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하지 않고 답을 주려는 것은 참 미련한 일입니다.

또 부부와 같이 서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상담할 때는 한쪽말만 듣지 않고 양쪽 말을 모두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파악하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먼저 찾아온 사람의 말이 맞는 경우가 많지만, 나중 찾아온 사람의 말이 맞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재판관이 원고와 피고의 이야기를 모두 듣지 않고,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판결을 내린다면, 그는 판사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2개가 있고, 입이 1개가 있는 것처럼,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의 2배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의 2배로 한다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관한 교훈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를 직역하면, ‘죽음과 생명이 혀의 손 안에 있나니(Death and Life are in the hand of the tongue.)’입니다. 우리의 혀(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마 12:36~3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의미는 불필요한 말까지 하다가 그 말로 인해서 곤경에 처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말은 곧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말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며,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18)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제비를 뽑는 것이 다툼을 끝내고, 강하게 반박하는 사람들 사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과정의 투명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양한 제비뽑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 분배할 때에도 했고,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

을 뽑을 때도 했고, 신약에서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맛디아를 뽑을 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를 위해서 일곱 집사를 뽑을 때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바울)을 전도자로 내어보낼 때, 제비뽑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도 제비뽑기 많이 성경적이라고 우기면, 그 우김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24)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를 사귀에 있어서 그 숫자보다 그 내용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우정은 다윗과 요나단일 것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처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설 수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 악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소욕을 크게 여겨 지혜를 배척하고, 자기의 말만을 드러내기를 갈망하는 미련한 사람의 길을 걷지 않고, 깊은 물과 솟구쳐 흐르는 샘물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는 명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진 재물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이 되고 성벽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와 피난처가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연을 듣기도 전에 답변을 하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의 말을 듣고서 그것이 전부일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음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한 말이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소원을 크게 여겨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자기의 의사(이기심의 마음)를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미련한 사람과 깊은 물과 솟는 샘과 같은 명철한 사람 중에서, 당신에게는 어떤 모습이 더 많습니까?
2.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는 사람과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사람과 같이 행동했을 때는 없었습니까? 그 때에 어떤 결과를 맞았습니까? 그리고 사연을 경청하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행동하였을 때에 어떤 결과를 맞았습니까?
3.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남의 말을 옮기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가 얻은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욕망을 크게 여기는 미련한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명철한 사람의 길을 걷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와 뜻 만이

잠언 19:1~29

1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
으니라 2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
니라 3 사람이 미련하므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
망하느니라 4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
느니라 5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
하지 못하리라 6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7 가난한 자는 그
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하지 아니하
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8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9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10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
스림이라 11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12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
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13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14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나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15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주릴 것이니라 16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나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17 가난한 자를 붙잡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18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19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 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20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21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22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2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24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25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26 아버리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27 내 아들이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28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29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미련한 사람의 실패, 재물과 친구(1~7)

오늘 본문은 10:1~22:16까지에 있는 솔로몬왕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은사로 말한 단편경구(어록) 375개 중에, 270~298번째까지 29개입니다.

(1)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말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가난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어리석고 입술이 고약한 사람보다 낫다.” ‘성실하게’의 의미는 ‘그 속에 거짓이 없고 온전하게’입니다. 그리고 ‘패역하다’의 의미는 ‘뒤틀리다’, ‘비틀어지다’입니다. 우리말에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하라”는 말이 있는데, ‘입술이 패역하다는 것’은 ‘입이 비뚤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말도 비뚤어지게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입술이 패역해도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영화 <베테랑>에서 서도철 형사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입니다. ‘가오’는 일본어로 ‘얼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가오(얼굴)가 있을 수 있고, 혹 가오가 없을 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3)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하므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의 원망을느니라

‘소원’은 ‘열정’, ‘열성’으로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는 소원’은 ‘합당한 기준이나 깊은 생각이 없이 열정만으로 행하려는 충동적인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발이 급한 사람’은 ‘행동이 생각보다 더 빠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바른 길을 걷지 못할 가능성이 바른 길을 걸을 가능성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는데, 바르게 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 가고서 하나님을 원망,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나 “하나님! 왜 저를 막지 않으셨어요?”라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머리는 차계, 가슴은 뜨겁게’이어야 합니다. 그 반대인 ‘머리는 뜨겁게, 가슴은 차계’의 사람은 결코 바른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6)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사람이 친구를 사귀고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참된 인격과 관대한 마음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문자적인 뜻은 ‘얼굴’입니다. ‘구하다’는 ‘어루만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어루만지다’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도움을 간절히 표현하는 관용어구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도 이러한 표현을 쓰곤 했습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선물(뇌물이 아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모두가 친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을 열지 말고, 지갑을 열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삶과 미련한 삶(8~15)

8~15절은 지혜로운 삶과 미련한 삶에 대해서 증거 합니다.

(8)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혜’는 문자적으로 ‘마음’을 뜻합니다.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혜가 거처하는 곳이 마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도 ‘충명한 머리’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야 함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곳과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임에도 지나쳐 버린 부분까지 마음을 써서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얻고 누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11)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전반 절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사람의 슬기는 그의 노를 연기한다.”입니다.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어떤 일을 상대방과 협상할 때에, 먼저 화를 내면 협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몹시 화를 낼만한 상황일지라도 오히려 얼굴에 미소

를 띠고 유연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강한 것입니다. 화를 먼저 내고 나면, 화낸 것이 미안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제안을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없습니다.

(12)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왕의 분노와 그의 은택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를 백수의 제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포효는 많은 짐승들을 떨게 만듭니다. ‘왕의 분노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다’는 것은 통치자(지도자)는 노를 발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룩말이나 가젤 등과 같은 동물들에게는 사자의 존재 자체가 이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만 내어도 다른 동물들은 크게 느낍니다. 통치자(지도자)가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감정을 마음대로 표현하면, 백성들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치자는 백성을 배려하고, 백성은 왕을 존중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또 왕의 선정을 ‘풀 위의 이슬 같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5~10월은 건기라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이 때는 지중해에서 고온다습(따뜻한 물기를 많이 지닌)한 바람이 불어 오는데, 밤이 되면 큰 일교차로 인해서 이슬로 바뀌어 여러 식물들에게 맺히게 됩니다. 그 양이 적지 않아서 농사와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 지방에

서는 이슬은 중요한 수자원이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겼습니다. 왕이 선정을 베풀면 백성이 그런 은택을 입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슬이 나무와 꽃, 풀을 가리지 않고 맺히듯이, 왕의 선정은 백성들에게 차별 없는 혜택을 입게 해 줍니다.

(13)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당시 이스라엘에서 자손이 번성하거나 슬기로운 자녀를 가지는 것은, 개인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자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반대로 후손이 쇠락하거나 자녀가 미련한 것은 그 조상과 부모에게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는 재앙과 같다고 합니다.

구역성경공부 사무엘상에서 나눈바와 같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의 미련함이 가문의 몰락은 물론 이스라엘을 언약궤가 없는 사회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의 미련함은 이스라엘의 정치제도를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건축기술과 건축자재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을 기억해보면, 집에 물이 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물이 떨어지는 곳에다가 그릇을 받혀놓곤 했습니다. 물이 튀지 말라고 그릇 안

에다가 수건이나 걸레와 같은 천을 깔아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물이 넘칠 것 같으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고인 물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새는 비는 집안의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다투는 아내가 떨어지는 물방울, 그것도 연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아 근심거리라다고 합니다. 물론 다투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지진, 태풍, 장마와 같은 천재지변(天災地變)을 두려워합니다. 그 피해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피해를 주는 것은 천재지변보다, 인재지변(人災地變)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인재지변은 모두 사람이 자초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우리 자신을 신뢰하기보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미련한 길이 아니라 지혜로운 길입니다.

인생에서 본받아야 할 자세와 멀리해야 할 자세(16~29)

16~29절은 인생에서 본받아야 할 자세와 멀리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6)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23)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자기의 영혼을 지키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행실을 삼가지 않는 사람이 재앙을 당하는 것도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기차는 철길 위에서만 자유가 있습니다. 기차가 철길을 벗어나면 문자 그대로 탈선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탈선입니다. 탈선을 하고서도 아무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17)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사람이 은행에 돈을 예금하거나,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없다면 돈을 땅에 파묻어 보관할지언정 예금을 하거나 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거나 적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영세한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대기업에서 무한 보증을 서 준다면 금방 대출을 해 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준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갚아 주실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선한 삶을 살려는 우리를 모른 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21)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와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사여부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유명한 구절인데, 대조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의 마음’과 ‘여호와’, ‘많은’과 ‘오직’, ‘계획’과 ‘뜻’이 대조가 됩니다. 특히 ‘많은’과 ‘오직’이 뚜렷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의 뜻을 또렷하게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최고의 지혜자로 불렸던 솔로몬이 말한 것이라 더욱 진실합니다.

(29)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거만한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삶은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거만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고,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
올수록 자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질 수 없
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 것 자체가 이미 징계
이었으며, 채찍을 맞은 인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그
깨달음이 있으면, 그 인생은 복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어리석은(미련한) 사람의 길이 있
고, 지혜로운(명철한)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이 크
게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언제나 어리석은(미련한) 길
이고, 하나님의 크게 보이고 내 소원이 작게 보이면 지혜로운
(명철한) 길입니다. 오늘 하루가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낮은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믿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지혜로운 사람의 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비록 가난하여 부족한 것이 있어도 성실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패역한 말을 하면서 부하게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명철함을 지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좋아서 지키며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아야 할 때에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자신의 소원만을 크게 보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생명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혹 미련하게 행하여 자기 길을 굽게 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또 바른 길을 걸으려다가 손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때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2.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이라고 합니다. 화내기를 천천히 하였다가 유익함을 얻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한 후 더 큰 기쁨을 누린 적은 없었습니까?
3.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와 같은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의 길이 아니라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의 길을 걷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사람의 걸음은

잠언 20:1~30

1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
 흑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2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3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4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
 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5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 내느니라 6 많은 사람이 자기
 자기의 인지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7 온전
 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8 심판 자리
 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훑어지게 하느니라 9 내가 내 마
 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10 한결
 같지 않은 저울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
 라 11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
 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12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13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
 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14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15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16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 자는 그의

몸을 불모 잡을지니라 17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18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19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20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21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22 너는 악
 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23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24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25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
 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덧이 되느니라 26 지혜로운 왕
 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27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28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29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30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
 라

우발적인 삶과 깊은 속고의 삶(1~15)

오늘 본문은 10:1~22:16까지에 있는 솔로몬왕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은사로 말한 단편경구(어록) 375개 중에, 299~328번째
 까지 30개입니다. 1~15절은 어리석은 사람의 우발적인 삶과 지
 혜로운 사람의 생각 깊은 삶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지혜가 없는 사람이 과도하게 포도주를 마시게 될 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 특징이, 거만하게 하고, 떠들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만하게 하다’는 ‘상대를 멸시하다’, ‘업신여기다’입니다. 상대를 존중해야 하는데, 포도주의 지배를 받고 나니, 자신은 크고 강한 사람으로 상대는 작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들게 하다’는 ‘중얼거리다’, ‘소리를 지르다’입니다. 알코올에 지배를 받고 나면,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대화는 상대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하고, 다시 상대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하는 것이지만, 알코올의 지배를 받으면 상대의 얘기를 듣지 않고 줄곧 자기 말만합니다.

거만하게 되고, 떠들게 되는 것은, 사람이 지배해야 할 포도주와 독주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지배를 해야 하는 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것이 ‘중독’입니다. 모든 중독이 그러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술을 참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지배해야 할 술에 지배를 당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음주운전’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고도 심각한 범죄입니다.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성령님이신 주님이시, 술인 주(酒)님은 결코, 결코, 결코 아닙니다.

(2)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왕의 화냄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다고 합니다. 19:12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2)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19장과 20장 모두가 화를 내는 왕의 모습을 사자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19장이 왕이 내는 노는 사자의 포효와 같으니 화를 내는 것을 조심하라는 의미라면, 20장은 신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왕을 노하게 하는 것을 야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지 않게 해야 할 진짜 왕은 하나님이 십니다.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가을에 밭 갈다’는 것은 ‘추수하다’가 아니라서 의아하게 들리지만,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러합니다. 팔레스타인에는 5~10월은 건기라 비가 오지 않습니다. 10~11월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 때에 씨를 뿌립니다. 물론 이듬해 건기가 시작이 되기 직전인 4~5월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인 10~11월에 오는 비를 ‘이른비’라고 하고, 추수할 때인 4~5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에 사람들을 도와 함께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둘 때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5)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락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 내느니라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의 속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철한 사람을 그것을 길어 올린다고 합니다. 흔히 여행을 가면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아는 만큼 들립니다.” 명철한 사람은 다른 깊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깊이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깊이가 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들립니다.

(6)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표준새번역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스스로를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많은 사람이 입사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열심을 낼 수 있는지를 최선을 다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면접관은 이 사람이 정말 믿을만할까? 이 사람은 충성스럽게 소임을 다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혼란할수록, 기업이 어려울수록, 약삭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수록 그런 때에는 더욱 필요한 사람은 충성된 한 사람, 믿을만한 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도, 충성스러운 사람, 믿을만한 사람입니다. 상거래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10)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23)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지금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저울이 거의 대부분이 전자저울이지만, 과거에는 가정에 대부분 가로막대와 추를 사용하는 저울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저울은 천칭 또는 양팔저울과 같은 것입니다. 한쪽 접시 위에는 곡식이나 물건을 놓고 반대편 접시에는 저울추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울추가 1kg, 2kg, 3kg, 5kg 등이 있는데 같은 무게의 추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1kg인데 어떤 추는 1kg보다 덜 나가고, 어떤 추는 1kg보다 더 나가는 것입니다. 상인이 물건을 살 때와 팔 때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른 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의미는 ‘수를 세고, 달아보니 부족해서 나누어 주다’입니다.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물건은 파는 사람이 정직해야 한다면 사는 사람도 정직해야 합니다.

(14)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물건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가능한 한 싸게 사기 위해서 물건의 상태가 좋지 않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최대한 싸게 구입을 하고서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정직해야 한다면, 물건을 사는 사람도 정직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이윤을 붙여 파는 것도 바르지 않고, 과도하게 깎는 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저는 과일을 동네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살 때는 일부러 상처가 있는 것을 고르거나 모양이 예쁘지 않은 것을 고르곤 합니다. 과일 가게에서 그것을 다 팔아야 하는데, 제가 전부 다 사주지는 못해도 사람들의 손이 가지 않을 것 같은 것을 사 주면, 다른 것은 팔기가 쉬울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르면 주인은 거의 항상 덤을 주시곤 합니다. 바른 판매와

바른 구입은 사회를 더욱 투명하게 해 줍니다.

조급과 속단의 경계와 악의 치리(16~30)

16~30은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태도와 악에 대한 준엄한 치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6)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 자는 그의 몸을 불모 잡을지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보증을 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증을 잘못 서게 되면 옷도 빼앗기고, 몸도 잡혀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보증을 서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 있는 돈 전체가 내 것이 아니라 가족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침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들의 꽃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의 인생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내일을 보증해 주며,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19)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한담(閑談)’의 사전적인 의미는 ‘심심하거나 한가할 때 나누는 이야기’, 또는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이야기’입니다. 그러

나 본문의 ‘한담하는 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방하는 사람’, ‘고자질쟁이’, ‘이간질하는 사람’ 등을 뜻합니다. 즉 ‘카더라 통신 소장’ 정도가 아니라, ‘중상모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과 사귀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 정도가 아니더라도, 2~3사람 정도가 있는 곳에서 자기 속 고민을 이야기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된다면, 그 2~3사람과는 속에 있는 말을 나누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21)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산업’의 기본적인 의미는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영어성경에서는 ‘유산, 유업(inheritance)’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히 잡은 산업(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재산을 상속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그 부모에게 강요하여(당시의 가치관으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유산을 먼저 받은 것을 뜻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 비유처럼,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강요해서 유산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유산은 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도 동일했습니다.

유산은 부모의 헌신과 노력으로 만든 결실입니다. 거기에 자녀가 더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유산은 부모에게는

수고하고 애를 써서 ‘번 것’이지만, 자녀들에게는 ‘생긴 것’입니다. 생긴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최대한 많이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남겨 놓은 그것이 자녀에게 복(유익)이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긴 것 중에서 무엇이 복이 되고, 무엇이 화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오래가는 가치, 생명을 살리는 가치가 있는 것을 남겨주려고 해야 합니다.

(24)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앞의 사람은 ‘힘센 사람’, ‘용사’, ‘힘이 절정에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뒤의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고 총명한 사람이나 보통 사람이나 자기가 가야할 길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 년 후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달 아니 다음날의 일도 모릅니다. 심지어 10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29)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고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백발’은 단순히 ‘고령’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인생의 경험과 지식’을 뜻합니다. 젊은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 ‘가능성’입니다. 늙은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은 ‘인생의 경험과 지식’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갖지 못한 것입니다. 이 때에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무시하면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의 힘과 가능성을 무시하면 ‘추억팔이 상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것이 아무리 크고 좋아보여도, 그것으로 영원히 크고 좋으신 분이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아무리 잘 꾸려가도 하나님이 없으면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서 미련한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걷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통제해야 할 것에 통제를 당하며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명철한 사람으로 살아 사람들 속에 있는 말, 아우성을 들어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대가 혼탁해 갈수록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 것을 잊지 않음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바르지 못한 생각을 버리고, 유산이, 내가 가진 소유도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삼음으로, 오늘 하루가 지혜와 명철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포도주나 독주처럼 내가 지배를 해야 할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2. 처음에 잡은 산업은 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복이라 생각하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나, 복이 아닌 줄 알았는데 복으로 판명이 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3.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평범한 사람도 자기 길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인생길에서 최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명철과 지혜의 길을 걷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21:1~31

1 왕의 마음이 여호와와 손에 있음이 마치 붓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2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 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3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4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행통한 것은 다 죄니라 5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 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6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7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8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9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 니라 10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11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 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12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13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14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15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 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16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17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18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
 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19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20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21 공의
 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22 지혜로
 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23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24 무례하
 고 교만한 자를 이롭게 하여 명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
 함이니라 25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느니라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26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
 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27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
 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28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
 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29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30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의 당하지 못하느니라 31 싸울 날을 위하여 미병을 예
 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주권, 의인과 악인의 생활자세,

지혜자와 우매자의 대인관계(1~20)

오늘 본문은 10:1~22:16까지에 있는 솔로몬왕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은사로 말한 단편경구(어록) 375개 중에, 329~359번째
 까지 31개입니다. 1~20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의인과 악인
 의 생활자세와 그 결과, 그리고 지혜자와 우매자의 대인관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붓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세상에서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붓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보(洩)’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독을 쌓아 흐르는 냇물을 막고 그 물을 담아 두는 곳’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이라 물이 귀했습니다. 어릴 때 듣고 충격을 받았던 중에 하나는, ‘중동사람들은 물을 사먹는다더라’였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이었던 것은 ‘그 물 값이 기름(석유)값보다 비싸다더라’였습니다. 지금은 우리도 기름보다 비싼 물도 사 먹습니다. 것처럼 비가 적게 오는 곳에서 농사를 지을 때 독을 막아 냇물을 막아두었던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논이나 밭에 물이 부족하면 보를 열어서 물을 대거나 물을 끌어다 썼습니다. 농부가 붓물을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그렇게 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2)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정직하다’는 ‘올바르다’, ‘곧다’의 의미입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의 행동(삶)이 ‘올바르다’, ‘곧다’고 말한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우리의 행위(삶)는 우리가 보기에든 올바르거나 곧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올바르지 못해서 후회하고, 곧지 않고 휘어져 있어서 찢림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삶)을 합리화하는 것 잘하고, 우리 삶에 면죄부를 주는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감찰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측량하다’, ‘무게를 달아보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것을 직면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행해야 합니다.

(3)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데, 제사(예배)보다 더 중요한 수단은 없었습니다.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이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장 먼저 한 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긴다고 말

씀하십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닮아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섬기는 것이고, 정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함을 닮아 올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판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과 이웃을 위한 신실하고도 올바른 삶은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의 용어로 표현하면,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 아닌 욕망을 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6)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의 의미는 바른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5절의 표현으로 하면 ‘조급한 자’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을 두 글자로 하면, ‘사기(詐欺)’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하는 것은 곧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언제 무너질 것인가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안개가 자욱하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 사방이 안개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안개는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몰려갑니다. 속이는 말로 모으는

재물이 그러합니다.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데, 아무리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바람이 불고나면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다른 사람의 손에 있습니다.

(9)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19)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만 힘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다투는 남편과 사는 것도 힘이 듭니다. ‘큰 집’이 대저택을 일컫는 ‘맨션’이라고 한다면, ‘움막’은 사전적으로는 땅을 파고 그 위에 거적을 얹은 임시집을 말하지만, 본문의 의미는 ‘옥상 위, 한쪽 구석에 지은 방’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은 지붕이 평평하였기 때문에 옥상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를 다르게 표현하면, ‘맨션(100평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옥탑방에 사는 것이 낫다’입니다.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 후에 부부 그리고 가족들이 살아갈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글세집에서 전셋집으로, 전셋집에서 자기 소유의 집으로, 또 더 큰 집으로, 더 환경이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가족이 ‘함께 산 공간’이 얼마나 컸었는지, 또 얼마나 좋았었는지는 소중한 추억으

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은 ‘함께 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큰 집이냐, 움막이냐, 광야보다 가족과 어떻게 지냈느냐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13)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상반절에 있는 ‘부르짖는 소리’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거나 간절한 도움을 요청할 때에 내는 울부짖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하반절에 있는 ‘부르짖는 소리’는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귀를 막다’는 의도적인 외면을 뜻하는 말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울부짖음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면,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것을 듣는 사람이 없게 하신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꾸어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과 같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곧 미래에 어려움에 처한 자신을 돕는 것과도 같습니다.

(16)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잠언 9:10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

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철의 길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분(하나님)을 떠났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남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 세상에는 두 갈래의 길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명철의 길’입니다. 물론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명철을 떠난 길’입니다. 그 길 끝에는 사망의 권세가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걷든지 그 결과도 우리의 몫입니다.

(17)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연락(宴樂)’은 ‘잔치를 벌여 즐김’이라는 의미입니다. ‘술과 기름’은 잔치의 흥을 돋게 해주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잔치를 열 상황과 여력이 생겨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꿈’이어야지 ‘늘’이게 되면 인생은 무너집니다. 술로 연못을 이루고 고기로 숲을 이룬다는 뜻으로, 호사스러운 술잔치를 이르는 말인 ‘주지육림(酒池肉林)’이 바른 삶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의인과 지혜자의 성공, 악인의 패망, 하나님의 주권(21~31)

21~30절은 의인과 지혜자의 성공에 대해서, 악한 사람들의 패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23)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잠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입(말)’과 관련된 교훈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말이 중요하고, 또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약 3:2)”라고 권면 합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의 다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에는 말을 했기 때문이거나, 말을 해야 할 때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 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말)을 지키기 위해서, 2중으로 보호장치, 즉 치아와 입술을 만들어 두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25)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르다고 해서 아무런 욕심이나 욕망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욕망이 클 수도 있습니다. 아마 게으른 사람에게 가장 큰 욕망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서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는 죽습니다. 가끔 해외 토픽과 같은 뉴스에 평생을 집밖으로 나가지 않고, 소파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잠도 자고 하여,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는 잘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사람, 몸무게가 몇 백 킬로그램이나 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접하곤 합니다. 그래서 중장비를 동원해야 그 사람을 겨우 집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30~31)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의 사람과 명철의 사람이 되기를 반복해서 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보다 100배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보다 100배 명철하다고 할 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것도 아니며, 하나님을 당해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지혜와 명철을 창조하신 분

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천지창조 천장화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미켈란젤로를 당해 낼 수 없고, 운명교향곡, 전원교향곡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베토벤을 당해 낼 수 없습니다. 그것을 그렸고, 그것들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또 아무리 말을 많이 준비해도, 아무리 많은 병사를 모아도 전쟁의 승패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자, 최상의 명철입니다.

악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구하는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이 소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지혜와 명철의 길을 걷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고, 더 많은 것과 더 큰 것을 갖기 위해서 불려 다니는 안개처럼 살았을 때가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한 때는 지금보다 좀 더 넓은 집, 더 좋아 보이는 집을 갖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제사(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공의와 정의 를 행하는 것을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혜와 명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준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명철의 길'이며,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걷는 것이 '지혜의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그것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경험을 해 신 적이 있습니까?
2. 무엇인가를 움켜쥐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했지만 그 결과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개처럼 평가된 일이 있습니까?
3. 지혜와 명철로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며,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

잠언 22:1~29

1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2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3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4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5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7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빛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8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9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10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11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12 여호와와의 눈을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13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14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15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없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16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17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돌지어다 18 이것을 네 속

에 보존하며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19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20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21 내가 진리
 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22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23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
 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24 노를 품는 자와 사
 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25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
 혼을 울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26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27 만일 값을 것이 네게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28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29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
 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은 크게 1~16절과 17~29절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6절은 10:1~22:16까지 있는 솔로몬왕이 하나님
 께 받은 지혜의 은사로 말한 단편경구(어록) 375개 중,
 360~375번째까지 16개입니다. 17~29절은 24:22까지 ‘지혜 있
 는 자의 서른 개의 말’ 중 5가지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나눈다
 면 1~16절을 1~9절과 10~16절로 볼 수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1-9)

(1~9)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나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나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빛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이나

1절은 ‘재산 보다 소중한 명예’를 9절은 ‘양식을 가난한 자
에게 준 사람은 선한 눈을 가지고 있기에 복을 받는다고’ 말합
니다. 오늘 배워야 할 지혜의 첫걸음은 바로 ‘돈’에 대한 이해입
니다. 이 세상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
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2절)’ 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있는 자에게서 양식을 받지 못해 가난한
자는 없어야 합니다. 부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가난하다고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재
앙을 보면 숨어 피하는 것처럼 돈을 가지면 악한 곳에 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선한 눈’을 구해야 합니
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해야 할 ‘눈’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재
물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
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

라’(6절)는 말씀은 돈을 어디로 흘려보내야 하는지 교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악한 마음과 방법으로 돈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에는 재물만 있지, 4절이 약속하는 ‘영광과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돈을 통해 겸손을 증명해야 합니다. 선한 마음과 눈과 손으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은 겸손함으로 ‘하나님 은혜의 손과 발’이 되어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임금의 친구가 되는 법(10~16)

(10~16)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으니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없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나라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야 ‘다툼과 싸움과 욕설’이 없어집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만약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과 싸움과 욕설이 있다면 자신이 거만한 사람은 아닌지 검증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마음이 정결해 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마음이 100퍼센트 완전히 깨끗해 저

야만 거만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함’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원함’이 가득하다면 다통과 싸움과 욕설로 드러날 것입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정결함을 ‘사모하며’ 일 초, 일 분, 한 시간, 하루를 채워가는 사람은 ‘덕 있는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언어습관으로서 마음을 증명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자 핑계를 대며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음란한 사람은 자기 욕망을 어떻게든 이루기 위해 상대를 욕망의 함정에 빠뜨리게 만드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혀를 서로를 향한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부자를 향해 아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학대하고 뇌물 바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11절에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라고 증거 하는 지식, 즉 ‘마음과 언어의 연결됨’을 깨달은 사람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동시에 사기꾼의 말을 반드시 패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영적 신분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17~28)

(17~28)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들지어다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힘이 아니냐 악한 자를 그가 악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울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값을 것이 네게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17~21절은 우리가 1~16절까지 묵상한 내용을 정리해주며
새 단락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잠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을 말씀에 고정해야 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청소해가며
그 속에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연결된 통로는 입술로
부터 시작됩니다. 입술에 말씀을 담음으로 마음으로 내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보내신 이에게 진리의 메시지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
뢰함’, 즉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었음
에도 행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아무리 해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잠언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해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손만 붙잡고 한 걸음씩 내딛겠습니다. 볼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옳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음성을 등불 삼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부당하게 빼앗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사람들이 기도할 때 돌아올 심판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시선을 잇고 함께 분노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해결해 줄 능력이 없다면 보증을 서겠다고 말하지 않고, 가난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빼앗지 않으며, 하는 일을 소명으로 여기는 장인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재물이 바르게 흘러가기를, 마음과 말의 통로가 깨끗하게 되기를, 흔들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바로 지혜와 명철의 입구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 뿐이기에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돈에 휘둘리지 말고 선한 눈으로 돈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소원합니다. 매 순간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사모하며 입술을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삶으로 기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세워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우리는 ‘가난과 부요함(2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돈을 통해 겸손을 증명해야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봅시다.
2. ‘다툼과 싸움과 욕설(10절)’에 둘러싸여 있는지 돌아봅시다. 혹시 자신에게 쫓아내야 할 거만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3. 우리의 언어습관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친구답게 살아가려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4.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동기’를 점검해 봅시다.
5. 장인정신을 갖고 자기 일에 능숙해지려면 우리의 하루는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진리를 사되,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잠언 23:1~35

1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2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나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3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4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5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6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7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8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데로 돌아가리라 9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10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발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11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12 훈계에 착삼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13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14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15 내 아들이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16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17 네 마음으로 죄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18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9 내 아들이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20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21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 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22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3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24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25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26 내 아들이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27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28 참으로 그는 강도 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29 재앙이 뉘게 있느냐 근심이 뉘게 있느냐 분쟁이 뉘게 있느냐 원망이 뉘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냐 붉은 눈이 뉘게 있느냐 30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31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32 그것이 마침내 뱀 같이 물 것이요 독사 같이 쏠 것이며 33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34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35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오늘 본문은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의 ‘지혜 있는 자의 서른 개의 말’ 중 6번부터 18번까지 13개의 잠언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생활에 대한 경고 (1~11)

지혜자는 관원과 함께 앉아 먹는 음식에 대해 경고합니다.

(1~3)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나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대개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음식을 대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대접하는 사람이 관원이라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높은 사람이 음식을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가 식사 대접을 해주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인데, 대통령이 식사 대접을 해준다고 한다면 아마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과 식탁에 앉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속이는 음식, 피려는 음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앉지 말라는 것을 넘어, 목에 칼을 두고 있을 정도로 자기를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대접을 가장한 뇌물을 받는 것보다 목을 치는 것이 나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기에, 높은 사람의 대접은 절대로 탐해서는 안 됩니다. 관원의 대접을 주의하라는 경고와 함께, 인색한 사람의 음식을 먹지 말 것에 대해 또한 경고합니다.

(6~8, 새번역) 너는 인색한 사람의 상에서 먹지 말고, 그가 즐기는 맛난

음식을 탐내지 말아라.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네가 조금 먹은 것조차 토하겠고, 너의 아침도 헛된 데로 돌아갈 것이다.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먹느냐
가 중요하다. 식탁의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참 많은 사람들과 식탁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
혜자는 인색한 자의 식탁에는 앉지 말라고 말합니다. '인색함'과
'베푼'이라는 두 단어는 함께 연결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인색한 자의 베푼이라는 이 역설적인 식탁은 숨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의도 있는 식탁의 교제는 그 의도로 말미암아 결국
그 먹은 것들은 모두 토하게 되고, 심지어 그와의 대화마저도
모두 토해내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대접에 대한 경고에 이어,
지혜자는 물욕(재물에 대한 욕심)에 대해 경고합니다.

(4~5)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말씀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는데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재물은 그저 허무한 것에 불과합니다. 재물은 독수리의 날아감
과 같이 빠른 속도로 허무하게 사라질 뿐입니다.

그런데 신년이 되면 우리는 서로 덕담을 나눕니다. “여러

분, 부자되세요” 2002년 모 신용카드 회사의 광고 카피였고, 언젠가부터 새해 덕담으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는 것은 덕담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라는 권면과 함께 경제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또 다른 경고를 합니다.

(10~11)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토지의 경계를 의미하는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는 의미는 부정축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자의 부정축재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범하는 폭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 밭의 모퉁이를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까지 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나그네까지 배려하시는 세심한 하나님의 관심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고아의 밭까지 침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억울한 고아를 위한 구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속자는 ‘기업 무를 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 무를 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은 고아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업 무를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신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신원은 재판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고 이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종의 암행어사가 되어 고 이들의 재산을 환수해주시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녀교육에 대한 교훈(12~35)

본문은 경제생활에 대한 지혜자의 경고에 이어, 자녀 교육에 대한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13~14)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자녀교육에 대한 훈계로 매질을 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엄격하되, 생명이 위협될 정도로 치명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이러한 매질을 통해 습득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스올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감정에 기인한 그릇된 체벌이 아니라, 올바르게 정당한 징계는 자녀를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야 하는 부분이 마음의 지혜와 입술의 정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5~16) 내 아들이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유교적 상황 속에서 입신양명이 효의 한 부분으로 생각했지만, 성경 속 지혜자는 출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부모를 가장 즐겁게 하는 것, 즉 효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부모로서 자녀의 출세보다 그의 정직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고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성경은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17~18) 네 마음으로 죄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때로 우리마저도 죄인의 행동을 부러워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죄인들은 온갖 음모와 술수, 때로는 폭력을 가해가며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함이라는 결과를 보며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그들의 행동함은 하나님의 시간의 선상에서는 아주 잠깐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미래를 보장받는 삶이라고 권면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삶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19~21) 내 아들이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 자기를
즐거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지혜자는 자녀에게 지혜를 얻어 바른 길로 가라고 말하면
서, 바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을 멀리 하라고 함께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술을 즐겨 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입니
다. 술을 마셔도 되는가 안 되는가는 다른 문제이고, 여기의 본
문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고기를 탐하는 사람
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술과 고기로 배를 채
우지만, 그로 인하여 그들의 가산은 텅텅 비게 되어 가난해질
것입니다.

이어서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에 대한 언급으로 연결되는
데, 그것은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와 별개의 이야기라기보
다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 잠자거나 배가 불러 졸음을 이기
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들은 결과적으로 집안을 살피
지 못해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의
참상에 대하여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말하며 다시 한 번 강조
합니다.

(31~35)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 같이 물 것이요 독사 같이 쏘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깟가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이 뱀과 비유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입 속에 들어와 톡
쏘는 느낌을 독사에게 물렸을 때의 그 따끔함으로 비유하고 있
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의 상태에 대한 묘사 역시,
온몸에 독이 퍼져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눈에 괴상한 것을 보
입니다. 그리고 말을 뒤죽박죽할 것입니다. 높은 파도가 넘실거
리는 바다 가운데, 그리고 중심을 잘못 잡는다면 떨어질 돛대
위에 누운 자와 같이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그들은 감각이 없어 무모함을 드러내게 될 것입
니다. 그렇기에 자녀들이 그들과 같은 자리에 있지 말라고 말하
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음에 대한 경계와는 반대로 본문은 부모
와 지혜자의 교훈을 잘 듣는 자녀가 주는 기쁨을 드러내고 있
습니다.

(22~25) 너를 낳은 아버지께 청중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재미있게도 성경은 ‘아버지께 청중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과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는 말을 동일구문 상에 놓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과 지혜를 하나의 주제로 묶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팔지 말아야 하는 진리, 즉 아주 귀한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이 절대 팔지 말아야 할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양쪽의 그 책임감이 함께 주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지혜롭게 양육해야 하고, 자녀는 그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지혜를 유산으로 여기며 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놀랍게도 그렇게 지혜로운 자녀를 본문은 ‘의인’으로 묘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의인이 된 지혜로운 자녀 외에도 크게 즐거울 것이 없으며, 그 낳은 어머니는 이 일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막막함과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하물며”의 은혜를 망각한 채, 관원과 인색한 자와의 식탁에 앉기도 하고, 부정축재를 하려고 하기도 하며,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기도 했던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막막함과 불안함을 어떤 대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구하는 것을 주시고,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시고, 찾을 때 찾게 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인생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물며”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돼 주셔서 "하물며"의 은혜로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했지만, 그냥 어떤 대상을 안다는 정도의 삶을 고백하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원의 대접을, 인색한 자의 대접을 원하며 입신양명을 꿈꿨고, 그것이 효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벗어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다른 사람과의 식탁의 자리에서 얻은 생각이나 교훈이 있다면, 묵상해 봅시다.
2. “부”에 대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비교하여 묵상해 봅시다.
3.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과 그것에 대해 본문은 무엇이라 말하는지 묵상해 봅시다.
4. 자녀로써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봅시다.
5. 오늘 본문을 통해 지혜자가 주는 삶의 교훈을 다시 한 번 찬찬히 묵상해 봅시다.

송이꽃을 먹으라

잠언 24:1~34

1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2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라 3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4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5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니라 6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7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8 악행하기를 피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9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10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11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12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13 내 아들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꽃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14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5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16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

양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17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18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19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
 지 말라 20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21 내
 아들이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22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23 이것도 지
 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에 낮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24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25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26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27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 28 너는 까닭 없이 네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29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30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31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32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33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즐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니 34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악인의 형통1(1~10)

잠언 1~9장은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솔로몬 왕이
 장차 나라의 지도자가 될 젊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었던 말씀
 을 모아놓았습니다. 10~24장에는 솔로몬 왕과 지혜자들이 전한

말씀을 모아놓았습니다. 그중에서도 10:1~22:16까지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은사로 말한 단편경구(어록) 37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2:17~24:34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잠언입니다. ‘솔로몬 제2잠언’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1~2)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악한 사람들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악한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윤리적, 도덕적으로 낮은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그것이 전부라면, 성경은 윤리교과서에 불과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께 등을 돌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면, 가장 크게 여겨지는 죄는 하나님을 몰랐던 것과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깊이 후회가 되고, 참회가 됩니다.

‘부러워하면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그 사람들에게 진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부러워하면 “저 사람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라고 생각하며 따라하게 되어, 자신도 악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함께 있으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면서 닮는다’는 말처럼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19~20)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들이 가는 길은 결국은 멸망의 길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쌓은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필귀정(事必歸正)’입니다.

(3~4)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집’은 ‘건물’을 뜻하기도 하고, ‘가정’, ‘가문’, 더 나아가 ‘국가’를 뜻하는 말로 쓰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 ‘지식’은 모두 비슷한 의미로 ‘말씀’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입니다. 좋은 집일수록, 큰 집일수록, 높은 집일수록 설계가 좋아야 합니다. 설계가 좋지 않거나 없으면,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집을 지을 곳이 지진이 있는 곳이면 더욱 그러합니다.

집은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견고하게 된다’고 하고, 방들은 ‘채우게(채워지게) 된다’고 모두 수동태로 표현합니다. 가정과 국가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지식이 아니라면, 인생에 비바람이 불어대고, 눈보라가 휘몰아칠 때, 더욱이 인생에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기거나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5~6)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힘이 센 사람보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강하고, 기운이 센 사람보다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면 전략을 세워야 하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생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인생을 바르고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출발이자 과정이며, 마침입니다.

(10)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우리의 인생에 환난이라는 손님이 찾아오면, 우리의 실상, 한 없이 약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오기 전에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환난은 자신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출발이 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환난은 무너짐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2(11~22)

(11~12)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와 ‘살륙을 당하게 된 자’는 모두 ‘복수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죽을죄를 지어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고함에도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건져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자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이라도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지는 것이 당연하듯, 안식일일지라도

도 사람을 살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혹 외면하는 일이 있다면,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상선벌악’, 선을 행하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건물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사고나 지진과 같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살아 있는 사람을 구조하는 것입니다. 그 때는 살아 있는 사람의 지위고하나 빈부귀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 있으면, 그 어떤 죽은 사람보다도 우선해야 합니다.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엔 사망자를 수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물보다 우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해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13~14) 내 아들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와 명철인 하나님의 말씀을 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송이꿀’은 ‘최고 품질의 꿀’을 의미하기도 하고, ‘별집에서 흐르는 꿀’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서 꿀을 예찬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나 꿀이 얼마나 좋은 식품인지를 알려주 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꿀의 특징을 두 형용사로 표현을 합니다. ‘좋다’와 ‘달다’입니다. 꿀은 몸에도

좋고 먹으면 맛이 있듯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말씀도 우리의 영혼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에 좋을 뿐 아니라 달다고 합니다. ‘달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어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입으로 맛을 보아야 합니다. 과거 간장광고의 유명한 CM송이 있었습니다.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00간장”이라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누리보지 못한 사람은 그 맛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원한 단맛이 있습니다.

(21~22) 내 아들이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하나님과 왕을 나란히 세우며, 경외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은 그 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합당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도 바르게 섬기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 줍니다.

반역자와 사귀지 말아야 함은, 왕정시대에 최고의 죄는 ‘역모’입니다. 역모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없기에 역모를 저지른 사람은 물론이고, 가족과 친인척들까지 함께 참수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에 대한 역모가

그러하다면,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역모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짓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잠언(23~34)

22:17~24:34의 잠언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지혜자의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2:17~24:22의 지혜자와 23~34의 지혜자는 다른 사람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23절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로 시작됩니다.

(23)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낮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만약 악한 사람(죄인)을 옳다고 하면 백성들로부터 저주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재판을 할 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안 되고, ‘안면무죄 생면유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26)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적당하다’의 원 의미는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 알

맞다’인데, 지금은 ‘대충하다’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본문의 ‘적당’은 ‘올바름’, ‘공정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입맞춤’은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서양에서는 친밀함의 표현으로 볼을 맞추는데, 그것과 유사합니다. 표준새번역성경과 공동번역성경은 26절을 ‘바른 말을 해 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언어에 진실함과 올바름을 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태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끝이 나는데, 30~3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30~34)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즐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화장실을 보면 그 집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감추어진 곳, 드러나지 않는 곳을 정리를 하면 드러나는 곳은 당연하게 정리를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은 정리가 되었음에도 화장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집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화장실보다 더 그 사람과 집을 알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밭’과 ‘포도원’입니다. 밭과 포도원은 농부에게 생명과 같은 곳이고, 관심과 정성의 초점이 되는 곳입니다. 그곳들이 가시덤불과 거친 풀(짚레)이 가득하고, 돌담이 무너져 있다면 들어가 돌보기도 힘든 상태인 밭, 완전히

황폐화된 밭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보고서 지혜자의 생각이 깊어졌고, 훈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혜 없고, 게으른 농부의 밭을 보며, 자신의 삶을 투영해 본 것입니다. 타인의 삶을 자신에게 타산지석으로, 반면교사로 삼은 것입니다. 깨달은 눈으로 보고, 깨달은 귀로 들으면 세상은 진리를 깨우쳐주는 교과서와 같습니다.

33절에는 ‘좀 더’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조금의 잠’, ‘조금의 줄음’ ‘조금의 손을 모음’이지만, 그 ‘조금’이 합해지면 인생 전부가 됩니다. 빈궁(가난)이 ‘강도 같이’ 오고, 곤핍(빈곤)이 ‘군사 같이’ 온다고 합니다. ‘강도 같이’는 예상하지 못한 때입니다. 그리고 ‘군사 같이’는 방어할 수 없게입니다.

시인 바이런(G. G. Byron)이 말한, “어느 날 눈을 떠 보니 갑자기 유명해졌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점이 아니라 선으로 이어집니다. 즉 ‘오늘의 나’는 과거의 나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나’는 오늘의 삶의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들보다 더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명철, 지식으로 집을 짓고, 꿀과 같은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도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게으르고 지혜 없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깊은 깨

달음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을 버리고, 지혜와 명철, 지식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 집을 건축하는 설계도와 지침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꿀과 송이꿀과 같은 지혜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 그 맛의 깊이를 평생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하게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언어가 바르고, 지혜롭고, 따뜻하여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리게 하시고, 언제나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주어진 삶에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도 형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부러워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2.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맛을 깊이 느낀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그 말씀의 맛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 그 맛을 경험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것을 결심해 보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결심해 보십시오.
3. '좀 더', '좀 더', '좀 더'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좀 더 깨어 있고', '좀 더 신실하며', '좀 더 부지런'하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겠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잠언 25:1~28

1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
 나라 2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
 나라 3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4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 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
 요 5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6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7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8 너
 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9 너는 이웃과 다투거
 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10 듣는 자가 너를 꾸
 짓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11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 사과니라 12 슬기로운 자
 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 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13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열을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
 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14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
 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15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
 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16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
 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17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

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18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19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20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21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22 그리 하는 것은 핀 솥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23 복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24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25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26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썩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27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28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왕이 들어야하는 교훈(1~7)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1)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잠언의 전반부인 1~9장은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고, 잠언의 중반부인 10~29장은 영감을 받은 단편경구(어록)모음입니다. 중반부 중에서도 10~22:16까지는 솔로몬의 단편경구 375개입니다. 그리고 22:17~24장까지는 당시의 지혜자들의 경

구 30개와 또 다른 지혜자의 경구 6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들 중에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가려 뽑아 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5~29장은 솔로몬의 제2잠언입니다.

히스기야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임금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와는 약 27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도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때에 히스기야왕이 신앙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가장 자혜로운 왕이라 평가를 받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말씀을 찾아서 정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왕 시대에 학자들은 서기관 셉나와 사관 요아 등이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도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의 집현전 학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5~29장까지의 솔로몬의 제2잠언에는 모두 128개의 경구가 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모은 잠언들이라 여기에는 왕과 신하, 왕과 백성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 빈번하게 나옵니다. 또한 이것들 역시 솔로몬의 잠언들이기 때문에 10~22장의 솔로몬의 제1잠언에 나오는 것이 반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2)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일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사람들이 다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간다는 의미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주인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관문 버튼을 여러 개를 순식간에 누르고 문을 열고, 가스 불을 켜서 음식을 조리하고, 밖에서는 운전까지 합니다. 그것들이 보기에 사람들의 행동은 신기함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오묘한 것이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섭리(攝理)’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양화 진흥에 들어가면 조선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여, 벽에 ‘섭리’라고 한자로 써 놓았습니다. 섭리의 ‘섭(攝)’자는 ‘손 수(手)’ 변에, ‘귀 이(耳)’자가 3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행하신 것을 듣고,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인간이 이해할 없기 때문에 들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오묘한 행하심에 대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라고 고백했습니다.

반면에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영광)이라고 합니다. ‘살피다’의 뜻은 ‘탐색하다’, ‘조사하다’, ‘시험하다’입니다. 왕은 가능한 상세하게 살피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일천번제 후에 기도할 때에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했

습니다. 당시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재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4~5)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 만한 그릇이 나올
것ियो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은광(銀鑛)’에서 은을 캐면 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과 함께 온갖 불순물이 함께 채굴됩니다. 거기서 은을 가려내는 방법은 은만을 추출하는 방법도 있고, 은이 아닌 것을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이 아닌 것을 버리고 버리다 보면 은만 남게 되고, 그것으로 은장색(세공업자)은 은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그릇’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주인인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될 것이고, 불순물을 가만히 두면 돌수록 주변을 오염시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임금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충신들을 더 많이 세우는 방법도 있지만,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사람들을 물리치면 신실한 사람들이 남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6~7)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옴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말석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현으로 하면, 스스로 밑가지가 되는 삶을 살아야지, 윗가지로 살려고 하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야하는 송사와 언쟁, 합당한 처신(8~17)

8~17절에는 송사와 언쟁에서 피해야 할 것과 일상생활에서 합당한 처신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9)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웃과 사이 좋게 지내야 하지만, 혹 법정에서 다투게 되는 지경에 이를지라도, 정도(正道)가 있음을 말합니다. 법정에서는 정정당당하게 변론만하고, 공방 내용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상대의 비밀은 누설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일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은 상대의 인격에 손상을 주는 비열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만이 알고 있었던 일은 끝까지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꼭 법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부부간에도, 가족 간에도, 친구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으면, 혹 오

해가 있었다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기 쉽지만, 선을 넘어서 인신공격과 주변사람들까지 비난하게 되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11)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니라

기가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일예배나 수요성경공부, 새벽기도회에서 15~50분 정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때 들었던 모든 말씀이 다 들어오고, 또 다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 토막(단락)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한 문장, 심지어 어떤 때는 한 단어가 우리의 폐부를 뚫고 들어오고, 잠든 우리의 심령을 깨웁니다. 그래서 그 문장,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됩니다.

(12)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도 복되고, 그것을 바르게 받는 사람도 복됩니다. 운동을 잘하게 될수록 코치의 조언을 깊이 듣듯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의 조언을 깊이 듣습니다.

(13)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열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25)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팔레스타인에서는 보리 수확은 4월 중순부터, 밀 수확은 6월 초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6월에는 이미 건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낮에는 몹시도 무덥습니다. 추수하는 농부에게 ‘얼음냉수’는 큰 기쁨입니다. ‘얼음냉수’의 원 의미는 ‘얼음을 띄운 물’이 아니라 ‘눈의 차가움’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2,814m의 헤르몬 산에서 흘러나온 눈이 녹은 차가운 물입니다. 즉 ‘얼음 냉수’는 ‘빙하수’입니다. 당시에 가장 시원하게 들리는 메시지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얼음 냉수와 같을 것입니다.

(14)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강수량이 적은 팔레스타인에서 구름과 바람은 사람들에게 잔뜩 비를 기대하게 해 줍니다. 그런데 구름만 많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선물을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그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손과 발의 행함이 빠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과 신앙의 수준은 말의 수준이 아니라 행함의 수준입니다.

(16)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27)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24장에서는 ‘꿀’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 한가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편협하고 위험합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나침이나 모자람이 이 아니라 알맞음이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갑니다.

이웃사촌, 의인의 삶(18~28)

18~28절은 이웃과의 관계와 의인이 지켜야 할 것과 버릴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8)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원문의 순서 그대로 번역하면 이리합니다.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 칼, 화살은 모두 살상무기입니다. 거짓증거가 그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을 옮기는 사람은 상대를 향해서 육모 방망이와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고, 화살을 날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9)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환난의 날’에는 사람들이 진실하기가 어렵습니다. 6.25와 같은 전쟁 후라든지, 20년 전의 IMF 때라든지 어려운 때에는 기회주의자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믿을 만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20)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언행이 상대에게 얼마나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굉장히 실제적으로 묘사합니다. 상대는 깊은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앞에서 콧노래를 부르는 것은 한겨울에 옷을 벗기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킹소다에다 식초를 부르면 거품이 많이 일어납니다. 것처럼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노래하는 것은 상처가 나서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위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언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웃이 원수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가 굶주려 있거든 먹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28)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음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고대와 중세에서 성벽은 한 도시나 국가의 상황을 적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었기 때문에 적들이 쉽게 공격하지 못했고, 또 도시와 국가의 힘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성벽이 없는 것은 곧 패망의 지름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벽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절제로 쌓는 성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지키는 힘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끼여 있는 찌꺼기들을 매일 매일 제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 충성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살이가 환난 같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언제나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사람에게는 먹이고 마시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값으심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제어하게 하셔서,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적당하게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런 삶을 살 수 없기에,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찌꺼기와 같은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2. 당신이 들은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 사과와 같은 합당한 말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또 당신이 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람이나 일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3. 마음을 제어하는 것은 성벽을 세우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잘 절제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가장 절제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잠언 26:1~28

1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2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3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4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5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6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7 저는 자의 다리는 힘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8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9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10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11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둬 행하느니라 12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13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14 문짝이 돌쩌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15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16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17 길로 지나가다

가 자기와 상관 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
 니라 18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
 니 19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
 러하니라 20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
 니라 21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22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23 온유한 입술
 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니라 24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25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
 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26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
 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27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28 거짓말 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미련한 사람의 행태(1~12)

오늘 본문은 25~29장까지의 솔로몬의 제2잠언 중에 일부입니
 다. 1~12절까지는 미련한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사람의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롭게 되는 것이 적절
 하지 않음을 적절하지 않은 기후가 주는 해악으로 설명합니다.

‘미련한 자’의 문자적인 의미는 ‘어리석은 사람’, ‘바보’를 뜻하는 말이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지능이 낮거나, 배움의 길이가 짧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강박한 심령의 소유자를 뜻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10~11월에 이른 비가 내리고 3~4월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즉 겨울이 우기이고, 여름이 건기입니다. 7~8월은 가장 무더운 건기의 때입니다. 이때에 포도와 무화과 등 과일들은 집중해서 성숙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무더운 때에 눈이 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눈이 오게 되면, 농작물이 냉해를 입어 치명적인 피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또 추수할 때에 날씨가 쾌청해야 수확한 농작물이 잘 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 때에 비가 오는 것은 수확하는데 차질을 빚게 할 뿐만 아니라, 수확한 농작물이 잘 마르지 않고 썩게 될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영예를 얻는 것은 잘못된 날씨가 농작물을 썩게 만드는 것처럼, 사회를 썩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8)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물매’는 돌을 날리기 위해서, 돌을 올려놓고 돌리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돌을 물매에 올려놓지 않고, 매었다고 합니다. 물매에 돌을 매고서 돌려 날리면, 그 물매는 자신에게 날아와 자신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미련한 사람의 손에

명예와 힘이 부여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과 자신을 해치는 흥기가 됩니다.

(4~5)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4절의 의미는,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것을 말할 때, 그것이 옳다고 맞장구를 쳐주면, 두 사람은 같은 사람, ‘덤 앤 더머’가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의 의미는 미련한 사람이 말도 되지 않는 것으로 공격해 오면, 올바르게 대답해 주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인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오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두 말씀 모두 미련한 자를 대할 때에 상황에 맞고 적절하게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6)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미련한 사람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의 통신수단이 ‘인편(人便)’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때에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할 때는 충명한 사람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전권대사’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때에 미련한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일을 실패하고, 손해를 보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동의어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게 생각되었으면, 자기 발을 베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발을 베다’는 것은 ‘그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게 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해를 받다’는 ‘폭력을 마시다’, ‘독을 마시다’입니다. 결코 미련한 사람 편에 중요한 것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 저는 자의 다리는 힘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달려 있으나 힘을 쓸 수 없는 다리는, 다리가 없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련한 사람에게도 입이 있으나 없는 것과 같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9)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술에 취한 사람은 손에 가시나무를 들고서도 자신이 무엇을 들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휘두르는 가시나무에 다른 사람들이 다쳐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다쳐도 알지 못합니다. 아침에 술에서 깨면, 자기 몸에 난 상처가 왜 생기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치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자신이 그랬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하는 말이 그만큼 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10)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뛰어난 장인일수록, 뛰어난 예술가일수록 아무나 제자를 받지 않습니다. 제자는 정말 까다롭게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칠 만한 사람이 아니면 가르치지 말고, 재주가 덕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라’는 옛 말이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만드는 전문가가 저와 같이 바이올린도 모르고, 음악도 모르고, 손재주도 전혀 없는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만큼이나 미련한 사람을 뽑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11)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 말씀의 내용을 머릿속에서 그리기만 해도 역겨움이 느껴집니다. 이 개는 지금의 집 안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의미하지 않고, 야생 들개를 의미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개들은 본능적으로 파리도 잡아먹고, 작은 곤충도 잡아먹고, 먹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워 먹습니다. 집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여도 그렇습니다. 개의 본능입니다. 토한 것도 먹는다고 합니다. 미련한 사람의 행동이 그러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역겹다는 것입니다.

(12)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미련하면서도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의 최상급입니다. 미련한데 본인이 미련한 줄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주변 사람들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미련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기까지 하면 주변 사람들은 더 힘이 듭니다. 최악은 미련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소신까지 있으면 주변 사람들을 절망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게으른 자, 고약한 자, 위선자(13~28)

13~28절은 게으른 사람, 고약하게 사는 사람, 위선을 떠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3~16절은 게으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16)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짜이 돌쩌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길에 사자가 있다고 말하는데, 앞의 사자는

일반적인 사자를, 뒤에 있는 사자는 젊은 사자, 더 포악한 사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자를 길에서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듣고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더 기가 막히는 표현이 14절인데, 문이 열리고 닫히기는 하지만 문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도 침대가 자신의 활동반경의 전부입니다. 자신은 매일 움직이고 있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밥상을 갖다 줘도, 밥을 뜯 숟가락을 들어 올리기가 귀찮아서 먹지 않습니다. 아마 떠서 입에 넣어주면 씹기가 힘들다고 먹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줄로 압니다. 미련한 사람의 극치가 자신이 미련하지 않은 줄로 착각하는 것인데, 게으른 사람의 극치도 자기가 지혜로운 줄로 압니다.

게으름에 관한 교훈이 중요한 이유는 자기의 역할에 자기 책임감을 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녀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에,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은 제 책임입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좋은 대학에 가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교육입니다.

(17)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 없는 다똥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길로 지나다’는 ‘자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길에 있는 개(야생 들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은 것이 남의 다툼에 간섭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길에 있는 ‘핏불 테리어’, ‘로트 와일러’와 같은 개의 귀를 잡았다가 물리면,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끼어들면, 큰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18) 햇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이웃에 사는 사람을 속이고 나서도 “그것은 농담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햇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말로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서도 “난 뒤끝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비슷한 부류입니다.

(20~21)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23~26)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전부 다 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도 말이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도 말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고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 하엿더라 (사 6:5)”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하다면, 우리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의지를 다해서 상대를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하다가 보면 그 말이 우리도 격려하고, 우리도 세워줄 것입니다.

(27~28)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 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여우가 제 꾀에 넘어간다는 말처럼, 사람도 자신의 꾀가 많으면 자신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모르드개와 에스터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던 ‘하만’입니다. 결국 그는 모르드개를 잡기 위해서 만들었던 높은 장대에 하만 자신이 거기에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가 미련한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않고, 고약하지 않으며, 위선을 떨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게으른 사람의 길, 고약한 사람의 길, 위선자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걷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생각과 미련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미련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열려 있게 하시고, 배우고 깨닫는 일은 평생이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와 신앙생활에서 게으름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올 때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언어생활을 붙들여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고, 의도적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과도한 농담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당신이 본 가장 미련한 사람의 행동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또 당신의 삶에 가장 미련스러운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2. 당신이 본 게으른 사람의 모습은 언제이었습니까? 당신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3. 당신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 가운데, 가장 상대를 격려하게 하고, 상대를 세워주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미련함과 게으름의 옷을 벗 바른 언어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잠언 27:1~27

1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
가 알 수 없음이니라 2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3 돌은 무
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
우니라 4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는 누가 서리오
5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6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
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7 배부른 자
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주린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8 고향을 떠
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9 기쁨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
름다우니라 10 네 친구와 네 아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11 내 아들이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
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12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13 타인을 위하
여 보증 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14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
어 저주 같이 여기게 되리라 15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
지는 물방울이라 16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

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17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18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19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20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21 도가 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22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짙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23 네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 떼에게 마음을 두라 24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25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풀을 거둘 것이니라 26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27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자찬, 투기, 충고에 대한 지혜(1~11)

오늘 본문 역시 히스기야왕의 신하들이 수집하고 편집한 솔로몬 왕의 잠언 선집인 25~29장 중의 27장입니다. 1~11절에는 자랑하지 말 것과 분노와 투기에 대해서 경계하며, 우정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어제는 지나간 시간임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라 역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

은 오직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루살이들이 파리들과 놀다가 해가 지니, 파리들이 “내일 보자!”라고 말하니, 하루살이들이 “내일이 뭐니?”라고 했다고 하지 않는가? 파리가 보기에 약 80년(약 30,000일)을 사는 인간은 영원을 사는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80년도 영원에 비하면 하루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짧은 우리의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안개가 아무리 짙게 끼 있을지라도 바람이 불거나 해가 그 얼굴을 드러내면 안개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로 시작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후렴은 우리말과 영어가 좀 다릅니다. 영어가사는 이리합니다.

내일에 관한 많은 것을 나는 이해 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일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압니다. 또한 내 손을 잡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도 압니다. (Many things about tomorrow I don't seem to understand.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내일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자기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2)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화자찬(自畫自讚)’하지 말라고 합니다. 칭찬은 ‘타화타찬(他畫他讚)’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칭찬은 다른 사람이 해 주면 아름답고 향기롭지만, 자기가 자기를 하면 추하고, 악취가 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이 자신을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물론 최고의 칭찬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투기의 파괴성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3~4)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돌도 모래도 무겁기에 물에 뜨지 않고 가라앉습니다. 돌이나 모래를 가슴위에 올려놓고 누우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짓누를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미련한 사람의 분노입니다. 상한 감정이 누르는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37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나라 중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2등과 심하게 차이나는 1등입니다.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마음의 눌림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돌에 눌러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보

다 마음이 늘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누르게 하는 질투의 활동은 방학도 없고, 휴가도 없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지라도 다윗을 시기하여 이미 판정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비교의식은 우리에게서 아주 멀리 떠나보내야 하는 악입니다. 진실한 우정과 그렇지 못한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5~6)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면책(面責)’은 ‘마주 대하여 책망하다’는 뜻입니다. 바른 사랑은 뒷담화를 하지 않습니다. ‘숨은 사랑’은 사랑의 표현을 숨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야 할 말, 해주어야 할 말을 숨긴 채 달콤한 밀어만은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직언(直言)’은 듣는 사람도 힘들지만, 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직언의 바탕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직언은 비난과 정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면책’은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아픈 책망’이 됩니다. 그 마음속에 충직, 상대를 지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랑의 표현이어야 할 입맞춤이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배신과 동의어입니다.

(7)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주린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앞에서 ‘꿀’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으로, ‘가장 좋은 음식’의 상징으로 나왔었는데, 여기에서는 단지 ‘좋은 음식’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좋은 것’을 뜻하면서, 특히 ‘좋은 충고’를 의미합니다. ‘싫어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발로 밟다’, ‘짓밟다’입니다. 스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충고는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발에 밟힘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거슬리는 것도 잘 받아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언이나 충고, 상담, 도움의 말 등은 그것을 전하는 사람보다,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함을 일깨워 줍니다.

(9)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식용유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올리브유에 여러 가지 향을 섞어 만든 것으로 머리에 붓거나 피부에 바르는 화장용 기름을 뜻합니다. 그리고 ‘향’은 ‘침향’이나 ‘계피향’ 등의 냄새를 발하는 것을 말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에 사는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이런 향료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충성된 권고’가 아름다운 기름과 같다고 합니다. ‘충성된 권고’의 문자적인 뜻은 ‘생명의 권고’입니다. 자신의 목

숨을 걸고서 권고를 하면 상대가 듣습니다. 이런 권고를 주고받는 친구가 있다면, 그 인생이 참 복됩니다.

(11) 내 아들이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이런 인생의 지혜를 깨우친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겠습니까? 당시에 자녀는 하나님의 복으로 여겼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복 위의 복이었습니다.

바른 삶의 자세에 관한 교훈(12~27)

12~27절은 우매한 사람들, 삶의 영향력, 근면한 행동 등을 통하여 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12)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믿음이 좋다는 것’과 ‘무모하다는 것’과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만약 예배당 건물을 높이 지으면 그 꼭대기에 십자가를 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꼭 피뢰침을 겁니다. 다른 건물도 아니고, 예배당을 짓는데, 피뢰침까지 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면, 번개가 다른 곳에 떨어지게 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번개는

가장 높은 건물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연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믿기에 피뢰침을 다는 것이고, 그것이 슬기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대부분 고집이 셉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서도 고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해를 당하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22절은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미련한 사람과 곡물을 절구에 함께 넣고 공이로 찼으면 곡물은 껍질이 벗겨지는데, 미련한 사람에게 덮인 미련이라는 껍질은 벗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미련한 사람의 미련은 겉에 있지 않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14)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 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웃을 위해서 축복, 복을 비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에나 해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좋은 것일수록 가려서 해야 더욱 빛이 납니다.

과거에는 마을에 있는 예배당에서 종을 쳤습니다. 사람들은 그 종소리를 듣고 교회를 가기도 했지만, 시간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계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종을 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성탄이 다가오면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이제는 아름답고 거룩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도 새벽송을 고집한다면 그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이 됩니다.

(17)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인간관계에서 주고받는 영향력이 몹시도 큼을 말합니다.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를 보면 비슷한 수준의 두 선수를 나란히 스케이팅하게 하게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실력을 날카롭게 해주어서 더 나은 결과를 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두 선수가 경기를 하다가 가끔 한 선수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서 달리게 되는데, 거의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합니다. 넘어진 선수가 자신의 실력을 날카롭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자신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지만, 좋은 친구가 있으면 더욱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부부는 더욱 그러합니다.

(21)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불순물이 섞인 은은 도가니를 통과해야 은다워집니다. 또 여러 혼합물이 섞인 금은 풀무를 지나야 금다워집니다. 사람은 ‘칭찬이라는 도가니와 풀무’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판가름이 납니다. 우리가 우리다워지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할 것 같

은데, ‘칭찬’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에도 겸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23~27절은 근면한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23~27) 네 양 때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 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니 면류관이 여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양 때의 형편에서 ‘형편’의 문자적인 의미는 ‘얼굴’입니다. 그것은 양을 칠 때에 그저 마릿수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얼굴을 확인하며 건강한지, 다치거나 병들지 않았는지 확인하며 살피라고 합니다. 소를 칠 때도 소 떼에게 마음을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돌아보면 어린양털로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고, 염소를 팔아서 밭을 살 수도 있고, 염소의 젖을 짜서 가족들과 일하는 사람들, 여종까지 먹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고, 미련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신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한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한 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책임 질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올바른 우정을 보여주는 친구에게 우리도 그에게 신실하고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아는 분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분별력이 있는 삶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며,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총의 통로가 되게 주시옵소서. 용광로를 통해서 금은 금다워지고, 은은 은이 되듯이, 칭찬이든, 고난이든 인생에서 만나는 그 어떤 용광로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고도 성숙한 삶을 살아, 그 은총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하루,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도 낫다고 합니다. 사랑의 면책을 통해 당신의 삶이 새로워지거나, 누군가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통로가 되신 일이 있습니까?
2.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함께 있어서 그 누군가의 인생을 빛나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3. 도가니는 은을 만들어 내고, 풀무는 금을 만들어내며, 사람은 칭찬을 통하면 자신의 실상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칭찬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칭찬을 받을 때와 받지 못할 때가 어떻게 다릅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유한한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기 위해서 .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복된 자의 삶

잠언 28:1~28

1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 같이 담대하니라
2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3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
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4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
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5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6 가난하여도 성실하
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급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7 율법을 지
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8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이는 것은 가난한 사
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9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10 정직한 자
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11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12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
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13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
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14 항상 경외하는 자
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 15 가난한 백
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 같으니라 16 무지
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나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17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18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19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20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
 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21 사람의 낮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22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
 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23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
 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24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
 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 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25 욕심
 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
 니라 26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27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
 와 못 본 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28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악인과 의인에 대한 교훈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의 신하들이 특별히 가려 뽑은 솔로몬의 제2잠언으로 불리는 오늘 본문은 다시 악인과 의인을 비교 설 명하며 그들의 행위로 인한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악인은 어리석은 자요 의인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지키는 자요 어리석은 자는 율법을 거스르는 사람으로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

하고 있습니다. 1~12절까지는 율법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자이며, 13~18절까지는 악인의 멸망, 의인의 구원을 말하고, 19~28절까지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구분, 율법(1~12)

(1)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 같이 담대하니라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악인은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오는 자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이 그를 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책망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양심이 있기에 괴로워하지만 그 괴로움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삶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은 사자 같이 담대합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고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 강아지가 호랑이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를 하는데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지 궁금하다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평안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십니다.

(요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 같이 담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인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할 때 제일 먼저 샬롬이라고 외칩니다. 샬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이보다 더 귀한 게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의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4)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7)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그냥 니 알아서 살아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끔 인생사용설명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벌이 내버려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죄악 된 인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두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고난과 시험거리를 주심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사랑하기에 자신을 위해 온갖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을 가꾸기 위해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건강을 위해 헬스를 하고,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멋진 집에서 잠을 잡니다. 이 모든 게 나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 나를 위한다면 이보다 더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나를 맡기겠다는 결단입니다. 나를 위한다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허망한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웃을 대하는 바른 자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순종하며 살 것을 강조한 후, 이어서

이웃과 바른 관계 맺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가진 자가 못가진 자를 배려하고 구제하는 일에 자신의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3)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쪽우
같으니라.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다면, 누가 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이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의 마음을 더 잘 알기에 더 배려할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풍족한 부자는 자기에게 필요 없는 부스러기라도 남기지만 가난한 자는 부스러기조차 남김없이 쓸어가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절실함을 낳고 그 절실함이 무자비함을 낳기 때문입니다.

(8)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이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이는 것’은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늘리는 걸 의미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고리대금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출22:25, 레25:36~37, 신23:20, 시15:5 참고). 일반적으로 남에게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은

가혹한 일입니다. 높은 이자를 내는 돈을 빌리면,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빌린 돈을 더 갚기 어려워집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돈을 갚지 못하면 눈과 발을 팔고, 그래도 갚지 못하면 자기 가족을 팔아서 빚을 갚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리대금은 자유인을 종으로 만드는 비인간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이는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불법으로 또는 요행으로 재물을 모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모은 재물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불법으로 번 돈은 정상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돈은 흐르고 또 흘러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줄부가 된 사람치고 그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피땀 흘려 돈을 번 사람은 그 돈의 가치를 압니다. 그러나 내 노력으로 번 돈이 아니라, 불법으로 또는 요행으로 얻은 돈은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냥 흘러가버립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하고, 자신과 이웃을 위해 적절히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
같으니라

(27)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본문 곳곳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37~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의미는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제일 먼저 만들어진 구약성경입니다. 그 다음 선지자의 강령은 예언서를 의미하는데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권까지, 그리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며 살아갈 때,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만들어진 구약성경입니다. 그리고 성문서는 모세 오경과 예언서를 제외한 나머지를 ‘거룩한 글’이란 뜻으로 성문서라고 부릅니다. 성문서는 예수님 시대보다 늦은 1세기 후반에 성경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의 구약성경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성문서는 세 번째로 만들어진 구약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구약성경을 두 가지로 요약해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와 같으니’라는 뜻은 첫째와 둘째 말씀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불성설 語不成說입니다.

복된 자의 삶

(20)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충성된 자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를 비교합니다. 다시 말해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충성된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욕심을 가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욕심을 가진 자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동분서주 하며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다.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밤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오직 일일일.. 일중독에 빠져 사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는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 탐욕에 충성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탐욕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충성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충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충성하는 존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6절입니다.

(26)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세상을 사는 인간을 믿었다가는 매번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믿는 자는 어리석지만,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되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이웃을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며, 자기에게 좋은 것만 취사선택하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진실 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죄로 인해 억압당하고 눌린 자를 참 자유인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무언가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다.
2. 나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물질과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내 이웃을 위해 드리는 물질과 시간은 쓸데없는 낭비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3.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상대를 잘 알기에 더 잘 배려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은 잘 알기에 그 약점을 공격하지는 않았습니까?
4.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인 것을 모르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고 호언장담 한 적은 없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잠언 29:1~27

1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2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3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버리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4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5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6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울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7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 주나 악인은 알아 줄 지식이 없느니라 8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9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10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11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12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13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14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15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 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16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17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18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19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20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
 니라 21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체하
 리라 22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23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24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
 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25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
 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26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
 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27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1~27)

성경을 읽다 보면 장, 절과는 별도로 고딕체의 ‘소제목’이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번역본인 ‘개역개정판’ 성경의 잠언 30장을 보면 바로 앞에 ‘아
 굴의 잠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31장 앞에는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제목은 성서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성경을 우리
 말로 번역하면서 말씀의 내용을 좀 더 쉽게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달아 놓은 주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29장에는 그 어떤 소제목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보니 25장 바로 앞에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소제

목이 달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잠언의 저자로 솔로몬을 가정 먼저 떠올립니다. 잠언 1장 1절만 보아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잠 1:1)고 시작됩니다. 그리고 잠언 10장을 보니 바로 위의 소제목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쓰여 있습니다. 10장과 25장의 소제목이 동일한 것이지요. 그러나 엄밀히 볼 때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의 본문과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 본문은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잠언 10장 1절은 ‘솔로몬의 잠언이라’(잠 10:1)고 시작됩니다. 25장도 10장과 동일하게 ‘솔로몬의 잠언이요’(잠 25:1)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나 25장 1절에는 이어서 다음 구절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잠25:1) 앞선 새벽기도회에서 이 자리에 서셨던 목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의 본문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그동안 묻혀 있던 솔로몬의 지혜들을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입니다. 소위 ‘솔로몬의 제2잠언’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동안 어떠한 이유로 정리되지 않고 묻혀 있다가, 솔로몬 사후 약 200년이 지난 뒤인 히스기야 왕(B.C 716~687) 시기에 이 잠언들이 빛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누구인가요? 첫째, 남 유다의 왕 가운데 몇 안 되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자’입니다. 둘째,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

의 왕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병들어 죽을 운명이었으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의 생명을 연장 받은 자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만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참 행복한 시대에 살았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8~19장에 나타난 당대의 시대적 배경에 따르면 히스기야 왕의 통치시기는 국제적으로 매우 험난한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국을 건설했던 앗수르가 수시로 위협하고 침략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히스기야 왕 재임기인 B.C 722년에는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개인적으로 죽을병에 걸리기도 했지요.

종합해 보면 히스기야에게는 대내외적으로 주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의지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특별히 잠언 25~29장의 ‘솔로몬의 잠언’은 위와 같은 히스기야 왕 시절 신하들이 찾아내고 편집한 것이기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에 대해 더욱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삶 속에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29장은 그러한 배경에서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2)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우리들은 우리의 주장대로 고집을 피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만 때때로 우리 자신의 완곡한 주장으로 인하여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친구나 동료, 선배 등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 바로 그러한 자를 의미합니다.

(3~7)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 줄 지식이 없느니라

흔히 지혜와 지식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식은 단시간 내에 인간이 학습하고 노력하며 쌓을 수 있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자 늘 사모하며 노력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은 자는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를 받았기에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때문에 200여년 후, 유다가 앗수르라는 외부의 거대한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국난을 극복하고자 일부러 지혜가 담긴 솔로몬의 잠언을 찾아 편집하고 히스기야에게 전달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신하들

이 건네준 솔로몬의 잠언을 읽으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지혜를 얻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5절에서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는 구절은 사람만을 의지하는 자에 대한 솔로몬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8~14)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의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모든 일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22)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 둔 자식은 어머니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목사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네가 말이 조금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체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국가만이 아닌 가정과 사적인 모든 관계까지도 분쟁과 다툼 없이 슬기롭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때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채찍도 주십니다. 그 채찍을 지혜롭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가운데 자식을 징계하거나, 종에게 엄격하게 대하라는 구절은 바로 성장과 성숙을 위한 지혜임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23~27)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의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 29장의 23절 이하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 즉 솔로몬의 제2잠언의 소위 결론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은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시고, 마음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영예를 준다고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나 하나님

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또한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솔로몬이 29장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란 그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 오히려 위험을 자초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그저 사랑해야할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고 의지해야 할 곳은 어디 일까요. 바로 주님입니다.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통해 견내반은 솔로몬의 잠언을 읽고 내린 결론은 29장 25절에 쓰여 있는 문구 그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의지하고자 했던 히스기야에 대해 열왕기하 18장 5절은 다음과 같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왕하 18:5) 한편 새번역 성경에는 개역개정판과는 다르게 잠언 29장 위에 ‘상식’이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갖추어야할 상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여호와를 힘입어 나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의 주님! 새롭게 오늘 하루를 열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 자신이 주인으로 나를 지배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나의 유익과 욕망을 쫓아 주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인간의 지식을 앞세우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며, 그 지혜를 따라 숨 쉬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힘입기보다, 타인을 힘입기보다 주님을 힘입어 살게 하소서.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에도 나는 ‘목이 굳은 사람’(1절)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2.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 인간적인 욕망과 지식을 더 신뢰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봅시다.
3. 내가 누군가에게 교만한 자는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봅시다.
4. 나는 주권자(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까.(25~26절) 지나온 내 삶의 궤적을 그려보며 점검해 봅시다.

꿈꿀 수 있는 용기

잠언 30:1~33

1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2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3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기록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4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짠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5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6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7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8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10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11 아버지를 저주하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12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13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14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

나는 군도 갈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15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
 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16
 곧 스올과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나라 17 아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18 내가 심
 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19 곧 공중에 날
 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 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자취며 20 음녀의 자취
 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
 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21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22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23 미움 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이나라 24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25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26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
 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27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
 기와 28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나라 29 잘 걸으며 위
 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30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31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나라 32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체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33 대저 젖을 저으면
 영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름이
 남이나라

1장부터 29장에 걸쳐 기록된 솔로몬의 잠언 이외에도 잠언에는

다른 지혜자의 격언이 담겨있습니다. 30장과 31장에는 각각 아굴과 르무엘 왕의 잠언이 실려있습니다.

지혜자의 고백 (1~9)

(1)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1절은 30장의 표제로서 지혜자의 이름과 출신, 그리고 잠언의 대상이 나타납니다. 아들 아굴,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게는 이스라엘 이름이 아닙니다. 아굴은 이방인으로 다른 번역에 의하면 맛사 출신의 지혜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에 이방인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곳곳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도운 라합이나 예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룻 같이 말입니다. 잠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의 백성을 가르치십니다. 아굴은 이방인이면서 그의 지혜가 잠언에 담길 만큼의 지혜자이지만 겸손하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2)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가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지식은 창조주이시자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한한 생각과 경험의 한계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잘 아시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고백입니다. 시편과 잠언 곳곳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고백합니다. 아굴의 겸손과 지혜는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경외함에 의한 것입니다. 겸손한 지혜자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더할 필요도, 뺄 필요도 없이 주신 그대로 순전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 즉 구원 받은 자의 삶을 뜻합니다. 이 명예로운 선택의 삶을 인생의 여정 속에 놓치지 않고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혜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9~10)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
이입니다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원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럼에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삶을 바라는 것은
혹여 나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함에
있습니다. 본성의 욕구대로 사는 삶은 헛된 것을 구하게 하며
이를 위한 거짓말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구원 받은 자에게 가
장 두려운 것은 구원하신 이로부터 멀어짐에 있어야 합니다.

숫자로 보는 잠언 (10~31)

10절부터 33절은 흔히 ‘숫자잠언’으로 부릅니다. 정신없이 나열
되어서 무질서하게 보이는 이 단락은 마치 무질서한 세상을 바
라보는 지혜자의 관점이 녹아있습니다.

부덕한 종과 자식 (10, 17)

(10)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17) 아버를 조롱하며 어머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10절에서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17절에는 아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에 대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종과 자식은 스스로 존재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의 위에는 주인과 부모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이들의 중심에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잠 16:18)이라고 하였습니다. 지혜자는 이러한 교만함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무리들 (11~14)

11절부터 14절까지는 다양한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부모를 저주하고(11), 자신의 모습을 기만하고(12), 교만하며(13), 착취하는 자들(14)입니다.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으나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는 이러한 어리석은 무리들이 넘쳐납니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이것들은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자 (15~16)

15절과 16절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을 거머리에 비유하여 소개합니다.

(15)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탐욕스러운 이들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마치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기를 족함이 없이 함과 같습니다.

피조세계를 통한 깨달음(18~31)

18절부터 31절에서 지혜자는 세상의 다양한 모습들과 피조물들을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기이히 여기나 깨닫지 못하는 것(18~20절), 세상을 진동시키며 견딜 수 없게 하는 것(21~23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24~28절), 잘 걸으며 위풍있게 다니는 것(29~31절), 이것들은 부정적이기도 하고 긍정적이기도 하나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혼란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혜자는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지혜자의 결론 (32~33)

(32~33)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체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영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름이 남이니라

지혜자는 세상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것을 강조합니다. 미련한 모습, 악한 일을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 마지막까지 경고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에 의탁할 때 절제의

열매가 맺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살아집니다.

아굴의 잠언을 통해 이 땅의 원색적인 단면과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 있는 지혜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굴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그 지혜를 사모하며 말씀으로 구원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내 안에 선하지 못한 죄 된 다양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도, 이 땅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며, 거머리와 같이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구하고 또 구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기까지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겸손함과 절제로 구원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의 질서를 다시 한 번 바라봅시다. 사소한 일상과 당연히 여겼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찾아봅시다.
2.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라고 합니다. 얼마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3. 헛된 것과 거짓말이 내 마음과 입에 있지는 않습니까? 구하고 있는 간구의 제목을 다시 한 번 점검해봅시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잠언 31:1~31

1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2 내 아들이 내가 무엇을 말하라 내 태에서 난 아들이 내가 무엇을 말
하라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 내가 무엇을 말하라 3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4 르무엘아 포도주
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
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5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6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즐지어다 7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
억하지 아니하리라 8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
하여 입을 열지니라 9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
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10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
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11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만나니 산업
이 꺾이지 아니하겠으며 12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
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13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14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
오며 15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16 밭을 살펴 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17 힘 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

18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19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20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21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흥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22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23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24 그는 베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25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26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27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니 28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29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30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31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왕의 기본자세는(1~9)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1)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잠언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입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대부분은 아버지가 아들

에게 주는 인생사용설명서, 인생지침서인데 반해, 오늘 본문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하는 잠언입니다. 당시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하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뿐만 아니라 중동의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왕에게도 몹시 소중하다면, 일반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을 들은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아라비아의 맛사(1절에 나오는 ‘잠언’이 문자적으로 ‘맛사’임)지역의 지혜로운 왕이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방 나라 왕의 지혜를 성경에 넣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르무엘 왕’은 솔로몬왕의 또 다른 이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은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깨우쳐 주는 구체적인 훈계입니다.

(2) 내 아들이 내가 무엇을 말하라 내 태에서 난 아들이 내가 무엇을 말하라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 내가 무엇을 말하라

‘내 아들이’를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 태에서 난’, 즉 10달 동안 태속에서 품었던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원대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가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한나처럼 서원을 하여서 은혜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게 들려주는 잠언이라 간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이성(異性)관한 권면입니다.

(3)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이 솔로몬이라면 그에게는 부인과 첩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많은 아내를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700명이고, 첩도 3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아내를 두어서 그의 힘을 무분별하게 허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고대에는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을 영웅의 조건이나 자랑처럼 여겨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르무엘의 어머니는 그런 것은 왕을 파멸시키는 치명적인 일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인 왕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술을 멀리할 것에 관한 권면입니다.

(4~7)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반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왕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연회를 많이 여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과 포도주는 떼려고 해도 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아들 르무엘에게 단호하게 ‘포도주는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즉 ‘포도주는 왕들에게 아니다’라고 3번을 강조하여 말합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그 어떤 자리보다도 바른 분별력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왕이 주색에 빠져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지난 주일의 설교로 말씀드리자면, 왕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 욕망과 방종의 상징인 포도주라는 바알세불을 힘입는다면, 그는 결코 바른 왕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바른 재판에 관한 권면입니다

(8~9)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왕이 자신의 입을 열어야 할 때는 포도주를 마시는 술잔 앞에서가 아니라 ‘말을 못하는 사람’과 ‘고독한 사람’ 앞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은 ‘언어장애인’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에 법원 앞에는 많은 ‘대서소(代書所)’들이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글을 대신 써 주는 곳’입니다. 과거에는 지금처럼 많이 배운 사람도 적었고, 일반인들에게 법원에서 쓰는 용어가 아주 생소했기 때문에 여러 법률문서들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 아주 말을 잘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률용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적어도 법률언어에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고독한 사람’은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말 못하는 사람’과 ‘고독한 사람’은 법정이나 사회적인 관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왕의 공정한 재판은 왕의 역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바른 분별을 하는 재판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르무엘왕의 어머니의 잠언~현숙한 여인은(10~31)

10~31절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이것이 르무엘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고, 지혜의 책인 잠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가장 큰 지혜도 현숙하고, 현

명한 배우자를 얻는 것만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10~32절은 모두 22절인데, 이것은 시편 119편처럼,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순서대로 시작하는 '알파벳 형식' 또는 '답관체(踏冠體)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답관체는 '머리를 밟아가는 문체'라는 의미로 시작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정형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쉽게 외울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이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0)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현숙하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자의 마음이 어질고 정숙하다'입니다. 본문의 현숙한 여인은 현모양처(賢母良妻)와 같은 여성을 그리지 않습니다. '현숙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능력 있다', '힘이 있다'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덕이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우리 말 '덕'은 단순히 '너그러움'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힘'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지금의 모습은 부모님 덕분이야"라고 할 때에, 덕분은 너그러움과 힘을 모두 포함합니다.

(11~12)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만나니 산업이 핏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현숙한(덕이 있는) 여인을 아내로 얻은 남편의 복을 말합니

다.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는 가정은 참 복됩니다. 그런 가정은 산업이 핏절(수입이 부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부는 자신이 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의 마음처럼 평생 자기 배우자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13~15)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 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이 여인의 근면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여인은 입으로만 말하거나, 손가락만 움직이며 시키지 않고, 스스로 자기 손으로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중해 해상무역은 페니키아 상인들이 주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도 잘 나서지 않는 분야였습니다. 그럼에도 양식을 먼 데서 갖고 온다는 것은 그만큼 진취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족들과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16~18)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 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재정운영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시에 땅을 사고파는 일은 남자의 몫이었지만 그 일은 물론, 장사(사업) 수완도

뛰어나 늦은 시각까지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허리를 묶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옷들은 다 통옷이었기에 일을 하려면 허리를 묶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움직임이 편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몸이 편하게 움직이게 함만을 의미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마음을 묶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신발 끈을 굳게 묶는 것입니다.

(20~21)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가족과 이웃을 위한 배려를 말합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야 할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도왔습니다. 그녀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한 것은 자신과 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몫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와도(이스라엘은 눈이 거의 오지 않는 지역이라, 눈이 온다는 것은 아주 추운 날씨를 의미한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모두에게 ‘홍색 옷’을 입게 했다고 합니다. 홍색 옷은 오늘 날로 하면, ‘롱패딩’이라 할 수 있습니다.

(23)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28~29)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당시에 ‘성문’은 공적인 일을 의논하고, 재판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성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어머니에게 감사(축복)한다는 것은 그녀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아내를 향해서 남편은 최고의 칭찬을 합니다. “덕행(현숙)있는 여인들이 많지만, 당신이 최고요.”

오늘 본문이자 잠언의 막은 이렇게 내립니다.

(30~31)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마음이 곱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닌 때도 적지 않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미추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은 오래갑니다. 그 대상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에서 시작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으로 끝이 납니다.

오래전 유행가 중에 ‘희망사항’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여자....

그런데 이 노래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보세요. 날 좀 잠깐 보세요. 희망사항이 정말 거창하군요. 그런 여자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여인이 현숙해야(덕이 있어야)한다면, 동일하게 남자도 어질고 덕이 있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언의 대부분을 솔로몬이 기록하였다고 하여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한 때 우리나라 축구감독이었던 ‘히딩크 어록’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록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이 몇 개 있습니까? 또 유명한 분들의 어록이 사람들에게 회자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잊힙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한 사람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이 솔로몬의 어록이라면, 성령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남아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언은 ‘하나님의 어록’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깨달음을 주고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난 3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000년 동안 아니 영원토록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잠언은 결국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살 것인지, 유한하고 세속적 가치관과 바알세불을 힘입고 살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명철의 사람이 되느냐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느냐가 우리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르무엘 왕이 어머니에게 들은 지혜의 말씀, 여인들에게 힘을 쓰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찾지 말고, 공의로 재판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도 건강하고 바른 인간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할 것에 지배를 받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바른 분별력을 갖고서 손을 내밀어야 할 상황에 거두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숙한(덕이 있는) 여인처럼, 주어진 삶에 근면성실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게 하시고, 가족을 비롯한 함께 하신 사람들에게도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솔로몬 왕이나 몇몇의 지혜자의 어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록이기 때문에 3,000년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인생사용설명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매일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록인 잠언의 말씀과 하나님을 힘 입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자신에게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잠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권면한 세 가지 중 당신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2. 현숙한(덕이 있는)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더 값지다고 합니다. 덕이 있는 남자의 가치도 동일 할 것입니다. 당신이 본 그런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또 당신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 잠언을 배우며 가장 깊이 깨닫게 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한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해준 말씀은 무엇입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